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

-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蒲　一　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

-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蒲 一 平

보일평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민 현 식

부위원장 고 정 희

위 원 구 본 관

국문초록

추측 양태부사는 화자의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로서 의사소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빈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추측 양태부사는 양태부사 중에서도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이렇듯 추측 양태부사가 현대 국어에서 자주 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기존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마'와 '혹시' 이 두 어휘만 중점적으로 연구했을 뿐 추측 양태부사 전반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통사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추측 양태부사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서 오류를 양산하거나 어색한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다양한 특성을 통사·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학습자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 및 교육 모형을 설계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추측 양태부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빈도수를 조사를 통해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 다섯 개의 추측 양태부사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1세기 세종 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과 결합하는 서술어와, 문장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해당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호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추측 양태부사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과 말뭉치 예문을 분석함으로써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 각 추측 양태부사 간의 의미·화용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의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여부, 제시 순서, 제시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교재에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 조사 참여자 집단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한 뒤에,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학습자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함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통사적 층위와 의미·화용적 층위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학습 내용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교육 내용과 의미·화용적 교육 내용을 유의미하게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추측 양태부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즉 형태 초점 교수법을 활용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의사소통적 교수법을 통하여 추측 양태부사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HE 모형을 이용하여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실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 방안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논의를 일반화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어휘 교육, 추측 양태부사, 형태 초점 교수법, 의사소통적 교수법, OHE 모형

학번: 2014-25220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2.1. 국어학에서의 선행 연구 ····· 3
2.2. 한국어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 7
3. 연구 대상 및 방법 ····· 9

Ⅱ.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 12
1. 추측 양태부사의 개념 및 선정 ····· 12
1.1. 추측 양태부사의 용어와 개념 ····· 12
1.2. 추측 양태부사의 선정 ····· 15
2.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 ····· 18
2.1.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 ····· 18
2.1.1.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 ····· 19
2.1.2. 추측 양태부사의 문장 유형 호응 양상 ····· 27
2.2.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 30
2.2.1. 개별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 30
2.2.2. 추측 양태부사 간의 의미·화용적 비교 ····· 45
3. 교재 분석 ····· 48
3.1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순서 ····· 48
3.2.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양상 ····· 49

Ⅲ.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 분석 ····· 55
1. 설문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55
1.1.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 55
1.2. 설문 조사 절차 ····· 56
1.3. 설문지 설계 및 분석 방법 ····· 57
2.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 59

2.1 추측 양태부사의 호응 표현 사용 양상 분석 ····· 60
2.1.1. 오류가 아닌 양상의 분석 ····· 61
2.1.2. 오류 양상의 분석 ····· 74
2.2. 추측 양태부사의 선택 양상 분석 ····· 89
3. 오류 원인 분석 ····· 114
3.1. 모국어의 간섭 ····· 115
3.1.1. 배제적인 간섭 ····· 115
3.1.2. 침입적인 간섭 ····· 116
3.2. 목표어의 복잡성 ····· 117
3.2.1. 통사적 호응 표현의 복잡성 ····· 118
3.2.2. 의미·화용적 기능의 복잡성 ····· 118
3.3. 교육 과정의 영향 ····· 121

Ⅳ.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방안 ····· 123
1.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목표 ····· 123
2.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내용 ····· 125
2.1. 추측 양태부사 교육 내용의 선정 및 배열 기준 ····· 125
2.2. 개별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내용 ····· 127
3.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방법 ····· 139
3.1. 형태 초점 교수법을 통한 추측 양태부사의 이해 교육 ····· 139
3.2.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통한 추측 양태부사의 표현 교육 ····· 142
4. 추측 양태부사의 실제 교육 방안 ····· 144
4.1.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모형 ····· 144
4.2.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실제 ····· 146

Ⅴ. 결론 ····· 161

※참고문헌 ····· 163
※부록 ····· 170
※Abstract ····· 176

표 차례

<표Ⅰ-1>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11
<표Ⅱ-1> 추측 양태부사와 관련된 분류 양상 ····· 14
<표Ⅱ-2> 한국어 양태부사의 선정 과정 ····· 15
<표Ⅱ-3>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양태부사의 빈도 ····· 16
<표Ⅱ-4>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목록 선정 ····· 17
<표Ⅱ-5> '아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 ····· 19
<표Ⅱ-6> '아마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 ····· 21
<표Ⅱ-7> '혹시'의 서술어 호응 양상 ····· 22
<표Ⅱ-8> '혹시나'의 서술어 호응 양상 ····· 23
<표Ⅱ-9> '아무래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 ····· 23
<표Ⅱ-10> '설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 ····· 25
<표Ⅱ-11> '어쩌면'의 서술어 호응 양상 ····· 26
<표Ⅱ-12> 추측 양태부사의 문장 유형 호응 양상 ····· 27
<표Ⅱ-13> 사전에서 '아마'의 뜻풀이 ····· 31
<표Ⅱ-14> 사전에서 '아마도'의 뜻풀이 ····· 34
<표Ⅱ-15> 사전에서 '혹시'의 뜻풀이 ····· 35
<표Ⅱ-16> 사전에서 '혹시나'의 뜻풀이 ····· 37
<표Ⅱ-17> 사전에서 '아무래도'의 뜻풀이 ····· 39
<표Ⅱ-18> 사전에서 '설마'의 뜻풀이 ····· 41
<표Ⅱ-19> 사전에서 '어쩌면'의 뜻풀이 ····· 44
<표Ⅱ-20>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서지사항 ····· 48
<표Ⅱ-21>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순서 ····· 48
<표Ⅱ-22> 교재에서 '아마(도)'의 제시 양상 ····· 49
<표Ⅱ-23> 교재에서 '혹시'의 제시 양상 ····· 50
<표Ⅱ-24> 교재에서 '아무래도'의 제시 양상 ····· 51
<표Ⅱ-25> 교재에서 '설마'의 제시 양상 ····· 51
<표Ⅱ-26> 교재에서 '어쩌면'의 제시 양상 ····· 53
<표Ⅲ-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 55
<표Ⅲ-2> 한국인 모어 화자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 56

<표Ⅲ-3> 선다형 문항 구성표 ····· 58
<표Ⅲ-4> 괄호형 문항 구성표 ····· 58
<표Ⅲ-5> 괄호형 문항의 정답률 ····· 60
<표Ⅲ-6> 문항 W1의 답변 양상 ····· 61
<표Ⅲ-7> 문항 W6의 답변 양상 ····· 63
<표Ⅲ-8> 문항 W10의 답변 양상 ····· 65
<표Ⅲ-9> 문항 W3의 답변 양상 ····· 67
<표Ⅲ-10> 문항 W5의 답변 양상 ····· 69
<표Ⅲ-11> 문항 W7의 답변 양상 ····· 71
<표Ⅲ-12> 문항 W9의 답변 양상 ····· 72
<표Ⅲ-13> 고석주(2004)의 어미 오류에 대한 분류 ····· 75
<표Ⅲ-14> 문항 Q13의 답변 양상 ····· 87
<표Ⅲ-15> 선다형 문항Q1-Q12의 정답률 ····· 89
<표Ⅲ-16> 문항 Q1의 답변 양상 ····· 91
<표Ⅲ-17> 문항 Q4의 답변 양상 ····· 93
<표Ⅲ-18> 문항 Q10의 답변 양상 ····· 94
<표Ⅲ-19> 문항 Q7의 대변 양상 ····· 96
<표Ⅲ-20> 문항 Q5의 답변 양상 ····· 97
<표Ⅲ-21> 문항 Q6의 답변 양상 ····· 99
<표Ⅲ-22> 문항 Q9의 답변 양상 ····· 102
<표Ⅲ-23> 문항 Q12의 답변 양상 ····· 103
<표Ⅲ-24> 문항 Q3의 답변 양상 ····· 105
<표Ⅲ-25> 문항 Q11의 답변 양상 ····· 107
<표Ⅲ-26> 문항 Q2의 답변 양상 ····· 108
<표Ⅲ-27> 문항 Q8의 답변 양상 ····· 110
<표Ⅳ-1>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목표 ····· 124
<표Ⅳ-2> '아마(도)'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 128
<표Ⅳ-3> '혹시'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 131
<표Ⅳ-4>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 133
<표Ⅳ-5> '설마'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 136
<표Ⅳ-6> '어쩌면'과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 137

<표Ⅳ-7> 이종은(2005)에서 OHE모형의 수업 절차 ····· 145
<표Ⅳ-8>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 모형 ····· 146
<표Ⅳ-9> '아마'의 수업 구성 ····· 147
<표Ⅳ-10> '설마'의 수업 구성 ····· 151
<표Ⅳ-11> '어쩌면'의 수업 구성 ····· 156

그림 차례

<그림 Ⅳ-1> 노인 ····· 152
<그림 Ⅳ-2> 책 ····· 15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해당 외국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창하게 소통하고자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태도나 감정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어에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어휘 요소로 '양태부사'[1]를 들 수 있다.

(1) 가.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가'. **혹시**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나.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 **설마**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다.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 **어쩌면**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위의 예문 (1가', 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양태부사가 있는 경우는 예문(1가, 나, 다)와 같이 양태부사가 없는 경우보다 화자의 추측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처럼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양태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의 태도나 상황에 맞는 양태부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태부사의 의미론적 하위분류 중 추측을 나타나는 양태부사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추

1) 양태부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서법부사', '화식부사', '양상부사' 등 여러 용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08)을 따라 '양태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를 '추측 양태부사'로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내 사용 빈

측 양태부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는 공통적으로 '추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미세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한국어 교재에서 양태부사는 그 뜻만 간단히 제시되고 있어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중국어 어휘를 대응시켜 학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미세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를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기 쉽다.

둘째,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는 문장 내 다른 성분과 다양한 호응 양상[3]을 보이는데, 한국어 교재 내에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호응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성분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는 상황 의존도가 높은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수·학습에 있어 주로 문장 단위에서만 제시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 추측 양태부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유사한 추측 양태부사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을 할 때 학습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부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추측 양태부사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부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한다.

도는 Ⅱ장에서 제시된다.

3) 고영근·구본관(2008:133)에 따르면 양태부사는 그 의미적 특성 때문에 특정 어미나 문장 형식과 호응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국어학에서의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어학에서의 선행 연구

국어학계에서는 양태부사의 의미·통사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현배(1937)는 현대국어 양태부사에 대해 최초로 분류하였는데 그의 논의는 의미에 따른 분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양태부사에 대한 분류 중에서 추측 양태부사는 '풀이말에 추측의 말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아마'를 포함하고 있다. '설마'는 '풀이말에 의심스러운 말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설마'가 '疑惑, 質問, 反語'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민수(1971)는 양태부사를 단일 용어가 아니라, 두 용어를 같이 복합시켜 8가지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태부사 목록에 포함되는 부사의 수가 적고 양태부사가 아닌 양태부사어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는 화자의 개연성을 표현하는 추측의 뜻으로 보았고 통사적으로 '-(으)ㄹ 것이다'와 공기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설마'는 화자의 반어의 확신성을 표현하는 부정반어의 뜻으로 보았고 통사적으로 부정 반문 표현과 공기한다는 점을 밝혔다.

김경훈(1996)은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의미가 있다. 양태부사어를 양태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추측 양태부사에는 '아마, 아마도, 행여나, 혹시, 혹시나, 혹야, 혹자, 어쩌면'의 8개를 포함시켰다. 추측 양태부사어는 공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쓰이는 부사들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마'는 명제에 대해 화자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해야 할 경우에 추측을 나타낸다. 그리고 명제 내용이 일어날 개연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마'보다 '아무래도'가 서술되는 내용의 개연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혹시'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나고 개연성에 대한 의혹을 갖는다. 그리고 그는 추측 양태부사어의 호응양상을 제시하였는데, '아마'는 선어말어미 '-겠-'이나 '-(으)ㄹ 것이다' 등의

구성, 또는 둘 다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각 추측 양태부사는 어미나 구성에 대해 선호의 차이가 보인다고 하였다. ‘어쩌면’, ‘혹시’는 ‘-(으)ㄹ지 모르다’와 호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무래도’는 ‘-(으)ㄹ 것 같다’와 호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왕문용·민현식(1993)은 양태부사의 의미를 양태서법과 관련지어 사실법, 가정법, 의지법 3가지로 분류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아마(도), 혹시, 어쩌면, 아무래도’는 모두 가정법 양태부사의 하위분류인 ‘추측·회의’로 분류하였으며 ‘설마’는 의지법 양태부사의 하위분류인 ‘의문강조’로 분류하였다.

민현식(1999)에서는 왕문용·민현식(1993)에서의 분류를 재조정하고 ‘아마, 혹시, 어쩌면, 아무래도’를 서상법 양태의 명제나 사태에 대해 불확실하게 추측적으로 표현하는 추측 양태부사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아마’는 사태에 대한 ‘단순 추측’, ‘어쩌면’은 ‘선택적 추측’, ‘아무래도’는 ‘양보적 추측’으로 설명하였다. ‘설마’는 서상법 양태의 가정적 상황을 유도하는 가정 양태부사로 규정하여 후행 명제 표현의 상황이 불가능할 것을 가정적으로 예상하면서 강한 부정을 확신하는 반어 의문문의 양태로써 ‘반어적 가정’을 핵의미로 제시하였다.

손남익(1999)에서는 문장부사에 속한 양태부사가 통사론적으로는 문두에 위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태부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9가지로 나누었다. ‘아마’의 경우, 복문에서는 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가정의 조건절을 이끄는 것이 그 주된 가능이며, 이때 가정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단문에서는 추정의 의미를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설마’는 ‘의혹’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단문을 형성할 수 있으며,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의심스러움, 의혹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단언을 하는 문장에서는 의혹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제시하였다. ‘혹시’는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장에 문두에 나와 추정의 의미를 강화시켜 주고, 추정의 의미의 ‘-겠-’과 호응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정하는 문장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정수(2005)에서는 부사를 자유부사와 제약부사로 분류하였으며 양태부사를 자유부사의 하위분류에 넣었다. 연구 대상인 ‘아마(도), 혹시’를 개연성이나 가상성을 표현하는 가정성 부사류어로 분류하였다.

신서인(2014)은 한국어 문장부사를 담화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새롭게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부사가 관여하는 층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발화

행위부사, 영역부사, 명제부사로 세분되고, 발화행위부사는 다시 발화행위 중심 부사와 화·청자 중심 부사로, 명제부사는 양태부사와 평가부사로 세분된다. 양태부사는 추측의 정도 혹은 증거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깊은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이주행(1992, 2000), 김성기(1980), 서은아(1991)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양태부사를 핵심 연구 대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 전체를 대상으로서 논의된 것이어서 체계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 양태부사 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명희(2016)는 현대문어 말뭉치 자료를 사회면 기사, 소설, 사설 칼럼으로 장르를 나누어 계량분석으로 통해 양태부사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추측 양태부사는 '어쩐지, 아무래도, 어쩌면, 아마, 필시, 필경, 틀림없이, 혹시, 행여, 행여나, 설마'를 11개로 선정하였는데 추측 양태부사가 소설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사회면 기사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을 밝혔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아마'는 일정한 근거가 있는 '개연적인 추측'을 나타내고, '혹시'는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태도를 '가정적인 추측'을 하면서 나타내고, '아무래도'는 여러모로 고려하고 생각한 후 내리는 '단정적인 추측'을, '설마'는 의문법과 어울리면 반어적으로, 평서법의 부정 표현이 쓰인 문장과 어울리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고, '어쩌면'은 '불확실한 짐작적인 추측'과 '불확실한 단정적인 추측'을 나타낸다. 하지만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 양상은 구문, 표현, 문장의 유형을 섞어서 제시하여 분류의 혼란을 보였다.

차현실(1986)은 인식양상부사 '아마, 글쎄, 혹시'를 대상으로 통사적 특징을 밝히고 공유 의미와 각각의 통사적 차이로 인한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마, 글쎄, 혹시'는 발화내용의 확실성의 정도를 한정하는 문장부사의 기능과 화자의 발화내용에 대한 [-단정]의 인식 양상의 의미를 공유하는 점을 밝혔다. '아마'는 '-(으)ㄹ 것이다'와 공기하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태에 근거하여 미지의 사태에 대한 개연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적극적 추정]의 의미를 갖는 반면에, '혹시'는 의문문과 공기하는 통사적 특성을 가지며 가능사태의 선언적 지시 기능에서 출발하여 선택의문문의 약정함의에서 오는 함축적 의미를 받게 되므로 그 의미는 [소극적 추정]의 의미임을 밝혔다.

장영희(1994)에서는 양태부사를 의미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과 호응하는 문

장 유형 양상을 밝혔다. 이는 국어학 연구 중에서 양태부사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 추측성 부사는 '아마, 혹시, 행여, 아무래도, 어쩌면, 설마'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며 부수적으로 '가정성'이 수반된다. 그리고 '부정', '기대', '우려', '확실' 4가지 의미자질로 추측성 부사는 변별된다. 또한 의미에 따라 통사적 호응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아무래도, 아마, 어쩌면'은 추정을 나타내는 평서법 어미와 호응하고 의문법과는 원칙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나 확인 의문법 어미와는 호응이 가능하며, '혹시', '행여'는 의문법 어미와 호응하며, '설마'는 의문법 어미와 호응하는데 추측의 형태소 '-겠-'이나 '-리-'가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백지숙(2002)에서는 의문형 어미와 호응하여 의문법으로 쓰인 양태부사 15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의문성, 추측성, 강조성, 비난성으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인 '설마'와 '혹시'의 의문형 어미와의 호응, 한정사와의 결합, 문장에서의 위치, 단문, 복문에서의 쓰임과 다른 의문형 서법 부사와의 호응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박정은(2010)에서는 40여 개의 기초 양태 부사를 중심으로 형태·통사적 특성을 밝히고 의미적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의미 자질과 통사적 호응관계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형태·통사적, 의미 자질의 분류의 체계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누문연(2013)에서는 '추측(推測)'이라는 양태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양태부사 '아마, 혹사, 어쩌면'과 중국어의 어기부사(語氣副詞) '大概(대개)', '大约(대약)', '或许(혹허)', '兴许(흥허)', '恐怕(공파)'를 대조하여 그들의 의미적 대응관계를 살펴보고 통사적으로 문장 위치, 문장 종류, 양태소와의 호응 등의 측면에서 대조하였다. 이는 한·중 추측 양태부사 대조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가위경(2014)에서는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양태부사 '사실, 분명히, 아마, 어쩌면, 혹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양태부사가 중국어로 번역될 때 주로 어떤 표현으로 대치되는가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왕주위(2014)에서는 한국어 양태부사 '결코, 과연, 만약, 물론, 아마'와 그들과 대응하는 중국어 어기부사 '絕對(不), 果然, 萬一, 當然, 可能'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을 사용할 때 대응

되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조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히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양태부사에 관한 국어학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어 양태부사와 중국어 어기부사의 대조연구도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한국어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양태부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소아(2010)에서는 한국어 양태부사와 중국어 양태부사를 대조 분석하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류 양상을 조사하여 오류 원인을 분석한 후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태부사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별 양태부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추측 양태부사로는 '아마, 어쩌면, 혹시'를 선정하였고 이들의 의미를 비교하였다. 또한 통사적 호응관계와 문장 종류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러나 '아마, 어쩌면'과 '혹시'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아마'와 '어쩌면'의 의미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통사적 비교에서 제시된 '아마, 어쩌면, 혹시'의 호응관계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르순(2014)에서는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태부사 사용 양상 및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밝히며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양태부사 교육 방법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터키어와 한국어는 형태론적으로 보았을 때 교착어이며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는 고립어이다. 이처럼 터키어와 중국어의 언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터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효설(2012)은 왕문용·민현식(1993)에서 제시된 양태부사 목록을 참조하여 말뭉치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18개의 양태부사를 선정하였는데, 그중에서 추측 양태부사는 '아마(도), 어쩌면, 아무래도, 혹시'가 있다. 양태부사의 의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말뭉치에서 나타난 통사적 특성을 검토한 후 학습 단계별로 나눈 점이 의미가 있지만 교수법 모색에 그쳤고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정영교(2012)에서 한국어 양태부사 유의어 여덟 쌍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추

측 양태부사로는 ‘아마, 어쩌면, 혹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의미에서 추측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아마>어쩌면>혹시’의 순서로 각각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교육 방법으로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방법과 제2언어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교육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적 차이를 개연성의 정도 차이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박연이(2016)에서는 유의 관계 양태부사 ‘꼭’, ‘당연히’ 와 ‘아마’, ‘혹시’의 두 쌍을 선정하여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태부사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지 못한 점과 학습자 오류를 조사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리해영(2011)에서는 중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내 ‘혹시’의 설명 양상, 중국어와의 대응 관계, ‘혹시’의 공기 관계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살펴보았다.

김지혜(2010)에서는 ‘아마’와 ‘혹시’의 의미 정보와 공기 정보를 고찰하여, ‘아마’와 ‘혹시’는 ‘추측(推測)’이라는 공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는 개연성이 높은 ‘추측’이며, ‘혹시’는 막연한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혹시’는 ‘추측’의 의미 이외에 ‘가능성’, ‘의심’, ‘가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교재 개발이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사전 편찬, 교사가 어휘 교육 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혜정(2015)에서는 한국어 추측성 양태부사 중에서 ‘아마’와 ‘혹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의미적·통사적 정보를 살펴본 뒤에 이와 상응하는 중국어 어기부사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인 제언을 제안하였다.

이나(2015)는 가정·추측에 관련된 양태부사 ‘가령, 설령, 아마, 혹시, 아무래도’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와 분류를 밝히고 통사적 특징, 호응관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각 어휘와 중국어의 대응 양상을 제시하였다. 양태부사를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각 어휘별로 자세한 교육 방안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조승은(2012)에서는 추측의 양태부사 ‘아마, 어쩌면, 혹시, 아무래도, 설마’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혹시’에 대해 ‘아마’와 비교하여 수업 모형

을 제시하였는데,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양태부사의 의미 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통사적 호응 양상에 대한 분류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어쩌면'과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호응한다는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어쩌면'이 '-(으)ㄹ지도 모르다'와 호응할 때는 추측을 나타내지만 '-(으)ㄴ/는지 모르다'와 호응할 때는 단순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라서 이때는 '어쩌면'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필요하다.

추측 양태부사가 아닌 다른 개별 양태부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박승희(2003), 강현화(2000), 이진(2005), 야하타 사나에(2012) 등이 있다.

현재까지의 한국어교육 내 양태부사 관련 연구는 크게 첫째, 한국어 양태부사 전반을 살피는 연구, 둘째, 유의어 관점에서 양태부사의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양태부사의 하위분류인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마'와 '혹시' 이 두 어휘만 중점적으로 다뤘을 뿐 추측 양태부사의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그리고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에만 집중할 뿐, 화용적 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및 오류를 관찰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오류 양상과 그 원인을 밝힌 후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 양태부사들의 미세한 의미·화용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통사적 호응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측 양태부사들의 의미·화용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재의 교육 내용을 점검하여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비교한 후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양태부사의 개념으로부터 그 하위

영역인 추측 양태부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추측 양태부사 목록을 선정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나온 모든 추측과 관련되는 양태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선정한 목록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빈도수가 낮은 추측 양태부사를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빈도수가 낮은 추측 양태부사는 현대 국어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1세기 세종 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의 통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추측 양태부사와 결합하는 서술어 양상, 문장 유형 등의 통사적 호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사전적인 정의와 선행 연구를 통해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우리말 부사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각 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정리하고 비교할 것이다. 또한 사전에 제시된 예문과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구체화한다. 그 후에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의 제시 여부, 제시 순서, 제시 방법을 분석한 후에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Ⅲ장에서는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와 재중 중국인 학습자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다. Ⅱ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 조사 참여자 집단을 선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설문 조사를 한 뒤에,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다. 수집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재한 중국인 학습자, 재중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통사적 층위와 의미·화용적 층위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학습 내용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모형을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미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상기한 내용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Ⅰ-1>과 같다.

<표Ⅰ-1>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table>
<tr><th></th><th>연구 목적</th><th colspan="2">연구 대상 및 자료</th><th>연구 방법</th></tr>
<tr><td rowspan="3">Ⅱ
장</td><td>추측 양태부사의
개념 및 선정</td><td colspan="2">·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부사 선행연구
· <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td><td rowspan="2">· 문헌 연구

· 말뭉치 분석</td></tr>
<tr><td>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td><td colspan="2"><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td></tr>
<tr><td>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td><td colspan="2">· 『표준국어대사전』/『연세 한국어 사전』/『우리말 부사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
· <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td><td rowspan="2">· 말뭉치 분석</td></tr>
<tr><td>교재 분석</td><td colspan="2">『韓國語教程』/『標準韓國語』/『新標準韓國語』『서울대학교 한국어』/『연세대학교 한국어』</td><td>문헌 연구</td></tr>
<tr><td rowspan="3">Ⅲ
장</td><td rowspan="3">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td><td>연구자료</td><td>연구 참여자</td><td rowspan="3">· 양적 연구

· 질적 연구</td></tr>
<tr><td>설문지 결과</td><td>· 한국인 모어 화자: 60명
· 재한 중국인 학습자: 49명
· 재중 중국인 학습자: 48명</td></tr>
<tr><td>인터뷰 내용</td><td>· 재한 중국인 학습자: 10명
· 재중 중국인 학습자: 10명</td></tr>
<tr><td rowspan="2">Ⅳ
장</td><td>교육 내용 선정</td><td colspan="3" rowspan="2">Ⅱ장,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 분석 결과 활용</td></tr>
<tr><td>교수·학습
방안 마련</td></tr>
</table>

Ⅱ.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본 장에서는 추측 양태부사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부사의 용어와 개념을 살펴보고, 양태부사의 하위분류에 속한 추측 양태부사 목록을 선정한다. 선정된 추측 양태부사를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시한다.

1. 추측 양태부사의 개념 및 선정

1.1. 추측 양태부사의 용어와 개념

추측 양태부사 논하기에 앞서 그 상위 개념인 양태부사의 용어와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양태부사를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품사의 한 부류로 양태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현배(1937, 1989), 서은아(1991)에서 ‘말어찌씨’(말법어찌씨)로 지칭하며, 김민수(1971)에서 ‘양태부용어’로 칭하고, 황병순(1984), 차현실(1986)에서 ‘양상부사’, 이주행(1992, 2000), 손남익(1995)에서 ‘서법부사’라고 하였다. 왕문용·민현식(1993),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양태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부사의 한 부류로 양태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백선자(1983)에서 ‘말재어찌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장영희(1994)에서 ‘화식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김경훈(1996)에서 ‘양태부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서정수(2005)에서 ‘양태 자유 부사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논의들을 근거로 하여 널리 쓰이는 ‘양태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연구들에 나타난 양태부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최현배(1937)에서 양태부사를 ‘말하는 이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로 정의하였으며, 김민수(1971)에서 양태부사를 화자의 태도를 나타나는 부사로 정의하였다. 왕문용·민현식(1993)에서 양태부사를 서술용언에 대해 화자

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가의적으로 표현하는 부사라고 정의하였다. 장영희(1994)에서 양태부사를 '주로 문두에 위치하여 문장의 命題(proposition)에 대한 '話者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문장 수식부사로서 서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서정수(2005)에서 양태부사를 대체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양태부사를 문장부사의 하위분류로 간주하여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학자마다 양태부사에 대한 개념 정의에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양태부사를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국어학 연구를 참조하여 왕문용·민현식(1993:190)[4]의 정의를 바탕으로 양태부사를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로 정의하고자 한다.

양태부사는 통사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하위 분류는 통사론적인 특성보다는 의미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손남익,1995). 그동안 한국어 양태부사의 분류는 주로 의미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현배(1937)에서 양태부사를 크게 단정을 소용하는 어찌씨, 의혹(疑惑)이나 가설(假設)을 소용하는 어찌씨, 바람을 보이는 어찌씨로 부류하였다.[5] 김민수(1971)에서 양태부사를 역설·확인, 단연·부정, 당연·당위, 이유·의문, 가설·반문, 개연·추측, 당부·명령, 소감·표명 8가지로 분류하였다. 장영희(1994)에서 양태부사를 서법적 의미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확인성, 당위성, 조건성, 추측성, 유사성, 소원성, 의문성, 유보성 결론, 강조성 부사의 9가지로 하위 분류하였다. 왕

---

4) 왕문용·민현식(1993:190)에서 양태부사를 '서술용언에 대해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가의적으로 표현하는 부사'라고 정의하였으며 '화식부사(話式副詞)', '서법부사'라고도 하였다.

5) 최현배(1937)에서 양태부사의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ㄱ. 단정을 소용하는 어찌씨:
①세게 하는 것(強調的, 力說的副詞) ②틀림없다는 것(斷定的 또는 必然的副詞) ③비기는 것(比較的副詞) ④지우는 것(否定副詞)
ㄴ. 의혹(疑惑)이나 가설(假設)을 소용하는 어찌씨:
①풀이말에 의심스러운 말(疑惑, 質問, 反語等)을 요구하는 것 ②풀이말에 추측의 말을 요구하는 것 ③풀이말에 가설적 조건을 보이는 것
ㄷ. 바람을 보이는 어찌씨:
①시킴꼴(命令性), ②매는꼴(假定的拘束形)

문용·민현식(1993)에서 양태부사를 크게 사실법, 가정법, 의지법으로 나누었다.[6] 손남익(1995:25)에서 양태부사를 의미를 중심으로 가정, 강조, 부연, 의혹, 이유, 전환, 추정, 확신, 부정 9가지로 나누었다. 양태부사의 분류는 이 밖에도 민현식(1999), 서정수(2005)등이 있다. 민현식(1999)에서 왕문용·민현식(1993)에서의 분류를 재조정하고 고영근(1985,1989) 등을 참조하여 양태범주 용어와 관련지어 양태부사의 범주를 크게 서실법 양태부사, 서상법 양태부사, 서의법 양태부사로 분류하고 하위 분류로 당위, 필연, 확신, 확인, 의문, 부정, 추측, 가정, 양보, 평가, 간구, 명령 12가지를 설정하였다. 서법의 양태범주 용어와 양태부사의 의미를 관련지어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정수(2005)에서 양태부사를 의미적 범주에 따라 확실성, 개략성, 일반성, 예외성, 의외성, 가상성, 당연성, 당위성 8가지로 나누어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태부사의 주요 분류 중에서 추측 양태부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 <표Ⅱ-1>과 같다.

<표Ⅱ-1> 추측 양태부사와 관련된 분류 양상

연구자	분류	양태부사
최현배(1937)	풀이말에 추측의 말을 요구하는 것	아마/글쎄
김민수(1971)	개연·추측	아마/정녕/글쎄
민현식(1999)	서상법: 추측	아마(도)/어쩌면/혹시(나)/혹/짐작컨대/추측컨대/아무래도/행여(나)/필시, 필경
손남익(1995)	추정	무릇/보아하니/보아한들/봐하니/어쩌면/이를터이면/이를테면/하마터면/혹/혹시/혹시나/혹자
장영희(1994)	추측성 부사	아마/혹시/행여/아무래도/어쩌면/설마

이상에서 제시된 양태부사의 분류에서 추측 양태부사를 주로 ‘추측’이라는 용어로 분류하였으며 이외에 ‘추정’, ‘가정’, ‘개연’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를 ‘추측 양태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추측 양태부사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여 불확실한 판단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

6) 왕문용·민현식(1993)에서 양태부사의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사실법 양태부사: ①인식(확인) ②원칙(당위)
가정법 양태부사: ①추측, 회의 ②조건 ③선택
의지법 양태부사: ①청원(간청) ②평가 ③강조

고 있다. 즉 추측 양태부사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1.2. 추측 양태부사의 선정

양태부사의 목록과 분류 방법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전체 양태부사 중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현대 국어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양태부사를 다음 <표Ⅱ-2>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한다.

<표Ⅱ-2> 한국어 양태부사의 선정 과정

선정 과정	선정 방법	수량	비고
1차	최현배(1937), 김민수(1971), 민현식(1999), 장영희(1994), 손남익(1995)의 양태부사 목록을 종합함	139개	부사가 아닌 것이 제외됨
2차	최소 두 명의 연구자가 양태부사로 인정해야 함	55개	'아무튼'이 제외됨
3차	2차 목록을 바탕으로 한 말뭉치 빈도 조사 결과, 10만 어절당 빈도수가 1 이상이어야 함	26개	· '아마도'를 '아마'의 빈도수에 포함함 · '혹시나'를 '혹시'의 빈도수에 포함함

본 연구에서는 우선 최현배(1937), 김민수(1971), 민현식(1999), 장영희(1994), 손남익(1995)의 양태부사 목록을 종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품사로서의 부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중 '아닌 게 아니라', '말하자면' 등과 같이 부사가 아닌 것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총 139개의 양태부사를 포함하는 1차 목록을 마련하였다. 1차 목록에서 추측 양태부사는 '아마(도), 어쩌면, 혹시(나), 혹, 혹자, 설마, 아무래도, 행여(나), 필시, 필경, 글쎄, 정녕, 무릇, 보아하니, 보아한들, 봐하니, 이를터이면, 이를테면, 하마터면' 등 19개가 있다.

선정된 1차 목록을 바탕으로 최소 두 명의 연구자가 양태부사로 인정한 것을 양태부사 목록에 포함하며, 55개의 양태부사를 포함하는 2차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 중 '아무튼'은 임유종(2005:125)에서 접속부사로 간주되었으며 이들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행문과 후행문의 연결에 있어서 접속성의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접속부사로 다루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무튼'을 양태부사 목록에 제외하였다. 2

차 목록에서 추측 양태부사는 '아마(도), 어쩌면, 혹시(나), 설마, 아무래도, 행여(나)' 등 6개가 있다.

이후 2차 목록을 바탕으로 <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빈도수를 확인하여 3차 목록을 선정하였다.[7] 양태부사의 빈도수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의 어절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빈도, 즉 10만 어절당 양태부사 빈도수를 사용하였다. 빈도수가 낮은 양태부사는 현대 국어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으므로 교육용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상대빈도수 1 이상인 26개의 양태부사를 다음 <표Ⅱ-3>과 같이 정리하였다.[8]

<표Ⅱ-3>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양태부사의 빈도

빈도 순위	양태부사	현대구어 말뭉치	상대빈도	빈도 순위	양태부사	현대문어 말뭉치	상대빈도
1	왜	1753	217.60	1	왜	6296	68.92
2	정말	1079	133.94	2	물론	5329	58.34
3	**아마(도)[9]**	**379**	**47.05**	3	정말	3339	36.55
4	꼭	356	44.19	4	전혀	2729	29.88
5	물론	352	43.69	5	꼭	2703	29.59
6	만약	332	41.21	6	아무리	2369	25.93
7	전혀	220	27.31	7	**아마(도)**	**2297**	**25.15**
8	**혹시(나)[10]**	**178**	**22.10**	8	결코	1873	20.50
9	아무리	131	16.26	9	어찌	1839	20.13
10	분명히	101	12.54	10	반드시	1767	19.34
11	**아무래도**	**91**	**11.30**	11	과연	1601	17.53
12	과연	87	10.80	12	비록	1288	14.10
13	확실히	83	10.30	13	**어쩌면**	**1192**	**13.05**
14	도대체	76	9.43	14	분명히	1147	12.56
15	반드시	55	6.83	15	도대체	1134	12.41
16	가령	45	5.59	16	**혹시(나)**	**876**	**9.59**

7)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이용 안내에 따르면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는 본문의 언어구조화 방식에 따라 원시, 형태, 형태의미, 구문분석 말뭉치로 구성된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는 문장과 어절, 형태소, 품사의 조합으로 구성된 말뭉치 형태 구조이다. 따라서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통해 형태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형태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 추측 양태부사의 빈도수를 제외한다. 현대구어 말무치는 원시 말뭉치와 형태분석 말뭉치로 구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를 자료로 사용한다.

8) 2015년 11월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누터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어절 수는 9,134,677이고 현대구어 형태말뭉치 어절 수는 805,606이다.

17	절대로	42	5.21	17	**아무래도**	**736**	**8.06**
18	도저히	39	4.84	18	절대로	638	6.98
19	제발	30	3.72	19	가령	616	6.74
20	**설마**	**28**	**3.48**	20	도저히	587	6.43
21	**어쩌면**	**22**	**2.73**	21	확실히	500	5.47
22	어찌	21	2.61	22	제발	453	4.96
23	비록	17	2.11	23	만약	294	3.22
24	결코	14	1.74	24	**설마**	**236**	**2.58**
25	만일	12	1.49	25	만일	170	1.86
26	통	12	1.49	26	통	113	1.24
합계		5576	692.15	합계		42433	464.53

위 <표Ⅱ-3>에 의하면 전체 26개의 양태부사 중에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 5개로 보다 많은 개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마(도)'가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3위를 차지하고,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혹시(나)'가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체 양태부사 중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선정 과정에 따라 추측 양태부사의 1차, 2차, 3차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4>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목록 선정

선정 과정				추측 양태부사	현대구어 말뭉치	상대빈도	현대문어 말뭉치	상대빈도
1차 목록	2차 목록	**3차 목록**	1	**아마(도)**	**379**	**47.05**	**2297**	**25.15**
			2	**혹시(나)**	**178**	**22.10**	**876**	**9.59**
			3	**아무래도**	**91**	**11.30**	**736**	**8.06**
			4	**설마**	**28**	**3.48**	**236**	**2.58**
			5	**어쩌면**	**22**	**2.73**	**1192**	**13.05**
			6	행여(나)	0	0	139	17.25
			7	혹	1	0.01	210	26.07
			8	혹자	0	0	0	0
			9	필시	0	0	91	11.30
			10	필경	0	0	64	7.94
			11	글쎄	4	0.04	0	0
			12	정녕	0	0	73	9.06
			13	무릇	0	0	65	8.07

9) '아마도'가 현대구어 말뭉치에서의 빈도수는 17회이고 현대문어 말뭉치에서의 빈도수는 790회이다.

10) '혹시나'가 현대구어 말뭉치에서의 빈도수는 8회이고 현대문어 말뭉치에서의 빈도수는 104회이다.

		14	보아하니	0	0	0	0
		15	보아한들	0	0	0	0
		16	봐하니	0	0	0	0
		17	이를터이면	0	0	0	0
		18	이를테면	5	0.05	264	33.77
		19	하마터면	0	0	117	15.52

위 표에 의하면 추측 양태부사 중에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이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와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다른 추측 양태부사보다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추측 양태부사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설마'는『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마'를 추측 양태부사로 다룬다.

2.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

2.1.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

최현배(1937)에서 양태부사는 '그 풀이말(說明語)의 베풂(陳述)의 방법을 꾸미어서, 그 풀이말의 나타남에 일정한 재(式, 方式, 樣式)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양태부사가 통사적으로 일정한 구조를 요구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민수(1971)에서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에 걸리며, 문장의 서술어와 밀접하게 어울려 굳게 맺어지고 술어에 일정한 서법을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추측 양태부사는 공통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추측 표현[11]과 호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호응 양상이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자료로 하여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서술어 양상과 문형을 살펴보고자 한다[12].

11) 추측을 문법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겠-'과 같은 어미를 사용하거나 '-(으)ㄹ 것 같다'와 같은 의존명사나 보조용언 등과 결합하여 통사적 구성에 의해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추측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추측을 나타내지 않은 표현은 '비추측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1.1.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

추측 양태부사는 통사적으로 다양한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서술어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1). '아마(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아마'는 총 1519회의 용례가 추출되었다. '아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Ⅱ-5> '아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13]	빈도	비율	예문[14]
-(으)ㄹ 것이다	733회	48.3%	아마 꽤 오래 갈 거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96회	6.3%	아마 맥주를 마시는 모양입니다.
-(으)ㄹ지(도) 모르다	95회	6.3%	아마 울고 있을지도 몰랐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90회	5.9%	아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으)ㄹ리라	75회	4.9%	아마 서울은 더 아름다우리라.
-겠-	67회	4.4%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으)ㄴ가'류	46회	3.0%	아마 개띠라서 그런가 보다.
-나 보다	40회	2.6%	아마 친구 분이 방에 있나 봐요.
단독 사용	34회	2.2%	갑: 그 선생님 독신이래지. 을: 아마?
'-(으)ㄹ까'류	32회	2.1%	아마 집을 비워줘야 할까 봐요.
-(으)ㄹ걸(요)	30회	2.0%	아마 셀 수도 없을걸.
-(으)ㄴ/는/(으)ㄹ 듯하다	26회	1.7%	아마 남편을 기다리는 듯했다.
'-(으)ㄹ 터이다'류	23회	1.5%	아마 그 사람도 반가워했을 텐데
-지(요)?	16회	1.1%	그때 아마 모르시겠죠?
-(으)ㄹ까?	13회	0.9%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다'류	11회	0.7%	하지만 윤형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이었던 듯싶습니다.
기타[15]	92회	6.1%	-
합계	1,519회	100%	-

12) <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는 추측 양태부사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으로 발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13)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들은 실제 사용 시 여러 이형태가 존재하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형 한 가지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에 제시된 '-(으)ㄴ가'류, '-(으)ㄹ까'류, '-싶다'류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의 대표형이다.
'-(으)ㄴ가'류: -(으)ㄴ가 하다, -(으)ㄴ가 보다, -(으)ㄴ가 싶다 등

<표Ⅱ-5>에 나타난 '아마'와 호응하는 표현의 총 빈도를 고려하면 '아마'가 대체로 추측 표현과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아마'와 호응 빈도가 가장 높은 추측 표현은 '-(으)ㄹ 것이다'이고 그의 비율이 48.3%로 거의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으)ㄹ 것이다'는 화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추측하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가 보다 높다.[16] 그중에 '-(으)ㄹ 것이라고 추측하다/짐작하다' 등과 같은 표현도 호응 양상을 보이는데 35회로 나타난다. 추측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으)ㄹ 것이다'와 '추측하다', '짐작하다' 등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함께 실현된 것이다.

둘째, 이외에도 '아마'는 빈도 순서대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리라', '-겠-' 등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아마'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할 때 쓰일 수 있다.

넷째, '아마'는 '-지(요)?', '-(으)ㄹ까?'와 같이 의문문에서 쓰이는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지(요)?'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물을 때 사용되며 추측을 나타낸다.[17] '-(으)ㄹ까?'는 의문문에서 쓰이며 추측을 나타낸다.

'아마도'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총 935회의 용례가 추출되었

'-(으)ㄹ까'류: -(으)ㄹ까 하다, -(으)ㄹ까 싶다, -(으)ㄹ까 보다, -(으)ㄹ까 생각하다, -(으)ㄹ까 걱정되다/의심하다 등
'-싶다'류: -지 싶다, -나 싶다, -(으)ㄴ 듯싶다, -(으)ㄹ 성싶다 등
'-(으)ㄹ 터이다'류: -(으)ㄹ 터이다, -(으)ㄹ 테고, -(으)ㄹ 테니, -(으)ㄹ 테지, -(으)ㄹ텐데

14) 본 절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의 표들의 예문은 모두 현대문어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추출하였다.

15) 추측 표현이 아니고 빈도가 10회 미만인 것은 기타에 포함하였다.

16) 유민애(2012:66)에서 추측 표현 확신의 정도는 '-(으)ㄹ 것이다', '-겠-', '-(으)는/(으)ㄹ 것 같다', '-(으)ㄹ걸', '-(으)ㄹ지(도) 모르다'의 순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17) '-지'는『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이에 의하여 '지'가 의문문에서 쓰이는 경우에 의문을 나타낸다.

다. ‘아마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Ⅱ-6> ‘아마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	빈도	비율	예문
-(으)ㄹ 것이다	396회	42.4%	아마도 무한해 계속될 것입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110회	11.8%	아마도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으)ㄹ지(도) 모르다	83회	8.9%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연구 대상일는지도 모르겠어요.
-(으)ㄹ리라	53회	5.7%	아마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리라.
‘-(으)ㄹ까’류	35회	3.7%	이 책의 장점은 아마도 친절하다는 것이 아닐까.
‘-(으)ㄴ가’류	34회	3.6%	아마도 봄, 봄인가 봅니다.
-겠-	31회	3.3%	아마도 솔직하지 못한 것이겠지.
-(으)ㄴ/는/(으)ㄹ 듯하다	29회	3.1%	메모는 아마도 습관인 듯했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21회	2.2%	그 여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 보다	18회	1.9%	얘는 아마도 부산에 왔나 봐.
-(으)ㄹ 수(도) 있다/없다	16회	1.7%	아마도 늦을 수도 있어요.
‘-(으)ㄹ 터이다’류	10회	1.1%	진실은 아마도 그 기록의 절벽 너머에 숨어 있을 터였다.
기타 추측 표현[18]	9회	1.0%	-
기타	90회	9.6%	-
합계	935회	100%	-

위 <표Ⅱ-6>에 따르면 ‘아마도’는 ‘아마’와 서술어 호응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주로 추측 표현과 호응한다. ‘아마도’와 호응 빈도가 가장 높은 표현은 ‘-(으)ㄹ 것이다’이고 ‘아마’와 같이 ‘-(으)ㄹ 것이라고 추측하다, 짐작하다’와 같은 문법적, 어휘적 모두 추측이 나타나는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도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지(도) 모르다’, ‘-(으)ㄹ리라’, ‘-(으)ㄹ까’, ‘-(으)ㄴ가’류, ‘-겠-’ 등과 같은 추측 표현과 호응한다. 하지만 ‘아마’와 달리 추측 표현이 아닌 가능성을 나타내는 ‘-(으)ㄹ 수(도) 있다’와 호응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2). ‘혹시’와 ‘혹시나’의 서술어 호응 양상

‘혹시’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총 891회의 용례가 추출되었는

[18] 빈도가 10회 미만인 추측 표현은 기타 추측 표현에 포함하였다.

데 그중에 '가정'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188회, '추측'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총 703회이다. '혹시'가 '추측'의 의미로 쓰인 용례를 분석하여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 <표Ⅱ-7>과 같이 제시한다.[19]

<표Ⅱ-7> '혹시'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		빈도	비율	예문
'-(으)ㄹ까'류		176회	25.0%	그건 혹시 부러움이 아니었을까.
-(으)ㄹ지(도) 모르다		94회	13.4%	혹시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으)까(요)?		62회	8.8%	그게 혹시 교사휴양원 아닐까?
'-(으)ㄴ가'류		52회	7.4%	혹시 청각장애자가 아닌가 해서요.
-(으)ㄴ/는지-		50회	6.3%	혹시 교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나 하다		30회	4.3%	선잠에서 깨어난 경희가 혹시 아버지가 왔나, 가슴이 철커덕, 했다.
일반의문문[20]	-냐?	49회	7.0%	혹시 사모님이 잘못 안 거 아냐?
	-(으)ㄴ/는 가(요)?	24회	3.4%	혹시 서연씨도 기독교인이신가요?
	-ㅂ니까?	21회	3.0%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아/어(요)?	63회	8.9%	혹시 알아?
	-니?	19회	2.7%	혹시 가을 하늘을 본 적이 있니?
-나(요)?		13회	1.8%	혹시 거기서 나 못 봤나?
단독 사용		11회	1.6%	기준아, 너 말이다 혹시……
기타 추측 표현[21]		21회	3.8%	-
기타		18회	2.6%	-
합계		703회	100%	-

위 <표Ⅱ-7>을 통해 '혹시'의 서술어 호응 양상이 추측 표현과 의문문에서 쓰이는 표현 모두 두루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시'의 서술어 호응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혹시'와 가장 많이 호응하는 표현은 '-(으)ㄹ까'류이다. '-(으)ㄹ까'가 '하다, 보다, 싶다' 등의 동사와 결합할 때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므로 추측 양태부사 '혹시'와 호응할 수 있다.

둘째, '혹시'는 '-(으)ㄹ까'류 이외에 빈도 순서대로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가'류, '-나 하다' 등과 같은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혹시'가 '-(으)까(요)?', '-냐?', '-(으)ㄴ/는 가(요)?', '-니?', '-나?' 등

19) '혹시'가 조사 '라도'와 결합하여 '혹시라도'로 쓰이는 경우는 통사적 양상에서 '혹시'와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의 통사적 양상에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20) 일반의문문은 해라체, 하게체, 합쇼체, 해요체, 해체의 의문문형을 말한다.

21) 기타 추측 표현은 '-겠-' 9회, '하다' 6회, '모르다' 6회, '-싶다'류 6회가 포함된다.

의문문에서 쓰이는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은 '혹시'의 총 용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혹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발화에서 화자가 완전한 문장을 말하지 않고 추측 양태부사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추측을 나타날 수 있다.

'혹시나'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총 103회의 용례가 추출되었는데 그중에 '가정'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9회, '추측'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94회이다. '추측'의 의미로 쓰인 '혹시나'의 용례를 분석하여 '혹시나'의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 <표Ⅱ-8>과 같이 제시한다.

<표Ⅱ-8> '혹시나'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	빈도	비율	예문
'하다'	41회	43.6%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으)ㄹ까'류	34회	36.2%	혹시나 엄마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기타 추측 표현[22]	19회	20.2%	-
합계	94회	100%	-

'혹시나'의 서술어 호응 양상을 보면 '혹시나'와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혹시나'와 '하다'는 자주 호응하지만 '혹시'와 '하다'는 호응하지 않는 것을 '혹시나'와 '혹시'의 통사적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혹시나'와 '혹시' 모두가 '-(으)ㄹ까'류 등 추측 표현과 자주 호응한다.

(3). '아무래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

'아무래도'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총 770회의 용례가 추출되었다. '아마래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Ⅱ-9> '아무래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	빈도	비율	예문
-(으)ㄴ/는/(으)ㄹ 것 같다	148회	19.2%	아무래도 남자가 있는 것 같아.
형용사	148회	19.2%	노트북은 아무래도 좋아.
-(으)ㄹ 수 있다/없다	57회	7.4%	가족들은 아무래도 내 이미지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22) 기타 추측 표현에서 '-(으)ㄹ지(도) 모르다'가 6회 등이 포함된다.

-겠-	43회	5.6%	유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으)ㄴ/는 것이다	24회	3.1%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국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24회	3.1%	아무래도 아픈 모양이에요.
-라고/다고 생각하다	22회	2.9%	아무래도 여성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으)ㄴ/는/(으)ㄹ 듯하다	21회	2.7%	완료 '사'란 말은 아무래도 잘못 쓰여진 듯합니다.
-(으)ㄹ 것이다	20회	2.6%	아무래도 늦게 일어난 탓일 게다.
-나 보다	15회	1.9%	그게 아무래도 안 좋은가 보다.
'-싶다'류	14회	1.8%	아무래도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성싶다.
'-(으)ㄹ 터이다'류	10회	1.3%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그랬지.
기타 추측 표현[23]	21회	2.8%	-
기타	203회	26.4%	-
합계	770회	100%	-

위 <표Ⅱ-9>에 따르면 '아무래도'는 추측 표현, 비추측 표현 모두와 두루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무래도'의 서술어 호응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아무래도'가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전체의 19.2%를 차지한다.

둘째, '아무래도'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이외에 빈도 순서대로 '-겠-', '-(으)ㄴ/는/(으)ㄹ 듯하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ㄹ 것이다' 등과 같은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무래도'가 비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으)ㄴ/는 것이다'가 24회, '-라고/다고 생각하다'가 22회, 기타 203회로 나타난다.

넷째, '아무래도'가 형용사와 호응하는 양상이 19.2%를 차지하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주로 '좋다, 이상하다, 수상하다, 힘들다, 무리하다' 등과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생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된다.

다섯째, '아무래도'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 '-(으)ㄹ 수 있다/없다'와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으)ㄹ 수 있다/없다'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할 수 있다.

23) 기타 추측 표현은 '-(으)ㄴ가' 류 7회, '-(으)ㄹ까'류 6회 등을 포함한다.

(4). ‘설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설마’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총 150회의 용례가 추출되었다. ‘설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 <표Ⅱ-10>과 같이 제시한다.

<표Ⅱ-10> ‘설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	빈도	비율	예문
-겠-	64회	42.6%	설마 원래 발이 저렇게 큰 건 아니겠지?
하다	15회	10.0%	설마 하던 그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단독 사용	10회	6.7%	갑: 뭐?…… 정말이야, 미스 박? 을: 설마……
-(으)ㄹ리라	10회	6.7%	설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기타 추측 표현[24]	39회	26.0%	-
기타	12회	8.0%	-
합계	150회	100%	-

위 <표Ⅱ-10>에 따르면 ‘설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은 주로 추측 표현이나 의문문에서 쓰이는 표현과 호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마’의 서술어 호응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설마’가 추측 표현 ‘-겠-’과 호응하는 빈도가 가장 높으며 비율이 42.6%로 거의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겠-’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추측을 표현하는 어미이므로 추측 양태부사 ‘설마’와 호응할 때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

둘째, ‘설마’가 ‘하다’와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말뭉치에서 ‘설마’와 ‘하다’가 결합할 때 주로 ‘설마 하며’, ‘설마 하면서’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설마 하던 생각/ 회망’의 표현도 보인다.

셋째, ‘설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추측 양태부사 ‘설마’만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추측을 나타날 수 있다.

(5). ‘어쩌면’의 서술어 호응 양상

24) ‘설마’의 기타 추측 표현에서 ‘-(으)ㄹ 터이다’류 8회, ‘-(으)랴마’ 8회, ‘-(으)ㄹ까’류 5회 등을 포함한다.

‘어쩌면’은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총 1244회의 용례가 추출되었는데 그중에 ‘추측’이 아닌 의미로 쓰인 용례가 87개가 있다. 이를 제외하고 ‘추측’을 나타내는 용례가 총 1157회를 분석한 ‘어쩌면’의 서술어 호응 양상과 말뭉치 예문을 아래 <표Ⅱ-11>과 같이 제시한다.

<표Ⅱ-11> ‘어쩌면’의 서술어 호응 양상

서술어 호응 양상	빈도	비율	예문
-(으)ㄹ지도 모르다	693회	59.9%	어쩌면 그 이상일는지도 모른다.
-(으)ㄹ 수 있다/없다	74회	6.4%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으)ㄹ 것이다	72회	6.2%	어쩌면 그 말이 맞을 것이었다.
‘-(으)ㄹ까’류	70회	6.1%	어쩌면 전생이었을까.
-(으)ㄹ 것 같다	33회	2.9%	어쩌면 가장 긴 수명을 누릴 것 같다.
-라고/다고 생각하다	24회	2.1%	그녀는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으)ㄴ/는 것이다	19회	1.6%	어쩌면 나는 집 생각을 안 한 것이다.
‘-(으)ㄴ가’류	16회	1.4%	어쩌면 나 놀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겠-	12회	1.0%	어쩌면 악극 ‘아씨’를 보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이겠다.
기타 추측 표현[25]	37회	3.2%	-
기타	107회	9.2%	-
합계	1157회	100%	-

위 <표Ⅱ-11>에 따르면 ‘어쩌면’은 주로 추측 표현과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의 서술어 호응 양상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어쩌면’은 ‘-(으)ㄹ지도 모르다’와 가장 많이 호응하며 59.9%의 비율로 나타나 전체의 반을 넘는다. ‘-(으)ㄹ지도 모르다’는 화자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못해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둘째, ‘어쩌면’은 빈도 순서대로 ‘-(으)ㄹ지도 모르다’ 이외에도 ‘-(으)ㄹ 것이다’, ‘-(으)ㄹ까’류, ‘-(으)ㄹ 것 같다’, ‘-(으)ㄴ가’류, ‘-겠-’ 등의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어쩌면’의 통사적인 호응 양상으로 추측 표현이 아닌 ‘-(으)ㄹ 수 있다/없다’와 호응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으)ㄹ 수 있다/없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과 같이 쓰여도 비문이 아니다.

넷째, ‘어쩌면’이 ‘-라고/다고 생각하다’와 호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어쩌

25) 기타 추측 표현은 ‘-(으)리라’ 9회, ‘-(으)ㄴ/는/(으)ㄹ 듯하다’ 9회, ‘-(으)ㄹ터이다’류 7회, ‘-싶다’류 5회 등으로 나타났다.

면’과 ‘-라고/다고 생각하다’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에 주로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에 의하여 추측의 의미가 실현된다.

다섯째, ‘어쩌면’이 ‘-(으)ㄴ/는 것이다’와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으)ㄹ 것이다’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지만 ‘-(으)ㄴ/는 것이다’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말뭉치에서 ‘-(으)ㄴ/는 것이다’와 호응하는 양상은 그 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쩌면’이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2.1.2. 추측 양태부사의 문장 유형 호응 양상

구본관 외(2015)에서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종결어미 혹은 문말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26]. 이에 따라 추측 양태부사의 문장 유형 호응 양상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다.

<표Ⅱ-12> 추측 양태부사의 문장 유형 호응 양상

문형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합계
양태부사	빈도와 비율	빈도와 비율	빈도와 비율	빈도와 비율	빈도와 비율	
아마	1470회 96.8%	49회 3.2%	-	-	-	1519회 100.0%
아마도	928회 99.3%	7회 0.7%	-	-	-	935회 100.0%
혹시	446회 63.4%	257회 36.6%	-	-	-	703회 100.0%
혹시나	93회 98.9%	1회 1.1%	-	-	-	94회 100.0%
아무래도	760회 98.7%	9회 1.2%	-	-	1회 0.1%	770회 100.0%
설마	113회 75.3%	37회 24.7%				150회 100.0%
어쩌면	1148회 99.2%	9회 0.8%	-	-	-	1157회 100.0%

26) 본고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므로 문장의 부호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위 <표Ⅱ-12>를 통해 추측 양태부사가 대체로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호응하지 못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아무래도, 어쩌면'은 주로 평서문과 호응하며 '아마'는 가끔 의문문과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아무래도'와 '어쩌면'은 의문문과 호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혹시'와 '설마'는 평서문, 의문문과 두루 호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예문을 통해 추측 양태부사별로 문장 유형과 호응하는 양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까? (닫힌 교문을 열며)
나. 그때 아우님은 **아마** 학생신분이셨죠? (발로자를 위하여)
다. **아마** 그쪽도 덮어두고 싶어 할걸? (보이지 않는 나라)
라. 갑: 그 선생님 독신이래지.
을: **아마**? (멋진 한세상)
마. **아마도** 가정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찢어라)
바.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마도** 당신과 결혼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걸요? (주간경향)

'아마'가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96.8%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3.2%이다. 따라서 '아마'는 평서문과 가장 많이 호응하며 의문문과 가끔 호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가 평서문과 호응할 때 주로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리라', '-겠-' 등과 같은 추측 표현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의문문과 호응하는 양상은 예문 (2가~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로 '-(으)ㄹ까?', '-지요?', '-(으)ㄹ걸?' 등의 표현과 결합할 때 가능하며 예문(라)와 같이 단독 사용할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의문문과의 호응은 주로 대화문에서 실현된다. '아마도'가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99.3%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0.7%이다. 평서문과 호응할 때 주로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지(도) 모르다', '-(으)ㄹ리라', '-(으)ㄹ까', '-(으)ㄴ가'류, '-겠-' 등과 같은 추측 표현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의문문과 호응할 때는 예문 (2마~바)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로 '-(으)ㄹ까?', '-(으)ㄹ걸?'과 결합하여 대화문에서 실현된다.

(3) **혹시나** 유치하다고 웃지 않았을까?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

'혹시'가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63.4%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36.6%이다. 따라서 '혹시'가 평서문, 의문문과 두루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시'가 '-(으)ㄹ까'류,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가'류, '-나 하다' 등과 같은 추측 표현과 결합할 때 평서문과 호응하며, '-(으)까(요)?', '-냐?', '-(으)ㄴ/는 가(요)?', '-니?', '-나?' 등 표현과 결합할 때 의문문과 호응한다. '혹시나'가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98.9%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경우는 단 1회로 예문 (3)과 같이 '-(으)까?'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4) 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작은 어릿광대의 꿈)
나. **아무래도** 이상하시다고, 저어! (열두 컷의 낡은 필름)

'아무래도'가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98.7%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1.2%이고 감탄문과 호응하는 빈도는 1회로 0.1%의 비율만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래도'가 주로 평서문과 호응하며 의문문과 감탄문과 잘 호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는 평서문에서 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 '-겠-', '-(으)ㄴ/는/(으)ㄹ 듯하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ㄹ 것이다' '-(으)ㄹ 수 있다' 등의 표현과 결합한다. 예문 (4가)에서 제시한 것 같이 '아무래도'가 의문문과 호응할 때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 대화문에서 실현되다. 예문 (4나)는 '아무래도'가 감탄문과 호응하는 경우이며, 이 역시 대화문에서 실현되는 경우이다.

(5) 가. 내가 밑지고 결혼해주는데 **설마** 거절하겠어? (햄릿의 연인)
나. **설마** 저쪽은 아니겠지요. (경마장에서 생긴 일)

'설마'가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75.3%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24.7%이다. 따라서 '설마'가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와 호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5가-나)에 제시한 것과 같이 '설마'가 '-겠-'과 결합할 때는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로 실현될 수 있다. 평서문과 호응할 때는 '하다', '-(으)ㄹ리라' 등의 표현과 결합한다.

(6) **어쩌면** 나도 그 행복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펭귄의 날개)

'어쩌면'이 평서문과 호응하는 비율은 99.2%이며 의문문과 호응하는 빈도는 0.8%이다. 따라서 '어쩌면'은 주로 평서문과 호응하며 의문문과는 거의 호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평서문과 호응할 때 '어쩌면'은 주로 '-(으)ㄹ지도 모르다',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것이다', '-(으)ㄹ까'류, '-(으)ㄹ 것 같다', '-라고/다고 생각하다', '-(으)ㄴ/는 것이다', '-(으)ㄴ가'류, '-겠-' 등의 표현과 결합한다. 예문 (6)은 '어쩌면'이 의문문과 호응하는 경우로서 '-(으)ㄹ까?'와 결합하여 실현된다.

2.2.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2.2.1. 개별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먼저 사전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쓰인 상황을 분석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사전은 한국어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는『표준국어대사전』,『연세 현대 한국어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우리말 부사사전』으로 선정하였다. [27]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은 공통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28]

(7) 가. 어른들은 **아마** 우리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거야. 『고려』
나. **혹시** 절 모르시겠습니까? 『표준』
다. 경제를 살리자면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능통한 사람이 낫겠지. 『연세』
라.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지만, **설마** 어린아이가 그런 엄청난 짓을 했을

27) 이하『표준국어대사전』은『표준』,『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은『연세』,『고려대한국어 대사전』은『고려』,『우리말 부사사전』은 『우리말』로 나타내기로 한다.
28) 차현실(1986:154)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공통적 의미는 화자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화자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태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명제에 갖는 화자의 [확실성]의 인식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까? 『고려』

마. **어쩌면** 그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표준』

예문 (7가)에서 화자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어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예문 (7나)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하고자 의문문으로 추측을 나타낸다. 예문 (7다)에서 화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경제를 살리려면 실물 경제에 능통한 사람이 낫다는 의견을 추측으로 표현한다. 예문 (7라)에서 화자는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그러한 짓을 한 것에 의심을 가지고 추측을 나타낸다. 예문 (7마)에서 화자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예문 (7)을 통하여 추측 양태부사들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아마(도)'의 의미·화용적 특성

사전에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 '아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Ⅱ-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13> 사전에서 '아마'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표준	(뒤에 오는 추측의 표현과 호응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개연성이 높을 때 쓰는 말이나, '틀림없이'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낮은 말. 【아마＜석상＞】「참고 어휘」십중팔구(十中八九).
연세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고려	①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충 짐작해 볼 때 쓰는 말. ②가정의 연결어미 '-면'이나 양보의 연결 어미 '-더라도'다음에 쓰이어, 가정된 상황의 결과나 반대 결과를 짐작할 때 쓰는 말. ③부드러운 태도로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모르긴 해도'의 뜻으로 쓰는 말. ④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⑤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

	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할 때 쓰는 말.
우리말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말 앞에서 '거의·대개'의 뜻으로 쓰이는 말. 〔+불확실한 추측이나 판단. 사태에 대한 의심.

<표Ⅱ-13>에 의하여 '아마'는 네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확실하지 않거나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측한다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에서만 '아마'가 뒤에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마'를 추측의 의미를 가지면서 가능성이 크고 개연성이 높을 때 쓰는 추측 부사라고 제시하고 있다. 참고 어휘로 '십중팔구'가 제시되고 있는데 '십중팔구'는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이라는 뜻이므로 '아마'가 가능성이 크고 개연성이 높을 때 쓰이는 추측 양태부사임을 증명한다. 다시 말하면 '아마'는 추측을 하되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추측 양태부사이다. 『연세』에서는 '아마'의 뜻을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하는 말이라고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아마'의 의미가 다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다른 사전과 차이를 보인다. 『고려』에서 '아마②'는 가정의 연결어미 '-면'이나 양보의 연결 어미 '-더라도' 다음에 쓰이어, 가정된 상황의 결과나 반대 결과를 짐작할 때 쓰는 말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볼 때, 김지혜(2010, 174)가 '아마'에 '가정'의 의미를 추가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마'는 '가정'과 '양보'의 연결 어미 앞이 아니라 뒤에 쓰이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대한 추측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우리』에서 '아마'는 '거의'와 '대개'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제시되고 있는데 '거의'는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의 뜻이고 '대개'는 '일반적인 경우에'의 뜻이다. 즉 '아마'가 개연성이 클 때 사용되는 추측 양태부사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의 기본 의미를 '화자가 확실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개연성이 높을 때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구어 형태분석말뭉치와 사전 예문을 통하여 '아마'의 화용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아마'의 다양한 화용적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이고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기본 의미인 '추측'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확장된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8) A: 그럼 꽤 나이 있으시겠다?
B: 꽤가 아니라 일흔 여섯? 여덟인가 **아마**
A: 야 #name2 선생님 그러면은 일흔에, 정년 퇴임하는 거야?
(일상대화_저녁식사_#2)

(9) C: 옷 다 입구, 몸무게 육십 키로 안 나갈 거다 **아마**.
D: 그래 보이는데. (일상대화_미팅)

위 예문 (8)은 두 명의 화자가 선생님의 나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자A는 선생님의 나이가 일흔여섯이나 여덟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예문 (9)는 두 명의 화자가 몸무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자C가 자신의 몸무게가 육십 키로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④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추측 양태부사 '아마'는 수치나 수량에 대한 추측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아마'는 '대략'의 뜻을 나타낸다.

(10) 가. **아마** 오전 중에 일을 끝내야 할 겁니다. 『고려』
나. **아마**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려』

(11) A: 여러분들한테 데모도 보여 주고? 또 써 보라고 숙제도 낼 겁니다. 그래 가지구, 안 하면은 **아마**, 신지영 교수님이 리포트 체크할 겁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그런 ...
(강의_음성정보처리기술소개)

예문 (10가)는 어떤 사람이 화자에게 일을 언제 끝내야 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화자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전 중에 일을 끝내야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예문 (10나)에서 화자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예문 (11)에서 화자가 교수님이 리포트를 체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예문 (10)과 예문 (11)에서 보듯이 '아마'는 '-(으)ㄹ 것이다'와 '-(으)ㄹ 듯하다' 등과 같은 추측 표현 함께 쓰여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한국어는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추측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2) 갑: 박 사장이 정말로 깨끗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까?
을: **아마.** 『고려』

예문 (12)는 갑이 을에게 박 사장이 그 자리에서 쉽게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다. 을이 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생각이 확실하지 않아서 갑의 질문에 간단하게 동의를 표현하기 위해 '아마'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구어에서 화자가 상대방의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할 때 '아마'가 사용되는 화용적인 특성이 발견된다.

앞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아마'의 의미·화용적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이 높을 때 추측을 나타내는 말
화용	1.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 2. 부드러운 태도로 제안이나 권유를 표현하는 상황 3. 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상황

다음으로 사전에 제시된 '아마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Ⅱ-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14> 사전에서 '아마도'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표준	'아마01'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연세	확실치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참고: '아마'의 힘줌말이다.
고려	'아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	'아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아마도'는 네 사전 모두에서 '아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제시되며 '아마'의 의미와 큰 차이점이 없다. 다만 화용적 특성에 있어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거나 동의를 표현할 때 구어에서 '아마도'가 더 넓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13) 그에게 돈을 빌리기는 **아마도** 힘들 것이다. 『고려』
(14) A: 이번주 금요일날에 방학이네?
B: **아마도.**
C: 오 좋겠다. (수업대화_과외수업#2)

예문 (13)에서 ‘아마도’가 ‘아마’를 강조하는 부사로서 평소에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의 됨됨이 등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예문 (14)에서 화자A의 이번 주 금요일에 방학이냐는 질문에 화자B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로 대답하였다. 예문 (14)와 같이 구어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의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할 때 ‘아마’보다 ‘아마도’가 더 많이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2). ‘혹시’와 ‘혹시나’의 의미·화용적 특성

사전에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 ‘혹시’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Ⅱ-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9]

<표Ⅱ-15> 사전에서 ‘혹시’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표준	「3」[30]짐작대로 어쩌면. ≒혹05「3」·혹야「3」·혹여「3」·혹자01[Ⅱ]「3」. 「4」((의문문에 쓰여))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다소 미심쩍은 데가 있어 말하기를 주저할 때 쓰는 말.
연세	1.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짐작하기로. 2.행여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듯하여. 관련어: 만약, 유의어: 혹2, 혹시 참고: 1 의문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임. 2 강조하는 뜻으로 ‘혹시나, 혹시라도’의 꼴로도 자주 쓰인다.
고려	②뒤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우리말	①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짐작하기로.≒만일. 가령. 만약. 설령. 설사. 설약. 〔+강한 우려감〕

네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에 의하면 ‘혹시’가 ‘가정’과 ‘추측’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시’가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 확실하지 않은

29) ‘혹시’와 조사 ‘라도’가 결합한 형태인 ‘혹시라도’는 사전에서 등재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30) 『표준』의 뜻풀이 「1」, 「2」, 『연세』의 뜻풀이 3번, 『고려』의 뜻풀이 ①, 『우리말』의 뜻풀이 ②는 ‘혹시’의 ‘가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므로 본고에서 자세히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31] 『표준』에서 '혹시'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혹시'가 의문문에서 쓰일 때는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말하기를 주저하는 심리적 태도와 같은 화용적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판단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로 정의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혹시'를 뒤의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의혹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혹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추측을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혹시'가 강한 우려감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영희(1994:96)는 추측이 모두 주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추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화자가 추측하는 방향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혹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거나 아직 화자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추측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의혹을 나타낸다. 더불어 '혹시'는 자신의 추측이나 기대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태도도 나타내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혹시'의 기본 의미를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정리하며, 추측을 나타낼 때 상황에 따라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의 태도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말뭉치 예문과 사전 예문을 통해 '혹시'가 가지는 추측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혹시'의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5) **혹시**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표준』

(16) **혹시**, #name1 선생님, 그 부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강연_저작권)

---

31) 차현실(1986:159)에서 '화자에게 있어서 불명확한 사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 '이것이냐 혹은 아니냐'의 선언(disjuction) 접속구조에서 출발하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사태 중에서 화자가 선택한 하나를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확인문의 과정에서 [가능 세계에 대한 소극적 믿음]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예문 (15)에서 화자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난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화자는 그 사람을 이전에 만났는지 확실하지 않아 기대를 실어 그 사실 여부를 의문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때 '혹시'는 길게 발음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대화를 시작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예문 (16)에서 화자는 선생님이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기대하며 의문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예문(15)와 예문(16)과 같이 '혹시'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지 못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17) 김 선생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다니 **혹시** 어딘가 아픈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고려』
(18) 이건 오늘 새벽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틀린 정보가 될까 봐. (워크샵 #4)

예문 (17)에서 화자는 '김 선생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원인을 김 선생님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그에 대하여 강려한 우려감을 나타낸다. 예문 (18)에서 화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이 틀린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예문 (17)과 예문 (18)과 같이 '혹시'가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상황에 사용되어 화자의 우려를 표현할 수 있다. 우려와 기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화자의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반대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혹시'의 의미·화용적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말
화용	1. 화자가 사태에 대하여 기대를 나타내는 상황 2. 화자가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

다음으로 사전에 제시된 '혹시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Ⅱ-16>과 같다.

<표Ⅱ-16> 사전에서 '혹시나'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표준	‘혹시01(或是)’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연세	(강조하는 말로) 혹시.
고려	①《주로 ‘하다’와 함께 쓰여》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우리말	‘혹시1’를 강조한 말.

‘혹시나’는 ‘혹시’를 강조하는 말로 의미적으로 큰 차이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혹시’의 서술어 호응 양상 부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고려』에서도 ‘혹시나’가 ‘하다’와 호응하여 쓰이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현식(1999)에서 ‘혹시나’가 ‘혹시’와 문맥상 달리 쓰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19) {혹시나, 혹시*} 해서 들렸지요. →기대적 추측
{혹시나,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요? →가정적 추측

‘혹시나’는 위 예에서처럼 ‘기대적 추측’이나 ‘가정적 추측’의 표현에도 쓰인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지적했던 ‘혹시’는 ‘하다’와 결합할 수 없으나 ‘혹시나’는 ‘하다’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다.

(20) 가. 나는 **혹시나** 예외가 있을까 해서 일부러 유심히 조사해 보았다.
『연세』
나.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 『표준』

(21) 군대 간다고? 그게 되게 고마웠어. 그래서 아~**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 내가 상병 때, 얘 면회를 왔을 때 내가 말을 했지.
(독백_첫사랑, 전공, 군대)

예문 (20가)에서 ‘혹시나’는 ‘혹시’를 강조하는 부사로서 ‘혹시’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예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화자는 예외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예문 (20나)는 ‘혹시나’와 ‘하다’가 함께 쓰인 예시로서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 것으로 추측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은 상황이다. 예문 (21)에서는 ‘혹시나’와 ‘하다’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으로 추측을 나타내며 화자의 기대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3). '아무래도'의 의미·화용적 특성

사전에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 '아무래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Ⅱ-17>과 같이 정리한다.

<표Ⅱ-17> 사전에서 '아무래도'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표준	[Ⅰ]「부사」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또는 아무리 이리저리 하여 보아도. [Ⅱ] '아무러하여도'가 줄어든 말.	
연세	1.(그리되지 않게) 노력을 하여도 결국에는. 2.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려	아무래도1	①어떤 일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②다른 여지가 없이 결국에는.
	아무래도2	①'아무리 하여도'가 준 말. '아무리 생각하거나 노력하여도'의 뜻으로 추측하는 말이다. ②'아무리 하여도'가 준 말. 가정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음에 쓰이어, '아무리 생각하거나 노력하여도'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우리말	①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②노력을 하여도 결국에는.	

네 사전에 제시된 '아무래도'의 뜻풀이에 따르면 '아무래도'는 '아무리 생각하거나 노력하여도'의 뜻을 가진다. 『고려』에서는 다른 사전과 달리 '아무래도2' 뜻풀이의 ①번 해석으로 명확하게 '추측하는 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영희(1994:100)에서 '아무래도'는 미리 많은 생각을 한 결과 추측한 것으로 다르게 추측할 여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거의 확실함과 신념을 나타내는 추측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무래도'는 추측을 하되 상황에 대한 확실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추측 양태부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무래도'가 '아무리 하여도'의 준말인 점을 분석하면 '아/어도'가 양보 표현이므로 '아무래도'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양보적' 의미를 나타낸다.[32] 여기서 '양보'[33]의 의미는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주거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32) 민현식(1999:170)에서 '아무래도'를 '양보적 추측'으로 보았다.

33) 『표준』에 따르면, '양보(讓步)03'은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을 뜻한다.

을 희생하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문법 용어로서 '양보'[34]는 화자가 타인의 주장을 일단 인정해 주고, 후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래도'의 양보적 의미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 준 뒤, 결국에는 화자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아무래도'의 기본 의미는 화자가 이미 일어났거나 알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거의 확실한 판단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가 추측을 나타낼 때 '양보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 말뭉치 예문과 사전 예문을 통해 '아무래도'가 사용되는 상황을 분석하여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화용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22) 나 순간 되게 당황했다니까, **아무래도** 내 전산실에서 본 애가 갠 거 같애. 진짜 자주 마주쳤거든? (일상대화_식사)

(23) 가. **아무래도** 가장 안전할 때는 모두 잠든 밤중일 것이다. 『표준』
나. 연락도 없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고려』
다. 먼 데서 학교를 다니려면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하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고려』

예문 (22)는 화자가 전산실에서 본 사람을 길에서 또 만난 일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화자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람이 자신이 전산실에서 본 그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예문 (23가)에서 화자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잠든 밤중이 가장 안전할 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예문 (23나)에서 화자는 누군가가 '연

34) 홍종화(1999:561)에서는 수사학에서의 양보 개념이 '화자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의 논점을 일단은 그대로 수용해 줌으로써, 후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을 때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담화의 기법'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적인 양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환묵(1999:202)에서도 '양보라는 말은 화자가 양보절에 담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에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 주절에 담긴 화자 자신의 주장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백재연, 2011:175에서 재인용)

락도 없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하여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와 호응 빈도가 가장 높은 추측 표현 '-(으)ㄹ 것 같다'와 결합하여 화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예문 (23다)에서 '먼 데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해 '하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또는 권유를 하고 있다. 예문 (22)와 예문 (23)은 화자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 다음에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양보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화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아무래도'의 의미·화용적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아무리 생각하거나 노력하여도 결국에는'의 뜻으로 거의 확실한 판단으로 추측을 나타나면서 '양보적'의 의미가 내포된다.
화용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하는 상황

(4). '설마'의 의미·화용적 특성

사전에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 '설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18>과 같다.

<표Ⅱ-18> 사전에서 '설마'의 뜻풀이

사전	뜻풀이
표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쓴다.
연세	1.(앞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하여) 걱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2.설마가 사람 잡는다 참고: '-ㄹ까, -랴' 등과 같이 의심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와 주로 쓴다.
고려	①《반어 의문문에 쓰여》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②《앞선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럴 수 없거나 그러지 않기를 믿고 바람을 나타내는 말. ③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우리말	아무리 그러하기로. 걱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아무리. 〔전제된 추측에 대한 부정적 추측. 또는 반대되는 사실의 희망. 사태에 대한 의심〕

네 사전에 제시된 '설마'의 뜻풀이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라는 의미

적 공통점을 갖는다. 『표준』에서 ‘설마’를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하는 양태부사로 제시한다.『연세』에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표현한다는 ‘설마’의 의미적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설마’가 쓰인 속담인 ‘설마가 사람 잡는다’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고려』에서 ‘설마’가 반어[35] 의문문에 쓰이는 용법을 제시하고 앞서 언급한 상황에 대하여 화자가 그러지 않기를 믿고 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반어 표현은 화자의 부정, 풍자, 조롱 등과 같은 심리적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반어 의문문으로 추측하는 경우, 화자가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강조하는 심리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36] 『우리말』에서도 다른 사전과 큰 차이 없이 ‘설마’를 전제된 추측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의심이나 그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나타낸다고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설마’의 기본 의미를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추측을 내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설마’는 주로 반어 의문문으로 실현되며 화자의 의심이나 걱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설마’가 사용되는 상황을 분석하여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된 화용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A : 지금 박지성 선수가 일부러 지금 송종국 선수 있는 쪽으로 안 오는 거 같애요.
B : 아이 **설마요**!
A:네. (방송_스포츠중계_축구)

예문 (24)에서 축구 해설자인 화자 A가 박지성 선수가 일부러 송종국 선수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추측을 한다. 축구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서로 단결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자B는 화자A의 추측에 대한 놀람이나 의심을 추측 양태부사 ‘설마’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와 같이 ‘설마’는 상황에 대한 놀람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35) 『표준』에 의하여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36) ‘설마’를 ‘의문강조’로 분류하는 연구는 왕문용·민현식(1993)이 있다.

(25) 가. 갑: 동민이가 전 과목 만점을 받았대.
을: **설마**. 『고려』
나. **설마** 암일까? 『고려』

예문 (25가)에서 갑이 동민이가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을에게 전달하였으나 전 과목 만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그것에 대한 의심을 추측 양태부사 '설마'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예문(25나)에서 암인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암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암인 것을 의심하거나 걱정하면서 암이 아닐 경우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문(25)와 같이 '설마'는 상황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26) 가. **설마** 이 밤중에 나한테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고려』
나. 그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설마** 도둑질이야 하겠습니까? 『고려』

예문 (26가)에서 표면적으로는 이미 늦은 밤중이기 때문에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반어 의무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화에 나타난 추측의 반대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26나)에서 화자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처럼 화자가 스스로 믿는 것과 반대인 경우를 상정하여 반어 의문문으로 나타냄을 통해 소문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풍자나 조롱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강조한다. 예문 (26)은 모두 풍자, 조롱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하면서 전제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낸다.

앞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설마'의 의미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의 뜻이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말.
화용	1. 사태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상황

	2. 사태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는 상황 3. 풍자, 조롱, 비웃음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하는 상황

(5). '어쩌면'의 의미·화용적 특성

사전에 제시된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Ⅱ-1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19> 사전에서 '어쩌면'의 뜻풀이

표준	「1」 확실하지 아니하지만 짐작하건대. 「2」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연세	준비 중[37]
고려	①확실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②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말	①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할 어찌하면. ②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여 추측하건대. ③도대체 어떻게 하면.

『연세』를 제외한 세 사전에서 '어쩌면'의 뜻풀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한다'는 의미와 '도대체 어떻게 해서'의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38]. 사전에는 '어쩌면'의 추측 의미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사전 예문과 말뭉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7) 가. **어쩌면** 내가 합격할지도 몰라. 『고려』
나. **어쩌면** 내일 일이 끝날지 모르겠다. 『우리말』

(28) 그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없다면 사람이 **어쩌면**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강의_교양국어)

---

37) 『연세』에서 '어쩌면'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38) '어쩌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의 의미일 때 추측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예문: 어쩌면 이야기를 그렇게도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예문에서 '어쩌면'은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야기를 그렇게도 재미있게 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쩌면'과 호응하는 표현은 '-(으)ㄴ/는지도 모르다'가 추측 표현이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모른다는 표현이다.

예문 (27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합격할지 합격하지 못할지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합격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예문 (27다)에서 언제 일이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일이면 일이 끝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예문 (28)은 화자가 언어와 생각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언어와 생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서 언어가 없다면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어쩌면'은 화자가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어쩌면'의 의미·화용적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여 추측을 나타나는 말
화용	화자가 추측을 할 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

2.2.2. 추측 양태부사 간의 의미·화용적 비교

본 절에서는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추측 양태부사들은 추측이라는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포하는 확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두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추측 양태부사는 화자가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다만 화자가 판단을 할 때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측 양태부사별로 확신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종합해 고려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확신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무래도'는 화자가 이미 일어났거나 알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거의 확실한 태도로 추측할 때 쓰인다. 따라서 '아무래도'는 확신의 정도가 가장 높은 추측 양태부사이다. 또한 '아무래도'의 통사적 특성 부분에서 논의하였듯이 비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확신의 정도가 높은 추측 양태부사임을 알 수 있다. '아마'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확실한 판단은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개연성이 높을 때 쓰이는 추측 양태부사이므로 '아마'가 '아무래도'보다 확신 정도가 낮다. '어쩌면'은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 확실하지 않으며 막연한 추측을 나타낸다. '어쩌면'과 가장 많이 호응하는 추측 표현인 '-(으)ㄹ지도 모르다'는확신의 정도가

낮은 추측 표현이다. 따라서 ‘어쩌면’은 불확실한 추측으로서 확신의 정도가 ‘아마’와 ‘아무래도’보다 낮다. ‘혹시’는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 사실과 그 사실의 반대 경우 모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화자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이다. 또한 ‘혹시’가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혹시’가 ‘어쩌면’보다 확신의 정도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설마’는 상황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의문문으로 추측을 실현하므로 구어에서 화자의 억양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추측 양태부사를 확신의 정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혹시(나)	어쩌면	아마(도)	아무래도
←확신의 정도 낮아짐			확신의 정도 높아짐→

(29) 가. 아무래도/아마/어쩌면/혹시* 도서관에 못 갈 것 같다.
나. 아무래도*/아마/어쩌면/혹시 도서관에 못 갈지도 모르다.

예문 (29가)에서 보듯이 ‘아마, 혹시, 아무래도, 어쩌면’이 모두 ‘-(으)ㄹ 것 같다’와 호응하여 추측을 나타낼 수 있으나 화자가 가지는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 ‘아무래도’는 화자가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도서관에 못 간다는 것을 거의 확실한 것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아마’는 도서관에 갈 가능성이 있지만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어쩌면’은 화자가 도서관에 못 가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개연성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추측할 때 사용된다. ‘혹시’는 확신의 정도가 낮은 양태부사로 평서문에서 추측 표현 ‘-(으)ㄹ 것 같다’와 결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39]

예문 (29나)에서 ‘아마, 어쩌면, 혹시’는 추측 표현 ‘-(으)ㄹ지도 모르다’와 호응하여 추측을 나타나지만 ‘아무래도’는 ‘-(으)ㄹ지도 모르다’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다.[40] ‘아무래도’는 화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못 간다는 판단을

39) Ⅱ장에서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자료로 ‘혹시’와 호응하는 서술어 양상을 살펴본 결과, ‘혹시’가 평서문에서 ‘-(으)ㄹ까’류,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가’류, ‘-나 하다’ 등의 표현과 호응하며 ‘- (으)ㄹ 것 같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40) Ⅱ장에서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자료로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서술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아무래도’가 ‘-(으)ㄹ지도 모르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내릴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판단에 대한 가능성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확신의 정도가 높은 추측 양태부사 '아무래도'는 확신 정도가 낮은 추측 표현과 결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아마, 어쩌면, 혹시'는 도서관에 갈 가능성과 못 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으)ㄹ지도 모르다'와 호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태부사는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추측 양태부사는 추측이라는 주된 의미 이외에 상황에 따라 부차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아마'와 '어쩌면'은 추측 이외에 부차적 의미를 보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혹시, 설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아무래도'는 화자가 일단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 고려해 보아도 결국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한다는 '양보적'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혹시'는 화자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는 양태부사이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수반할 수 있다. '설마'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추측이 반어 의문문으로 실현될 때 나타난다. 반어 표현은 화자의 풍자, 조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30) 가. 정훈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
나. **아무래도** 정훈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
(31) 가. **혹시** 철수의 전화번호 알아?
나. **설마** 철수의 전화번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예문 (30가)는 정훈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고, 예문(30나)는 정훈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도 결국에 화자는 정훈이가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여 자신의 추측을 주장한다.

예문 (31가)는 화자가 철수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상황에서 화자가 상대방이 철수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는 경우 중에서 아는 경우를 선택하여 그를 기대하는 태도가 포함된다. 예문 (31나)는 상대방이 철수와 아주 친한 친구이거나 철수의 전화번호를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철수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말로서,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에 대한 놀람이나 의심 등을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 '혹시'와

‘설마’는 모두 의문문에서 두루 쓰이고 추측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수반하는 화자의 태도가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측 양태부사들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추측 양태부사들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확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3. 교재 분석

3.1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순서

추측 양태부사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교재 분석 대상은 Ⅲ장의 설문지 조사 참여자가 많이 사용한 교재를 선정하였으며 교재의 서지사항은 다음 <표Ⅱ-20>과 같다.

<표Ⅱ-20>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서지사항

교재명	출판연도	출판사
서울대 한국어 1-5[41]	2013-2015	문진미디어
연세한국어 1-6	2007-2009	연세대학교출판부
韓國語教程 1-6	2007	世界圖書出版社公司
標準韓國語 1-3	1996	北京大學出版社
韓國語1-2(修订本),3-4	2003-2010	民族出版社

각 교재의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의 제시여부, 제시 순서, 제시 내용, 연습 활동 등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교재의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순서는 다음 <표Ⅱ-21>과 같다.

<표Ⅱ-21>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순서

추측 양태부사	서울대	연세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韓國語
아마	2A 5과	1권 4과	-[42]	1권 28과	-
아마도	-	-	-	-	3권 1과
혹시	-	3권 5과	2권 18과	2권 16과 3권 6과	1권 16과

41) 이하 『서울대 한국어』는 ‘서울대’, 『연세한국어』는 ‘연세’로 표기한다.

혹시나	-	-	-	-	-
아무래도	-	-	5권 48과 6권 51과	-	2권 3과
설마	3A 8과 4B 16과	4권 7과	5권 42과	-	4권 1과
어쩌면	-	-	-	-	4권 11과

<표Ⅱ-21>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 '아마'는 주로 초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혹시'는 주로 초·중급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아무래도'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주로 중·고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설마'는 한국의 교재에서 주로 중급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주로 고급에 제시되고 있다. '어쩌면'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 중 단 한 권에서만 제시되고 있으며 고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3.2.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양상

다음은 추측 양태부사별로 각 교재의 제시 내용, 제시 예문과 연습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마(도)'의 제시 양상

'아마(도)'의 제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22>와 같다.

<표Ⅱ-22> 교재에서 '아마(도)'의 제시 양상

교재	제시 내용	제시 예문	연습 활동
서울대	maybe	예문 없음	'-(으)ㄹ 것이다'와 관한 문형 연습 활동
연세	probably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韓國語教程	-	-	-
標準韓國語	(副词)大概, 也许	예문 없음	'-(으)ㄹ 것이다'와 관한 문형 연습 활동
韓國語	아마도:(副词)아마的强势语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표Ⅱ-22>에 따르면 '아마'는 『서울대』에서 '아마'의 뜻풀이가 'maybe'로

42) '-' 표시는 해당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제시되고 있으며, 『연세』에서 'probably'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 『標準韓國語』에서 '아마'가 부사로 '大概[43], 也许[44]'의 뜻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문장 완성형 연습 활동이 연습 활동으로 마련되어 있다. 교재 『韓國語』에서 '아마'가 제시되지 않고 '보충 단어'에서 '아마도'의 품사 정보를 부사로 제시하고 '아마'의 강조어로 설명하고 있다. '보충 단어'는 대화문에서 나오는 '새 단어'와 달리 품사 정보와 뜻을 간단한 중국어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2). '혹시'의 제시 양상

교재에서 '혹시'의 제시 양상은 다음 <표Ⅱ-23>과 같다.

<표Ⅱ-23> 교재에서 '혹시'의 제시 양상

교재	제시 내용	제시 예문	연습 활동
서울대	-	-	-
연세	by any chance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韓國語教程	或许，也许	예문 없음	'-(으)ㄹ 까요?'와 관한 문형 연습 활동
標準韓國語	2권, (名词)或许 3권, (副词)或许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韓國語	或许，也许，如果，万一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표Ⅱ-23>에 따르면 '혹시'는 『연세』에서 'by any chance'로 제시되고 있다. 교재 『韓國語教程』에서 '혹시'의 뜻이 '或许[45], 也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으)ㄹ까요?'와 함께 문형 연습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교재 『標準韓國語』 2권에서 '혹시'의 품사 정보가 명사로 제시되고 있고 '혹시'의 뜻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或许'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문에서 쓰인 예문에서 '혹시'가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재 『標準韓國語』3권에서 '혹시'의 품사 정보가 부사로 제시되고 있으며 뜻은 '或许'로 제시되고 있다. 교재 『韓國語』에서 '혹시'의 품사 정보가 명사로 제시되고 있으

43)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大概'는 '아마(도), 대체로, 대개, 십중팔구'의 뜻이다.

44)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也许'는 추측이나 짐작을 하여 단정하지 못함을 나타내며, '아마도', '어쩌면'의 뜻이다.

45)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或许'는 '혹시, 아마(도)', 어쩌면'의 뜻이다.

며 뜻은 '或许, 也许, 如果[46], 万一[47]'로 제시되고 있다. '或许, 也许'가 추측의 의미에 해당하고 '如果, 万一'가 가정의 의미에 해당한다. 대화문에서 쓰인 '혹시'의 예문은 추측의 의미이다. '혹시나'는 분석 대상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아무래도'의 제시 양상

교재에서 '아무래도'의 제시 양상은 다음 <표Ⅱ-24>와 같다.

<표Ⅱ-24> 교재에서 '아무래도'의 제시 양상

교재	제시 내용	제시 예문	연습 활동
서울대	-	-	-
연세	-	-	-
韓國語教程	(5권) 제시 내용 없음	예문 없음	'-어야 할까 보다'와 관한 문형 연습
	(6권) 아무리 하여도	3개의 예문[48]	연습 활동 없음
標準韓國語	-	-	-
韓國語	(副词)无论如何，不管怎么样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표Ⅱ-24>에 따르면 '아무래도'는 교재 『韓國語教程』5권에서 대화문에서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문형연습에서 '아무래도'가 '-어야 할까 보다'와 같이 연습 활동에 제시되고 있다. 6권에서 '아무래도'가 '아무리 하여도'의 준말로 제시되고 있다. 교재 『韓國語』에서 '보충 단어' 부분에 '아무래도'를 부사로 설명하며 '无论如何[49], 不管怎么样'의 뜻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설마'의 제시 양상

교재에서 '설마'의 제시 양상은 다음 <표Ⅱ-25>와 같다.

<표Ⅱ-25> 교재에서 '설마'의 제시 양상

---

46)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如果'는 가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만약', '만일'의 뜻이다.

47)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万一'는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에 쓰여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만일, 만약'의 뜻이다.

48) ①그 일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②아무래도 내가 가야겠다. ③아무래도 10만원은 있어야겠다.

49)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无论如何'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어찌되었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의 뜻이다.

교재	제시 내용	제시 예문	연습 활동
서울대	(3A)It is not likely but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4B)설마 A/V-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의 뜻으로 예측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으)ㄹ 리가 없다', '-(으)ㄴ/는 것은 아니겠지요?'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의 문장과 같이 쓸 수 있다.	6개의 예문[50]	연습 활동 없음
연세	-는/은/ㄴ 건 아니겠지요?	예문 없음	'-는/은/ㄴ 건 아니겠지요?'와 관한 상황 연습 활동
韓國語教程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하여 아무리 하기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문을 나타난다. ·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 설마 설마 하다가	1개의 예문[51]	'-는 건 아니겠지?'와 관한 문형 연습
標準韓國語	-	-	-
韓國語	(副词)多用于反问句，表示"该不会.....吧"的意思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표Ⅱ-25>에 따르면 '설마'는 『서울대』에서 'It is not likely but'로 제시되고 있으며 『연세』에서 문형 '-는/은/ㄴ 건 아니겠지요?'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 사용되는 교재인 『韓國語教程』에서 '설마'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하여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말로 제시되고 있으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관용어와 '설마'와 '하다'가 결합하는 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문형 연습에서 '-는 건 아니겠지'와 함께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교재『韓國語』에서 '설마'가 '보충 단어' 부분에 반어 의문문에서 쓰여 '그릴 리는 없지만'의 뜻으로 제시되고 있다.

50) ①설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②온다고 약속해 놓고 설마 안 오겠어요? ③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마 취직할 회사가 없겠어요? ④오늘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이십 명이나 되는데 설마 이 정도도 못 먹겠어요? ⑤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설마 비가 올 리가 없다. ⑥설마 벌써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겠지요?

51) 설마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겠지 했는데, 범인이었다니?

(5). '어쩌면'의 제시 양상

교재에서 '어쩌면'의 제시 양상은 다음 <표Ⅱ-26>과 같다.

<표Ⅱ-26> 교재에서 '어쩌면'의 제시 양상

교재	제시 내용	제시 예문	연습 활동
서울대	-	-	-
연세	-	-	-
韓國語教程	-	-	-
標準韓國語	-	-	-
韓國語	怎么, 如何	예문 없음	연습 활동 없음

'어쩌면'은 교재 『韓國語』에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은 '怎么[52], 如何[53]'의 뜻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어쩌면'에 관한 예문과 연습 활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 사용되는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여부, 제시 방법, 제시 내용 등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추측 양태부사가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어쩌면'의 경우는 단 한 권의 교재에만 제시되는데 추측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추측 양태부사가 한국어 교육에서 갖는 중요성은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와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어휘부록>[54]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모두 제시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를 새로운 단어 목록에서 그 뜻만을 중국어나 영어로 간단히 제시하는 방식은 학습자가 추측 양

52)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怎么'는 '어찌, 어떻게'의 뜻으로 반문이나 감탄을 나타낸다.

53)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如何'는 '어떠하냐, 어쩌면, 이찌하여'의 뜻이다.

54)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에서 어휘 등급을 초급과 중급만으로 나누고 고급 어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어휘 부록>에서 어휘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고급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추측 양태부사가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과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어휘 부록>에서 제시 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부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뜻을 가지는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들이 모두 같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제시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의 교재에서는 '혹시'의 품사 정보를 명사로 제시하거나 '혹시'의 뜻을 '추측'으로 제시해 놓고 본문에서는 '가정'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미와 사용이 서로 맞지 않게 제시한 교재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셋째, 추측 양태부사는 서술어 호응 양상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교재는 추측 양태부사의 기본 의미 제시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고 통사적 호응 양상을 충분히 밝히고 있지 않다. 추측 양태부사들이 어떤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사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어색한 문장을 생성하기 쉽다.

넷째, 교재에서 충분한 예문과 연습 활동을 마련되지 않았다 추측 양태부사가 본문에서 한 번만 제시되고 충분한 예문이 제시되지 않으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중국어나 영어로 간단하게 번역된 단어에 의존하게 되어, 구체적인 문장이나 상황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미를 습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교재에서 제시된 연습 활동은 주로 문형 연습으로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이 제시된 연습 활동이 마련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양태부사의 의미와 사용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양태부사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어휘부록
아마	초급	초급
아마도	중급	중급
혹시	초급	중급
혹시나	-	고급이상
아무래도	중급	중급
설마	중급	고급이상
어쩌면	중급	중급

Ⅲ.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각각 추측 양태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선정 및 정보, 설문 조사 설계, 설문지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설문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선정된 추측 양태부사 '아마'는 주로 초급에서 제시되며 '혹시'는 주로 초·중급 단계에서 제시된다. '아무래도', '설마'와 '어쩌면'의 경우는 교재마다 제시되는 단계가 다르지만 주로 중·고급 단계에서 제시된다. 이를 고려하여 초·중급 학습자를 설문 조사 참여자로 선정할 경우 학습한 적이 없는 추측 양태부사들이 선택지로 제시되어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고급 학습자를 설문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현재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5급과 6급 과정을 배우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고급(5·6급)을 통과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4학년 학생[55]을 설문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 49명과 재중 중국인 학습자 48명, 총 9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55) 본 설문 조사는 2016년 8월에 실시하였다. 중국에서는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학년 학생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2년이며 4학년 학생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3년이다.

분류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인수	49명		48명	
성별	남자: 12명	여자: 37명	남자: 15명	여자: 33명
연령	10대: 18명	20대: 31명	10대: 2명	20대: 46명
한국어 학습 기간	1.3년		2.4년	
한국어 수준	고급		고급	
한국 거주 기간	1.4년		해당 안 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대조집단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변인을 통제하고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모어 화자도 학생을 설문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가 다음 <표Ⅲ-2>와 같다.

<표Ⅲ-2> 한국인 모어 화자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분류	한국인 모어 화자	
인수	60명	
성별	남자: 25명	여자: 35명
연령	10대: 21명	20대: 39명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 조사 참여자 중 재한 학습자 10명과 면대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재중 학습자 10명과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2. 설문 조사 절차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①설문 조사 도구 개발

②예비 설문 조사

③설문지 수정

④본 설문 조사

⑤사후 인터뷰

⑥결과 분석

설문 도구로는 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측 양태부사를 선택하는 선다형 문항과 대화를 완성하는 괄호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6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국인 모어 화자 20명과 중국인 고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설문지는 선다형 문항 14개와 괄호형 문항 12개로 구성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실험 참여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째, 예비 실험 결과 유의하지 않은 설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 조사 참여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황 설명과 어려운 단어 등 필요한 부분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로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재한 학습자 집단은 직접 설문 조사를 하였고, 재중 학습자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례를 하였다.

또한 본 설문 조사 실시 후 바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56] 사후 인터뷰에서는 설문 문항에서 그 선택지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 봄으로써 실제적인 추측 양태부사의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3. 설문지 설계 및 분석 방법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Ⅱ장에서 기술한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대화와 유사하도록 변형하여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선다형 문항(Multiple-Choice Type)과 괄호형 문항(Close Type)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문항은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각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한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

56)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지 알아보고자 하며 괄호형 문항은 설정된 상황에 주어진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설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구성은 다음 <표Ⅲ-3>과 <표Ⅲ-4>와 같다.

<표Ⅲ-3> 선다형 문항 구성표

추측 양태부사	상황 정보	문항 번호
아마(도)	1. 개연성이 높은 상황	Q4
	2. (아마도) 추측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상황	Q1
	3. 부드러운 태도로 제안이나 권유를 제시하는 상황	Q10
혹시(나)	1. 불확실한 상황에서 화자가 믿은 것을 선택해서 추측하는 상황	Q7
	2. 추측할 때 화자의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	Q5
아무래도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Q9
	2. 노력을 하여도 결국에는	Q6
	3. 제안이나 권유를 제시하는 상황	Q12
설마	1. 놀람이나 의심 등을 나타내는 상황	Q3
	2. 놀람이나 조롱 등을 나타내는 상황	Q11
어쩌면	1. 확신 정도 낮은 상황	Q2
		Q8

선다형 문항 Q1~Q12를 통해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자 하였고, 각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따라 두세 문제씩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의 선다형 문항 분석은 Ⅱ장에서 논의한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상황을 분석한 결과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지로 정하였다.

<표Ⅲ-4> 괄호형 문항 구성표

추측 양태부사	서술어 호응 정보	문항 번호
아마(도)	-(으)ㄹ 것이다, -(으)ㄹ걸 등	W1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가'류 등	W6
혹시(나)	'-(으)ㄹ까'류, -(으)ㄹ지(도) 모르다 등	W8
	'-(으)ㄴ가'류, -니?, 일반 의문문 등	W9
	혹시나 + 하다	Q13
아무래도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것이다 등	W3
	-(으)ㄴ/는/(으)ㄹ 것 같다, -겠-, -나 보다 등	W10
설마	-(으)ㄹ까?, -겠-, -나? 등	W5, W7

어쩌면	-(으)ㄹ지(도) 모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있다 등	W2, W4

선다형 문항 Q13[57]과 괄호형 문항 W1~W10은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각 양태부사별로 두세 문제씩 구성하였다. 괄호형 문항 분석을 위해 먼저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을 엑셀에 문항 순서대로 적어 넣었다. 오류는 그대로 전사하였다. 앞서 제시한 추측 양태부사 서술어 호응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적절한 표현으로 대답한 경우 정답, 부적절한 표현으로 대답한 경우 오답으로 처리하였다[58]. 적절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에 근접하여 제시된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을 말한다. 부적절한 표현은 비문법적인 표현이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말한다.

설문지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1>: Q13, W1-W10 문항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통사적으로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학습 기간이 비교적 긴 재중 고급 학습자가 재한 고급 학습자보다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더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가설2>: Q1-Q12 문항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차이를 인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학습 기간이 비교적 긴 재중 고급 학습자가 재한 고급 학습자보다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더 적절하게 인시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57) 선다형 문항 Q13은 '혹시나'의 통사적 호응 양상을 고찰하는 문항이다. 괄호형 문항으로 출제할 경우 학습자가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다형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58) 괄호형 문항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어미가 아닌 부분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는 정·오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해 보는 방식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을 통사적 층위와 의미·화용적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2.1 추측 양태부사의 호응 표현 사용 양상 분석

우선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설정된 상황에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괄호형 문항의 정답률을 다음 <표Ⅲ-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Ⅲ-5> 괄호형 문항의 정답률

양태부사	문항 번호	정답률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아마(도)	W1	100%	79.5%	81.2%
	W6	100%	53.1%	37.5%
혹시(나)	W8	98.3%	67.3%	60.4%
	W9	100%	98.0%	97.9%
아무래도	W3	100%	91.8%	91.6%
	W10	96.7%	77.5%	85.4%
설마	W5	90.0%	63.2%	66.7%
	W7	100%	65.3%	79.2%
어쩌면	W2	98.3%	69.4%	70.8%
	W4	98.3%	26.5%	27.1%
전체		98.2%	69.2%	69.8%

위 <표Ⅲ-5>와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전체 정답률은 98.2%이고,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전체 정답률은 각각 69.2%와 69.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든 문항에서 9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중국인 학습자는 문항 W6과 W4를 제외한 문항에서 60.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는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의 호응 표현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류가 아닌 양상과 오류 양상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1.1. 오류가 아닌 양상의 분석

오류가 아닌 양상의 분석은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적절한 표현의 사용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록 중국인 학습자는 문항 W6과 W4를 제외한 문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호하는 양상

문항 W1은 지영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음을 서윤이가 알게 된 후에 지영이에게 미국의 대학원이 2년인지 3년인지를 물은 상황이다.

[문항 W1]
지영: 난 미국의 대학원에 지원할 생각이야. 졸업하면 유학 가려고...
서윤: 아? 결정됐어? 너 가고 나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지영: 아니야, 일단 지원해 보려고.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어.
서윤: 미국의 대학원은 2년인가 3년인가?
지영: **아마** ① _____. (2년)

문항 W1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6>과 같다.

<표Ⅲ-6> 문항 W1의 답변 양상

문항 W1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한 표현	**-(으)ㄹ 것이다[59]**	**51**	**85.0%**	**15**	**30.6%**	**5**	**10.4%**
	-(으)ㄹ걸[60]	8	13.3%	8	16.3%	4	8.3%
	-겠-	1	1.7%	-	-	-	-
	-(으)/ㄴ/는/(으)ㄹ 것 같다	**-**	**-**	**14**	**28.6%**	**30**	**62.5%**
	-(으)ㄴ가 보다	-	-	1	2.0%	-	-
	-(으)ㄹ지도 모르다	-	-	1	2.0%	-	-

	합계	60	100%	39	79.5%	39	81.2%
부적절한 표현		0	0.0%	10	20.5%	9	18.8%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6>과 같이 우선 한국인 모어 화자는 100%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85.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추측 표현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2년일 거야, 2년일 꺼야' 등으로 대답하였다. 설정된 상황에서는 지영이가 유학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원 학제를 알고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외에 추측 표현 '-(으)ㄹ걸'을 사용하여 '2년일걸, 2년일껄' 등으로 대답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는 지영이가 미국의 대학원이 2년인지 3년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추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 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만이 추측을 나타내는 '-겠-'을 사용하여 '2년이겠지'로 대답하였다. '-겠-'은 추측을 나타나고 '-지'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어미이므로 지영이가 미국의 대학원이 2년일 것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W1에 대한 재한 학습자의 정답률은 79.5%이다. '-(으)ㄹ 것이다'로 대답한 학습자가 30.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28.6%의 재한 학습자가 추측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2년인 것 같아, 2년인 거 같아, 2년인 것 같애' 등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중에 2명이 '2년일 것 같아'로 대답하였다. '2년인 것 같아' 등과 같은 대답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하였고 '2년일 것 같아'는 화자가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표현으로 인정하였다. 16.3%의 학습자가 '-(으)ㄹ걸'을 사용하여 '2년일걸'로 대답하였다. 그 외에 한 명씩 '-(으)ㄴ가 보다'를 사용하여 '2년인가 봐'로 대답하고 '-(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2년일지도 몰라'로 대답하였다. '2년인가 봐'는 지영이가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유학하는 상황을 보고 추측할 때 쓸 수 있다. '-(으)ㄹ지도 모르다'는 지영이가 아직 유학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학교와 전공에 따라 학제가 다를 수 있어서 미국의 대학원이 2년인지 3년인지 확실한 정보를 가지

59) '-(으)ㄹ 것이다'는 대표형으로 제시되었으며 주로 '-(으)ㄹ 거야', '-(으)ㄹ 꺼야' 등을 포함하였다.

60) '-(으)ㄹ걸'은 대표형으로 제시되었으며 '-(으)ㄹ 걸', '-(으)ㄹ껄' 등을 포함하였다.

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문항 W1에 대한 재중 학습자는 81.2%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적절한 표현의 양상을 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한 학습자가 62.5%를 차지하고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학습자의 대답은 주로 '2년인 거 같다', '2년인 거 같아', '2년인 거 같애'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으)ㄹ 것이다'는 10.4%(5회), '-(으)ㄹ걸'은 8.3%(4회)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답은 '2년일 거야'와 '2년일걸'이다.

문항 W1의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주로 '-(으)ㄹ 것이다', '-(으)ㄹ 걸'을 사용한 반면, 재한 학습자는 '-(으)ㄹ 것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중 학습자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아마'와 호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한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 문항은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항 W6은 서윤이가 지영이로부터 중국인 친구가 본명년(本命年)에는 빨간 옷을 입어야 운이 좋다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중국 문화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황이다.

[문항 W6]
지영: 중국인 친구가 본명년(本命年)에는 빨간 옷을 입어야 운이 좋다고 하더라.
서윤: 그래? 근데 본명년이 뭐야?
지영: 태어난 해랑 12간지가 같은 해라고 들었어.
서윤: 아...그렇구나. **아마** 그건 ⑥ _____.(중국 문화)

문항 W6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7>과 같다.

<표Ⅲ-7> 문항 W6의 답변 양상

문항 W6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한	**-(으)ㄴ가 보다**	**25**	**41.6%**	**5**	**10.2%**	**2**	**4.2%**
	-(으)ㄹ 것이다	**21**	**35.0%**	**10**	**20.4%**	**4**	**8.3%**
	-(으)ㄴ/는 것 같다	**10**	**16.7%**	**10**	**20.4%**	**12**	**25.0%**
	-겠-	2	3.3%	1	2.0%	-	-

표현	-(으)ㄹ지도 모르다	2	3.3%	-	-	-	-
	합계	60	100%	26	53.1%	18	37.5%
부적절한 표현		-	-	23	46.9%	30	62.5%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7>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41.6%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으)ㄴ가 보다'를 사용하여 '중국 문화인가 봐', '중국 문화인가 보네' 등으로 대답하여, 화자가 들은 정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본명년에 빨간 옷을 입는 것이 중국 문화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35.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중국 문화일 거야', '중국 문화일 꺼야' 등으로 대답하였다. Ⅱ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아마'는 '-(으)ㄹ 것이다'와 가장 많이 호응한다.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화자 서윤이가 지영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이 중국 문화일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추측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6.7%의 한국인 모어 화자는 '-(으)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여 '중국 문화인 것 같아', '중국 문화인 것 같애', '중국 문화에서 유래한 것 같아', '중국 문화에만 있는 거 같아' 등과 같이 대답하였다. '-(으)ㄴ/는 것 같다'는 화자의 주관적 추측을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제시된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두 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겠-'을 사용하여 '중국 문화의 일부겠지', '중국 문화이겠구나'로 대답하였다. 또한 두 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중국 문화에서 유래한 걸지도 몰라', '중국 문화일지도 몰라'로 대답하였다. 화자 서윤이가 지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이 '중국 문화'인 것이 확실한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 정도가 낮은 추측 표현 '-(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해 추측을 나타낸 것이다.

문항 W6에 대한 재한 학습자의 정답률은 53.1%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으)ㄴ가 보다'는 재한 학습자 사용 양상에서 10.2%(5회)만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인 대답은 '중국 문화인가 봐'로 나타났다. '-(으)ㄹ 것이다'와 '-(으)ㄴ/는 것 같다'가 20.4%(10회)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습자의 대답은 주로 '중국 문화일 거야'와 '중국 문화인 거 같아', '중국 문화에만 있는 거 같아' 등이다. 한 명만 '-겠-'을 사용하여 '중국 문화이겠지'로 대답하였다.

문항 W6에 대한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은 37.5%로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두 명의 학습자만 '-(으)ㄴ가 보다'를 사용하여 '중국 문화인가 봐'로 대답하였고 네 명의 학습자만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중국 문화일 거야'로 대답하였다. 적절한 표현에서 '-(으)ㄴ/는 것 같다'가 25.0%(12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구체적인 대답은 '중국 문화인 것 같다', '중국 문화인 것 같아', '중국 문화인 것 같애' 등이 있다.

정리하면 문항 W6의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주로 '-(으)ㄴ가 보다'와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였는데 재한 학습자는 '-(으)ㄹ 것이다'와 '-(으)/ㄴ/는 것 같다'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재중 학습자는 '-(으)/ㄴ/는 것 같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아마'와 호응하는 표현의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한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많이 사용한 표현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 문항은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항 W10은 지영이와 서윤이가 도서관에 가는 길에 어떤 남자를 본 다음 서윤이가 그 남자를 자기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본 이상한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상황이다.

[문항 W10]
지영이와 도서관에 가는 길에 서윤이가 맞은편에 오는 남자를 슬그머니 쳐다봅니다.
지영: 왜 그래?
서윤: 아니. 내가 도서관에서 이상한 사람 봤다고 했지.
지영: 어, 그래서?
서윤: **아무래도** 아까 ⑩ _____. (그 사람)
지영: 잘못 본 거 아니야?
서윤: 아니야, 키도 비슷한데...

문항 W10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8>과 같다.

<표Ⅲ-8> 문항 W10의 답변 양상

문항 W10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	**-(으)ㄴ/는 것 같다**	**51**	**85.0%**	**33**	**67.3%**	**30**	**62.5%**
	형용사	6	10.0%	3	6.1%	9	18.8%

한 표현	-(으)ㄴ가 보다	1	1.7%	2	4.1%	-	-
	-겠-	-	-	-	-	1	2.1%
	-(으)ㄹ 수 있다	-	-	-	-	1	2.1%
	합계	58	96.7%	38	77.5%	41	85.4%
부적절한 표현		2	3.3%	11	22.5%	7	14.6%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8>과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는 96.7%의 정답률을 보였다. 빈도가 가장 높은 표현은 '-(으)ㄴ/는 것 같다'이고 85.0%(51회)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대답은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맞는 거 같아', '그 사람 저기 있는 거 같아', '그 사람 본 것 같아' 등이 있다. 다음으로 형용사가 10.0%(6회)로 나타났고 '그 사람 같아'가 5회, '그 사람이 이상해'가 1회로 나타났다. Ⅱ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아무래도'는 '같다', '이상하다' 등과 같은 형용사와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 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으)ㄴ가 보다'를 사용하여 '그 사람인가 봐'로 대답하였다. 이는 화자 서윤이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일 것을 추측한 것이다.

문항 W10에 대한 재한 학습자의 정답률은 77.5%로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표현에서 '-(으)ㄴ/는 것 같다'가 67.3%(33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 같아' 등의 대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형용사 '이상하다'와 '비슷하다'로 대답한 경우는 6.1%를 차지하였으며 '그 사람이 이상해'는 2회, '그 사람랑 비슷해'는 1회로 나타났다. '-(으)ㄴ가 보다'는 2회로 4.1%를 차지하였다.

문항 W10에 대한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은 85.4%로 나타났다. 적절한 표현에서 '-(으)ㄴ/는 것 같다'는 62.5%(30회)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형용사는 총 9회로 18.8%를 차지하였으며 '그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사람과 같아', '그 사람랑 비슷해', '그 사람과 너무 닮아'는 각각 1회씩, '그 사람이 이상해'는 3회로 나타났다.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그 사람일 수 있어'로 대답한 학습자와 '-겠-'을 사용하여 '그 사람이겠다'로 대답한 학습자가 각각 한 명씩 있었다. '-(으)ㄹ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문항 W10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았고 '-겠-'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인정하였다.

문항 W10의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으)ㄴ/는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대답 양상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답하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으)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와 그에 맞는 호응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으며 중국인 학습자, 특히 재중 학습자가 상황과 상관없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으)ㄹ 수 있다'를 선호하는 양상

문항 W3은 지영이와 서윤이가 학점에 대하여 이야기고 있으며 서윤이가 다음 학기에 3과목을 더 들어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황이다.

[문항 W3]
지영: 하하! 난 이번학기에 수업을 하나만 들으면 학점을 다 채울 수 있어.
서윤: 좋겠다. 난 9학점이나 더 따야 돼.
난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 3과목을 더 들어야 ③ _____.(졸업하다)

문항 W3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9>와 같다.

<표Ⅲ-9> 문항 W3의 답변 양상

문항 W3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한 표현	**-(으)ㄹ 것 같다**	**49**	**81.7%**	**3**	**6.1%**	**12**	**25.0%**
	-겠-	6	10.0%	6	12.2%	6	12.5%
	-(으)ㄹ 것이다	5	8.3%	5	10.2%	6	12.5%
	-(으)ㄹ 수 있다	**-**	**-**	**30**	**61.2%**	**20**	**41.6%**
	-(으)ㄹ걸	-	-	1	2.0%	-	-
	합계	60	100%	45	91.8%	44	91.6%
부적절한 표현		-	-	4	8.2%	4	8.4%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9>와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두 적절한 표현으로 대답하였으

며 적절한 표현 중에서 '-(으)ㄹ 것 같다'가 8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중에서 '졸업할 것 같다'가 10회로 나타냈으며 '-(으)ㄹ 것 같다'와 '-(으)ㄹ 수 있다'가 결합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9회로 나타났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으)ㄹ 것 같다'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 '-(으)ㄹ 수 있다'가 결합한 표현 '-(으)ㄹ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므로 문항 W3의 상황에 적절하다. 다음으로 '졸업하겠다'(1회), '졸업할 수 있겠다'(5회)와 같이 '-겠-'을 사용하여 대답한 경우가 10.0%(6회)를 차지했다. 그리고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 '졸업할 수 있을 거야'가 8.3%를 차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시된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으)ㄹ 수 있다'만 사용하기보다는 '-(으)ㄹ 수 있다'를 추측 표현 '-(으)ㄹ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달리 재한 학습자는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졸업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으)ㄹ 것 같다'가 3회로 6.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로 나타났다. '-겠-'을 사용하여 '졸업할 수 있겠다'로 대답한 경우가 6회로 12.2%를 차지하였다. '-(으)ㄹ 것이다'는 5회로 10.2%를 차지하였으며 '졸업할 거야'는 1회, '졸업할 수 있을 거야'는 4회로 나타났다. '-(으)ㄹ걸'을 사용한 '졸업할 수 있을 걸'이 1회로 나타났다.

문항 W3에 대한 재중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는 '-(으)ㄹ 수 있다'가 20회로 41.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으)ㄹ 것 같다'가 12회로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할 것 같아'는 1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는 11회로 나타났다. '-겠-'은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하겠어' 2회, '졸업할 수 있겠다' 3회, '졸업할 수 있겠지' 1회로 나타났다.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 '졸업할 거야'가 6회로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항 W3의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으)ㄹ 수 있다'만을 사용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주로 '-(으)ㄹ 수 있다'와 추측 표현 '-(으)ㄹ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결합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는 '-(으)ㄹ 수 있다'만 사용하여 '-(으)ㄹ 수 있다'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표현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해체 의문형 어미 '-아/어?'를 선호하는 양상

문항 W5는 지영이와 서윤이가 연예인 뉴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서윤이는 그 연예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그것을 반어 의문문으로 표현한다.

[문항 W5] 지영은 ㅇㅇ연예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뉴스를 본 후 서윤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영: ㅇㅇ가 어제 또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대. 서윤: 진짜? **설마** 걔 진짜 그런 ⑤ _____ ? (짓을 하다) 지영: 모르겠어. 곧 밝혀지겠지.

문항 W5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Ⅲ-10> 문항 W5의 답변 양상

문항 W5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한 표현	**-(으)ㄹ까**	**15**	**25.0%**	**2**	**4.1%**	**-**	**-**
	-아니겠지?	**12**	**20.0%**	**1**	**2.0%**	**2**	**4.2%**
	-야	**12**	**20.0%**	**6**	**12.2%**	**3**	**6.3%**
	-겠-	**9**	**15.0%**	**-**	**-**	**1**	**2.1%**
	-아니야	3	5.0%	1	2.0%	2	4.2%
	-니	2	3.3%	2	4.1%	1	2.1%
	-했다고	1	1.7%	-	-	-	-
	-아/어	**-**	**-**	**13**	**26.5%**	**21**	**43.8%**
	-나	-	-	3	6.1%	1	2.1%
	-(으)ㄹ 것이다	-	-	1	2.0%	1	2.1%
	-(으)ㄴ가	-	-	1	2.0%	-	-
	-냐	-	-	1	2.0%	-	-
	합계	54	90.0%	31	63.2%	32	66.7%
부적절한 표현		6	10.0%	18	36.8%	16	33.3%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10>과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는 정답률이 90.0%였으며 적절한 표현 중 '-(으)ㄹ까'를 사용하여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했을까?'로 대답한 한국인 모어 화자가 2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겠지?'가 12회로 20.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한

거야?'가 같은 비율인 20.0%로 나타났다. 이어서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했겠어?'가 9회로 15.0%를 차지하였다. '설마 그런 짓을 했니?'가 2회로 나타났다. 이상 제시된 사용 양상은 화자는 그 연예인이 그런 짓을 안 했다고 믿기에 그것을 반어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이다.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야?'는 3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답변과는 달리 그 연예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반어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마 그런 짓을 했다고'는 1회로 나타났다. 이는 '설마'가 상황에 대한 의심이나 놀라움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고'가 놀람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W5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다.

문항 W5에 대한 재한 학습자는 63.2%의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학습자의 적절한 표현으로는 '설마 그런 짓을 했어'가 가장 큰 비율인 26.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설마 그런 짓을 한 거야'가 6회로 12.2%를 차지하였으며 '설마 그런 짓을 했을까'는 3회로 6.1%만을 차지하였다. '설마 그런 짓을 했을까'와 '설마 그런 짓을 했니'도 각 2회씩 나타났으며 '설마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짓을 했을 거야', '설마 그런 짓을 한건가', 와 '설마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야'는 각각 1회로 나타났다.

문항 W5에 대한 재중 학습자는 66.7%의 정답률을 보였다. 적절한 표현으로는 '설마 그런 짓을 했어'가 가장 높은 비율인 43.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설마 그런 짓을 한 거야?'가 3회, '설마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겠지?'와 '설마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야?'가 각각 2회로 나타났다.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 '설마 그런 짓을 했겠니?', '설마 그런 짓을 했을 거야'는 각각 1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한 학습자 및 재중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설마'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는 상황에 대하여 심리적 태도를 분명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인 학습자는 단순히 해체 의문문 어미 '-아/어'로 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항 W7은 지영이와 서윤이가 자주 갔던 파스타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윤이가 지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집이 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그것을 의문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문항 W7] 지영, 서윤, 소라가 토요일 11시에 강남역 커피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라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첫 모임입니다.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지영과 서윤이 내일 약속에 대한 대화입니다. 지영: 내일 점심 뭐 먹을까? 서윤: 지난번에 갔던 그 파스타 집에 갈까? 지영: 아, 거기...근데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던데. 간판도 없어졌어. 서윤: **설마** ⑦ _____ ? (망하다) 지영: 그럴 수도 있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서윤: 난 아무거나 괜찮아, 소라 만나고 나서 결정해도 돼.

문항 W7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Ⅲ-11> 문항 W7의 답변 양상

문항 W7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한 표현	**-나**	**21**	**35.0%**	**3**	**6.1%**	**2**	**4.2%**
	-건 아니야	**13**	**21.7%**	**2**	**4.1%**	**3**	**6.3%**
	-건 야	**10**	**16.7%**	**2**	**4.1%**	**1**	**2.1%**
	-건가	5	8.3%	-	-	1	2.1%
	-(으)ㄹ까	4	6.7%	-	-	1	2.1%
	-건 아니겠지	4	6.7%	1	2.0%	1	2.1%
	-겠-	2	3.3%	1	2.0%	-	-
	-아/어	**1**	**1.7%**	**20**	**40.8%**	**29**	**60.4%**
	-냐	-	-	1	2.0%	-	-
	-니	-	-	1	2.0%	-	-
	-(으)ㄹ 것이다	-	-	1	2.0%	-	-
	합계	60	100%	32	65.3%	38	79.2%
부적절한 표현				17	34.7%	10	20.8%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11>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두 적절한 표현으로 대답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상은 '-나'를 사용한 '설마 망했나'이고 35.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설마 망한 건 아니야'가 21.7%를 차지하였으며 이의 반대로 표현하는 '설마 망한건 야'가 16.7%를 차지하였다. '설마 망한건가'는 5회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마 망했을까'와 '설마 망한건 아니겠지'는 각각 4회로 6.7%를 차지하였다. '설마 망했겠어'가 2회로 나타났으며 '설마 망했어'는 1회만 나타났다.

문항 W7에 대한 재한 학습자는 65.3%의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인 모어 화

자와 달리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용 양상은 '-아/어'로 '설마 망했어'이고 40.8%를 차지하였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나'는 재한 학습자 사용 양상에서 3회만 나타났다. '설마 망한 건야'와 '설마 망한 건 아니야'가 각각 2회로 나타났으며 '설마 망한 건 아니겠지', '설마 망했겠어', '설마 망했냐', '설마 망했니', '설마 망했을 거야'가 각각 1회로 나타났다.

문항 W7에 대한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은 79.2%로 나타났다. 60.4%의 중국인 학습자가 '-아/어'를 사용하여 '설마 망했어'로 대답하였다. 이는 한국인 모어 화자 사용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나'를 사용한 '설마 망했나'는 재중 학습자 사용 양상에 2회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가 모두 해체 의문문 어미 '-아/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4) 기타 차이를 보이는 사용 양상

문항 W9의 상황은 W8 상황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지영이가 흰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소라인지 추측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직 지영이와 서윤이 앞에 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소라일 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혹시'로 불확실한 추측을 한다. 이때는 화자가 그 사람이 소라인 것을 기대하는 심리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문항 W9]
토요일 11시20에 소라와 닮은 여자가 지영이와 서윤이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지영: 저기 흰 원피스를 입은 애,
혹시 ⑨ _____ ? (소라)
서윤: 응, 소라인가 봐. 많이 예뻐졌네.
지영: 어, 못 알아볼 뻔했어.
소라: 지영아, 서윤아, 오랜만이야.

문항 W9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Ⅲ-12> 문항 W9의 답변 양상

문항 W9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한 표현	**-아니야?**	**36**	**60.0%**	**15**	**30.6%**	**13**	**27.1%**
	-야?	**4**	**6.7%**	**18**	**36.7%**	**17**	**35.4%**
	-아니니?	9	15.0%	1	2.0%	-	-
	-니?	2	3.3%	1	2.0%	-	-
	-아닌가?	2	3.3%	2	4.1%	5	10.4%
	-(으)ㄴ가?	6	10.0%	7	14.3%	6	12.5%
	-(으)ㄹ까	1	1.7%	-	-	2	4.2%
	-아/어	-	-	3	6.1%	-	-
	-(으)ㄹ 것이다	-	-	1	2.0%	-	-
	-(으)ㄴ/는 것 같다	-	-	-	-	2	4.2%
	합계	60	100.0%	48	98.0%	45	93.7%
부적절한 표현				1	2.0%	3	6.3%
합계		60	100%	49	100%	48	100%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위 <표Ⅲ-12>와 같이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인 대답은 '혹시 소라 아니야?'가 36회(60.0%), 그의 반대되는 형태인 '혹시 소라야'가 4회(6.7%)만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부정 형태인 '소라 아니야'로 '소라인 것'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혹시 소라 아니니'가 9회(15.0%), 그의 반대되는 형태인 '혹시 소라니'가 2회(3.3%)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 소라 아닌가'는 2회(3.3%)만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의 반대되는 형태인 '혹시 소라인가'가 6회(10.0%)의 빈도를 나타냈다.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까'를 사용하여 '혹시 소라일까'로 대답하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한 명이 있었다.

재한 학습자는 높은 정답률인 9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혹시 소라 아니야'가 15회(30.6%), 그의 반대되는 형태인 '혹시 소라야'가 18회(36.7%)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혹시 소라 아니니'와 '혹시 소라니'는 각각 1회로 나타났다. '혹시 소라 아닌가'가 2회(4.1%), '혹시 소라인가'가 7회(14.3%)의 빈도를 나타내며 이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소라 맞아?'로 대답하는 학습자가 3명(6.1%)이 있는데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물음표로 표시되므로 화자가 그 사람이 소라 맞느냐 서윤에게 질문을 한다. 추측 표현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혹시 소라 일 거야'로 대답하는 학습자가 한 명이 있다.

문항 W9에 대한 재중 학습자는 높은 정답률인 97.9%를 차지하고 있다. 적

절한 표현으로는 ‘혹시 소라 아니야’가 13회(27.1%), 그의 반대되는 형태인 ‘혹시 소라야’가 17회(35.4%)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혹시 소라 아닌가’가 5회(10.4%), ‘혹시 소라인가’가 6회(12.5%)의 빈도를 나타냈다. ‘-(으)ㄹ까’를 사용하여 ‘혹시 소라일까’로 대답하는 경우가 4.2%(2회)를 차지하였다. 추측 표현 ‘-(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소라인 것 같애’와 ‘소라인 것 같아’는 화자가 현재 보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냈다.

제시된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혹시 소라 아니야’와 같은 부정 의문문으로 ‘소라인 것’을 확인하여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혹시 소라 아니야’와 ‘혹시 소라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1.2. 오류 양상의 분석

오류 분석은 학습자가 제2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여 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코더(Corder, 1967)는 학습자의 오류가 중요한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혔다. 첫째, 오류는 교사에게 학습자가 학습 대상 언어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둘째, 오류는 연구자에게 학습자가 어떤 전략과 절차를 사용하여 언어를 학습하고 습득하는지를 알려 주는 증거가 된다. 셋째, 오류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되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인이다. 학습자는 오류를 통해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설정한 학습 대상 언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다(허용·김선정, 2014:12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 표현을 사용하는 데 발생한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내서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구축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있어 왔다. 고석주 외(2004)에서는 어휘 오류, 문법 오류, 철자 오류와 오류의 혼합[61]의 총 네 가지로 오류 유형을 제시하였다. 문법 오류의 하위분류인 어미 오류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표Ⅲ-13>과 같다.[62]

---

61) 오류의 혼합은 어휘 오류, 문법 오류, 철자 오류 세 가지로 판단이 어렵거나 여러 오류가 혼합되어 있는 오류를 말한다.

62)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 표현의 관한 오류는 주로 어미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미

<표Ⅲ-13> 고석주(2004)의 어미 오류에 대한 분류

어미 오류	시제 어미	어미의 생략, 다른 시제 어미로 잘못 쓴 오류, 형태론적인 오류
	존대 어미	어미의 생략, 어미를 잘못 씀
	연결 어미	어미의 생략, 다른 연결 어미로의 대치, 연결 어미의 중복적인 첨가, 다른 어미로의 환언, 형태론적인 오류
	종결 어미	어미의 생략, 다른 종결 어미로의 대치, 종결 어미의 중복적인 첨가, 다른 어미로의 환언, 형태론적인 오류
	전성 어미	어미의 생략, 다른 전성 어미로의 대치, 전성 어미의 중복적인 첨가, 다른 어미로의 환언, 형태론적인 오류

본고는 고석주 외(2004)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여 실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고려하여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 표현의 오류를 시제 어미 오류, 연결 어미 오류, 종결 어미 오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 표현의 오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혹시나'가 '하다'와 호응하는 용법을 알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문항 Q13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제 어미 오류

오류 (32), (33)은 학습자가 시제나 시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32) 가. 설마 개 진짜 그런 짓을 해? (CK: 3회; CC: 4회)[63]
나.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CK: 1회)
다.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야? (CK: 1회)
라. 설마 망해? (CK: 2회; CC: 1회)
마. 설마 망하는 거야? (CK: 3회; CC: 4회)
(33) 가. 설마 개 진짜 그런 짓을 할 거야? (CK: 5회; CC: 2회)
나. 설마 걔 진짜 그런 짓을 하겠어? (CK: 4회; CC: 2회)
다. 설마 망할 거야? (CK: 6회; CC: 2회)

오류의 유형만 제시한다.

63) 기술의 편의를 위해 재한 학습자를 CK(Chinese in Korea)로 칭하고 재중 학습자를 CC(Chinese in China)로 칭한다.

라. 설마 망할 것 같아? (CK: 1회; CC: 2회)

오류 (32가-다)와 오류 (33가-나)는 '설마'에 관한 문항 W5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32라-마)와 오류 (33다-라)는 '설마'에 관한 문항 W7에서 발견된 오류들이다

오류 (32)에서 '-아/어', '-는 거야', '-는 건 아니야'는 모두 현재 시제로 대답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문항 W5에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야 되고, 문항 W7에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파스타집이 과거에 망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나태내야 된다. 즉 문항 W5와 문항 W7은 모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대답해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오류 (32)와 같은 현재 시제로 대답하는 표현은 해당 문항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류 (33)은 '-(으)ㄹ 것이다', '-겠-', '-(으)ㄹ 것 같다' 등과 같이 미래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 것으로 문항 W5와 문항 W7의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다.

시제 오류는 재한 학습자가 총 26회, 재중 학습자가 총 17회로 나타났는데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측 양태부사는 상황과 맥락 의존도가 높은 부사이므로 학습자가 상황이 발생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인다.

(2) 연결 어미 오류

오류 (34)는 문항 W8[64]에서 발견된 오류로 공통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표

64) 문항 W8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W8] 토요일 11시에 강남역 커피빈에서 지영: 왜 우산을 들고 왔어? 서윤: 아침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비가 온대. **혹시** ⑧ _____(비가 오다) 우산 가져왔어. 너 안 가져 왔으면 이따 같이 쓰자.

문항 W8에서 지영이는 서윤이가 우산을 가져온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서윤이가 아침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우산을 가져왔다고 대답하였지만 지영이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아 실제로는 비가 올 날씨

현으로 대답하였다.

(34) 가. 혹시 비가 와서 (CK: 2회; CC: 2회)
나. 혹시 비가 오니까 (CK: 1회; CC: 2회)
다. 혹시 비가 오기 때문에 (CC: 1회)

『표준』에 따르면 '-아/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 등과 같은 표현은 앞선 행위나 상태가 원인이나 이유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류 (35)에서 '-아/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를 사용하여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는 모두 비가 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 하지만 문항 W8의 상황에서는 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올 수 있는 것이 우산을 가져온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아/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 등을 사용하려면 '혹시 비가 올지도 몰라서',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나는 표현과 결합하여 대답해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오류 (35)는 문항 W8에서 발견된 오류로 공통적으로 학습자가 '-(으)ㄹ 터이다'를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35) 가. 혹시 비가 올 텐데 (CK: 2회; CC: 1회)
나. 혹시 비가 올 테니 (CC: 1회)

『표준』에 따르면 '-(으)ㄹ 터이다'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지만 그 뒤에는 주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나 반대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으)ㄹ 터이다'를 사용하려면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와 같이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W8의 상황에서 '우산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므로 '혹시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져왔어', '혹시 비가 올 테니 우산 가져왔어'는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대답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곧 문항 W8은 비가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혹시'는 이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쓰여 화자의 걱정을 나타내면서 추측할 때에 사용된다. 문항 W8의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적절한 표현은 주로 '혹시 비가 올까 봐', '혹시 비가 올지 몰라서' 등과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으로 판단하였다.

(3) 종결 어미 오류

① 누락 오류

오류 (36)은 학습자가 추측 표현을 사용하는 데 표현의 일부를 누락해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36) 가. 아마 2년이걸. (CK: 2회)
나. 아마 2년이 돼걸. (CC: 1회)
다. 아마 2년 것 같아. (CC: 2회)
라. 아마 중국문화가 봐. (CC: 1회)

오류 (36가-다)는 '아마'에 관한 문항 W1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36라)는 '아마'에 관한 문항 W6에서 발견된 오류이다.

오류 (36가-나)는 추측 표현 '-(으)ㄹ걸'에 관한 오류인데 학습자가 '걸'만 사용하여 '-(으)ㄹ'가 빠진 형태인 '아마 2년이걸', '아마 2년이 돼걸'로 대답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오류 (36다)는 추측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관한 오류인데 학습자가 '-(으)ㄴ/는/-(으)ㄹ' 부분을 생략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오류 (36라)는 추측 표현 '-(으)ㄴ가 보다'에 관한 오류인데 학습자가 '-(으)ㄴ' 부분을 생략하여 '아마 중국문화가 봐'로 대답하여 범한 오류이다.

이러한 누락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미가 발달한 한국어는 형태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미를 생략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어미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이런 한국어의 특성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에 학습자가 한국어의 어미를 사용할 때 누락 오류를 범할 수 있다.

② '-(으)ㄴ/는 것이다'로의 대치

대치 오류는 누락 오류에 비해 오류 빈도가 높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오류 (37)은 학습자가 추측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확신을 나

타내는 표현 '-(으)ㄴ/는 것이다'[65]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37) 가. 아마 2년인거야. (CC: 2회)
나. 아마 중국 문화인거야. (CK: 2회)

오류 (37가)는 '아마'에 관한 문항 W1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37나)는 '아마'에 관한 문항 W6에서 발견된 오류이다.

오류 (37가)의 '2년인거야'는 2년인 것으로 단정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문항 W1에서 지영이가 미국의 대학원 2년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내타내는 표현 '2년일 거야'를 사용해야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호응할 수 있다. 오류 (37나)의 '중국 문화인거야'는 중국 문화인 것으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표현이다. 그러나 문항 W6에서는 서윤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것이 중국 문화인 것으로 확실히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문화인거야'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오류 (37)은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모두 각각 2회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소수의 학습자는 형태가 유사한 표현 '-(으)ㄴ/는 것이다'와 '-(으)ㄹ 것이다'를 구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③ '-(으)ㄴ/는지(도) 모르다'로의 대치

다음으로 오류 (38)은 학습자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실을 모르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으)ㄴ/는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38) 가. 아무래도 그 사람인지 몰라. (CK: 1회; CC: 1회)
나. 어쩌면 취직하는지 몰라. (CK: 1회; CC: 1회)
다. 어쩌면 30대 미만인지도 몰라. (CK: 1회)
라. 어쩌면 30대인도/이신도 몰라. (CK: 2회; CC: 5회)

오류 (38가)는 '아무래도'에 관한 문항 W10에서 발견된 오류이며, 오류 (38

65) 『표준』에 따르면 '-(으)ㄴ/는 것이다'는 화자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나)는 '어쩌면'에 관한 문항 W2[66]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38다-라)는 '어쩌면'에 관한 문항 W4[67]에서 발견된 오류이다.

오류 (38가)의 '그 사람인지 몰라'는 서윤이가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본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을 모른다는 뜻이다. 즉 단순히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뜻으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문항 W10에서 서윤이는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확실하지 못해서 추측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대답 '그 사람인지 몰라'는 추측 양태부사 '아무래도'와 호응하지 않는다.

오류 (38나)의 '취직하는지 몰라'는 단순히 미국에서 취직하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항 W2는 지영이가 아직 미국에 유학가지 않아서 거기서 취직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대답 '취직하는지 몰라'는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과 호응하지 않는다.

오류 (38다-라) '30대 미만인지도 몰라', '30대인도 몰라', '30대이신도 몰라'

---

66) 문항 W2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W2]
서윤: 2년 후는? 대학원 졸업한 후에 미국에 계속 있을 거야?
지영: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쩌면 미국에서 ② _____.(취직하다)

문항 W2에서는 지영이와 서윤이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영이가 아직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취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항 W2에 대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는 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어쩌면 미국에서 취직할지도 몰라'로 대답하였다.

67) 문항 W4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W4]
지영이와 서윤이는 학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는 식당 앞에서 서윤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영: 아까 그분은 누구셔?
서윤: 어, 우리 문화론 수업 교수님이셔.
지영: 되게 젊어 보이신다.
서윤: 하하, **어쩌면** ④ _____.(30대)

문항 W4는 서윤과 지영이가 문화론 수업 교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서윤이가 교수님의 나이를 몰라서 30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문항 W4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적절한 표현은 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어쩌면 30대일지도 몰라', '어쩌면 30대이실 지도 몰라'로 나타났다.

는 모두 30대인 것을 모른다는 뜻으로 나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문항 W6은 서윤이가 교수님의 나이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오류 (38다-라)와 같은 대답은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과 호응하지 않는다.

오류 (38)은 재한 학습자가 총 5회, 재중 학습자가 총 7회로 나타났는데 형태가 유사한 표현 '-(으)ㄴ/는지도 모르다'와 '-(으)ㄹ지도 모르다'를 학습자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대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단순 사실을 서술하는 문법 요소로의 대치

오류 (39)는 공통적으로 추측을 나타내지 않고 사실을 서술하는 종결 어미 '-야'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39) 가. 아마 2년이야. (CK: 4회; CC: 5회)
나. 아마 중국 문화야. (CK: 9회; CC: 8회)
다. 아마 중국 문화 때문이야. (CK: 1회; CC: 1회)
라. 아마 중국 문화의 특별한 점이야/현상이야/풍습이야. (CC: 3회)
마. 어쩌면 (진짜) 30대야. (CK: 8회; CC: 3회)
바. 어쩌면 30대의 젊은 사람이야. (CK: 1회)

오류 (39가)는 '아마'에 관한 문항 W1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39나-라)는 '아마'에 관한 문항 W6에서 발견된 오류이며, 오류 (39마-바)는 '어쩌면'에 관한 문항 W4에서 발견된 오류이다.

오류 (39가)의 '2년이야'는 2년인 것을 서술할 뿐이다. 하지만 문항 W1에서 지영이가 미국의 대학원 2년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내타내는 표현이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호응할 수 있다. 따라서 '2년이야'는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호응하지 않는다.

오류 (39나-라)의 '중국 문화야', '중국 문화 때문이야', '중국 문화의 특별한 점이야', '중국 문화의 특별한 현상이야', '중국 문화의 특별한 풍습이야'는 그것을 중국 문화인 것으로 단정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문항 W6에서 서윤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것이 중국 문화인 것으로 확실히 단정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대답은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호응하지 않는다.

오류 (39마-바)의 '(진짜)30대이야', '30대의 젊은 사람이야'는 30대인 것을 서술할 뿐이고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다. 앞서 분석했듯이 문항 W4의 상황에서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하므로 오류 (39마-바)와 같은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오류 (39)는 재한 학습자가 23회, 재중 학습자가 20회로 나타났는데 다른 오류의 빈도와 비교했을 때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추측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서술하는 표현 '-야'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류 (40)은 공통적으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서술격 조사 '이다'로 대답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40) 가. 아마 2년이다. (CK: 1회; CC: 1회)
나. 아마 중국 문화이다. (CK: 5회; CC: 8회)
다. 아마 중국 문화 관한 것이다. (CC: 1회)
라. 어쩌면 30대이다/이신다. (CK: 5회; CC: 9회)
마. 어쩌면 30대로 보인다. (CC: 1회)

오류 (40가)는 '아마'에 관한 문항 W1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40나-다)는 '아마'에 관한 문항 W6에서 발견된 오류이며, 오류 (40라-마)는 '어쩌면'에 관한 문항 W4에서 발견된 오류이다.

『표준』에 따르면 '-이다'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앞서 분석했듯이 문항 W1, W4, W6의 상황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야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어쩌면'과 호응할 수 있다. 오류 (40)과 같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사용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오류(40)은 재한 학습자 총 11회, 재중 학습자가 총 20회로 나타났는데 오류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추측 표현이 아닌 서술격 조사 '-이다'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오류 (41)은 공통적으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해체의 종결 어미 '-아/어'를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41) 가. 아마 2년 후에 끝나. (CK: 1회)
나.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 3과목을 더 들어야 졸업해. (CK: 2회; CC: 2회)
다.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 3과목을 더 들어야 졸업해야 돼. (CK: 1회; CC: 2회)
라. 어쩌면 30대이셔. (CK: 5회; CC: 6회)
마. 어쩌면 30대로 보이셔. (CK: 1회; CC: 2회)
바. 어쩌면 30대 넘으셨어. (CK: 2회; CC: 1회)
사. 어쩌면 30대 사이에 젊어 보여. (CK: 1회)
아. 어쩌면 30대 사람처럼 보여. (CC: 1회)
자. 어쩌면 30대도 안됐어. (CK: 1회; CC: 1회)

오류 (41가)는 '아마'에 관한 문항 W1에서 발견된 오류이고, 오류 (41나-다)는 '아무래도'에 관한 문항 W3에서 발견된 오류이며, 오류 (41라-자)는 '어쩌면'에 관한 문항 W4에서 발견된 오류이다.

『표준』에 따르면 '-아/어'는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추측의 의미가 없다. 앞서 분석했듯이 문항 W1, W3, W4는 모두 화자가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류 (41)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서술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오류 (41)의 빈도는 재한 학습자 총 14회로, 재중 학습자 총 15회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추측 표현이 아닌 사실을 서술하는 표현 '아/어'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상의 오류 (39)의 종결 어미 '-야', 오류 (40)의 서술격 조사 '-이다', 오류 (41)의 해체 종결 어미 '-아/어'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사실을 서술하는 표현이므로 같은 오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오류 (39), (40), (41)과 같은 사실을 서술하는 대답은 재한 학습자가 총 48회로, 재중 학습자가 총 55회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인터뷰 참여자 CK1[68])>

연구자: 你能说说你为什么这样'아마 2년이야'回答吗?
(왜 '아마 2년이야'로 대답했어요?)
CK1: '大概两年'嘛, 她们两个是好朋友, 所以就用'야', 意思上也挺通顺的。
('대개 2년이다'는 뜻이죠. 둘이 친한 친구라서 '-야'를 사용하는 거요. 의미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데.)
연구자: 那你是觉得意思通顺了就对了?
(그러면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문장 완성한 거예요?)
CK1: 嗯。这样就能表达自己想表达的了。
(네. 이렇게 쓰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연구자: 第六题你填的是'아마 중국 문화때문이야', 能说说你是怎么想的吗?
(문항 W6에서 '아마 중국 문화 때문이야'로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K1: '可能是因为中国文化', 表达说话人的推测。
('아마 중국 문화때문일 것이다'.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요.)
연구자: 那你觉得表示推测的意思是由这个句子的哪一部分实现的呢?
(추측의 의미는 이 문장의 어떤 부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CK1: '아마'吧, '아마'就是'可能'的意思, 表示推测。
('아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는 '可能'의 뜻이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요.)

<인터뷰 참여자 CC6>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这样回答? '아마 2년이야'
(왜 '아마 2년이야'로 대답했어요?)
CC6: 就是要表达'可能是两年'的意思。('2년일 것이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어요.)
연구자: 第四题你填的是'어쩌면 30대이셔'能说一下原因吗?
(문항 W4에서 왜 '어쩌면 30대이셔'로 대답했어요?)
CC6: '30多岁也说不定呢', 然后对老师要用表示尊敬的'시'。
('30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시'를 썼어요.)
연구자: 那你认为'어쩌면'在这是表示什么意思呢?
('어쩌면'은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CC6: 表示说话人的猜测吧。(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참여자 CK1과 CC6과 마찬가지로, 많은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추측 양태부사가 추측을 나타낼 때 추측

68) 인터뷰 참여자의 정보는 본고의 부록2 참조

표현과 호응하는 특성을 습득하지 못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학습자는 문장에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추측 양태부사이고 추측 표현이 없이 추측 양태부사만으로 문장의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는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할 때 추측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답하는 원인이 된다.

⑤ 기타 문법 표현으로의 대치

다음 오류 (42)는 '어쩌면'에 관한 문항 W4에서 발견된 오류이며 공통적으로 '어쩌면 -면 좋겠다'는 문형을 사용하여 범한 오류이다.

(42) 가. 어쩌면 취직했으면 좋아/좋다. (CK: 3회; CC: 3회)
나. 어쩌면 취직했으면 좋을 텐데. (CK: 1회; CC: 1회)
다. 어쩌면 취직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 (CC:1회)
라. 어쩌면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더)좋겠어. (CK: 2회; CC: 1회)

학습자는 '어쩌면 -(으)면 좋겠다'의 문형으로 대답하였으나 문항 W4에서는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으)면 좋겠다'와 같이 소원을 표현하는 대답은 적절하지 못하다. '어쩌면 -(으)면 좋겠다'의 문형으로 대답한 학습자가 적지 않아서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CK9>
연구자: 情景的最后一句'어쩌면 미국에서 취직하면 더 좋겠다'.
你这样回答的，你想表达什么意思呢？
(이 상황에서 '어쩌면 미국에서 취직하면 더 좋겠다'로 대답한 이유를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K9: 如果能在美国找到工作当然更好咯。
(미국에서 취직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연구자: 你认为'어쩌면'是什么意思？ ('어쩌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CK9: 其实具体的不太知道，就是根据上下文填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지만 앞뒤 맥락을 봐서 대답했어요.)
연구자: 我看你填的答案，你觉得'어쩌면'是'如果'的意思吗？
(대답을 보니까 '어쩌면'을 '如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CK9: 嗯...好像是吧 (네...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你在韩语书上学过这个词吗？用它造过句吗？

(교재에서 '어쩌면'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어쩌면'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CK9: 不太记得了，好像没有学过，感觉比较陌生。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배운 것 같아요, 자주 본 단어가 아니에요.)

<인터뷰 참여자 CC10>

연구자: 这道题里面，你是这样填的吧？'어쩌면 취직했으면 좋아.'

你能说说你这样回答的理由吗？

(이 문항에서 '어쩌면 취직했으면 좋아'로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C10: 前面问如果研究生毕业，会继续待在美国吗？

另一个人说虽然没有仔细想过，但是希望能够在美国就业。

(앞에서 대학원 졸업 후 미국에 계속 있을 거냐고 물었잖아요. 지영이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취직하기 원해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면 이 상황과 부합할 수 있어요.

연구자： 那你知道'어쩌면'是什么意思吗？ ('어쩌면'의 뜻을 알고 있어요?)

CC10: 是表示'假设'的意思的吗？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연구자： 你为什么觉得'어쩌면'是假设的意思呢？你在书上学过这个词吗？

(왜 '어쩌면'을 가정의 의미로 생각해요? 교재에서 이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CC10: 看到有'면'，所以觉得应该跟那个'-면'有点联系吧。好像没有学过。

('면'이 있으니까요, '어쩌면'의 '면'이 '-(으)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배운 것 같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학습자는 '어쩌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여 '어쩌면'과 호응하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가 '어쩌면'의 '면'을 보고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 '-(으)면'을 연상하여 '어쩌면'의 의미를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인식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4). '혹시나'에 관한 오류

마지막 '혹시나'가 '하다'와 호응하는 용법을 알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문항 Q13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항 Q13은 지영이와 서윤이가 도서관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지영이가 서윤이에게 중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물었다. 서윤이는 취직 준비를 위해 중국어 자격증을 따면 취직할 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미리 중국어 시험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다.

[문항 Q13]
지영이와 서윤이가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영: 중국어 책을 왜 그렇게 많이 빌렸어?
서윤: 중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
지영: 왜 중국어 시험을 봐?
서윤: (　　⑤　　) 해서. 내년에 졸업할 건데 취직 준비를 미리 해야지.
A.어쩌면　　B.설마　　C.혹시라도　　D.혹시나

문항 Q13은 통사적으로 보면 '혹시나'와 '하다'는 자주 결합하며, '혹시라도'는 '혹시'를 강조하는 말로 '하다'와 결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에 '혹시나'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이다.

문항 Q13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14>와 같다.

<표Ⅲ-14> 문항 Q13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어쩌면	0	0.0%	7	14.3%	12	25.0%
B.설마	0	0.0%	0	0.0%	0	0.0%
C.혹시라도	1	1.7%	27	55.1%	25	52.1%
D.혹시나	**59**	**98.3%**	**15**	**30.6%**	**11**	**22.9%**
합계	60	100.0%	49	100.0%	48	100.0%

위 <표Ⅲ-14>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98.3%가 '혹시나'를 선택하였다.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이 각각 30.6%와 22.9%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모두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55.1%의 재한 학습자와 52.1%의 재중 학습자가 '혹시라도'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혹시나'와 '혹시라도'의 용법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혹시나'와 '혹시라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뷰 참여자 CK6>

연구자: 你为什么选择‘혹시라도’？（왜 ‘혹시라도’를 선택했어요?)
CK6: ‘혹시라도’和‘혹시나’差不多，但是也不知道它们具体的差异，就随便选了一个。
(‘혹시라도’와 ‘혹시나’는 비슷해요. 근데 구체적인 차이를 몰라서 그냥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老师教‘혹시’的时候，有把‘혹시라도’和‘혹시나’也一起讲吗？
(선생님이 ‘혹시’를 가르치실 때, ‘혹시라도’와 ‘혹시나’를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CK6: 嗯，好像有，都是由‘혹시’衍生来的，表‘推测’或者‘假设’，意思很相近。
(네,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혹시나’와 ‘혹시라도’는 모두 ‘혹시’에서 파생한 것이고 ‘추측’이나 ‘가정’의 뜻이에요. 의미가 아주 비슷해요.)

<인터뷰 참여자 CC3>
연구자: 你知道‘혹시라도’和‘혹시나’的区别吗？
(‘혹시라도’와 ‘혹시나’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CC3: 有非常细微的差异，‘혹시라도’和‘혹시나’意思都是‘如果，也许’的意思，具体用法可能有些不一样。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라도’와 ‘혹시나’의 의미는 모두 ‘如果’나 ‘也许’이에요. 하지만 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연구자: 如果选项里面还有‘혹시’，你选哪一个呢？
(선택지 중 ‘혹시’가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CC3: 还是‘혹시라도’吧，‘혹시나’和‘혹시’好像可以互换，要对两个都对了。
(그래도 ‘혹시라도’를 선택할 거예요. ‘혹시나’와 ‘혹시’는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어서 둘이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터뷰 참여자 CC4>
연구자: 你为什么选择‘혹시라도’而没有选其它三个选项呢？
(왜 ‘혹시라도’를 선택하고 다른 세 선택지를 제외했어요?)
CC4: ‘어쩌면’不认识就没选，‘설마’一般用于负面的事情，表达的感情很强烈，用在这里不合适，‘혹시라도’ 就是‘万一呢’，‘说不定的呢’，所以选择了‘혹시라도’。
(‘어쩌면’은 몰라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설마’는 보통 안 좋은 일에 쓰이고 감정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요. ‘혹시라도’는 ‘만일에’의 뜻이므로 ‘혹시라도’를 선택했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혹시라도’와 ‘혹시나’ 이 두 단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혹시라

도'와 '혹시나'는 '혹시'를 강조하는 단어로써 의미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미만으로 이 단어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혹시', '혹시나', '혹시라도' 중 어느 것이 '하다'와 호응하는 양상을 습득하지 못해서 통사적인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호응 표현 사용 양상을 오류가 아닌 양상과 오류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오류가 아닌 양상의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마', '아무래도'에 관한 문항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 중 '-(으)ㄴ/는/ㄹ 것 같다'와 '-(으)ㄹ 수 있다'를 선호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마'의 사용 양상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으)ㄹ까', '-겠-' 등과 같은 표현으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했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단순히 해체의 의문문 어미 '-아/어'를 사용하여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혹시'와 관한 문항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과 차이를 보였다.

호응 표현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 중 '-야', '-이다', '-아/어' 등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학습자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 형태적인 오류나 시제 오류 양상도 나타났다. 그리고 '어쩌면'을 '가정'의 의미로 인식하여 ''어쩌면 -면 좋겠다' 문형을 사용하는 특별한 오류 양상이 발견되었다.

2.2. 추측 양태부사의 선택 양상 분석

선다형 문항 Q1-Q12는 설정된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 간 의미·화용적 차이를 인식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이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다음 <표Ⅲ-15>와 같다.

<표Ⅲ-15> 선다형 문항Q1-Q12의 정답률

양태부사	문항 번호	정답률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아마(도)	Q1	100%	83.7%	81.3%

	Q4	100%	95.9%	97.9%
	Q10	100%	100%	93.7%
혹시	Q5	96.7%	75.5%	77.1%
	Q7	100%	100%	97.9%
아무래도	Q6	100%	98.0%	93.8%
	Q9	98.4%	81.6%	75.1%
	Q12	98.3%	77.6%	81.3%
설마	Q3	98.3%	95.9%	91.6%
	Q11	96.7%	91.8%	91.7%
어쩌면	Q2	96.7%	53.1%	37.5%
	Q8	100%	59.2%	66.7%
전체		98.8%	84.3%	82.1%

위 <표Ⅲ-1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전체 정답률은 각각 98.8%, 84.3%와 82.1%로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든 문항에서 90.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며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의 종류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를 보였다. '아마, 혹시, 아무래도, 설마'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어쩌면'은 아주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각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마(도)'의 선택 양상

먼저 '아마(도)'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에 관한 문항은 Q1, Q4와 Q10이다.

먼저 문항 Q1은 지영이와 서윤이가 방학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문항 Q1][69)]
지영이와 서윤이는 ㅇㅇ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같은 반 친한 친구입니다.
지영: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시험이니까 금요일부터 방학이네?
서윤: (　　①　　).
지영: 오, 좋아.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에버랜드에 놀러 갈까?
A.어쩌면　　B.혹시　　C.아마도　　D.아무래도

지영이가 금요일부터 방학이라는 것을 서윤이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상황인데 서윤이가 이에 동의하여 대답을 간단히 할 때 쓰일 수 있는 추측 양태부사로는 '아마도'가 가장 적절하다.

문항 Q1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16>과 같다.

<표Ⅲ-16> 문항 Q1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어쩌면	0	0.0%	5	10.2%	4	8.3%
B.혹시	0	0.0%	3	6.1%	5	10.4%
C.아마도	**56**	**93.3%**	**35**	**71.5%**	**30**	**62.5%**
D.아무래도	**4**	**6.7%**	**6**	**12.2%**	**9**	**18.8%**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16>과 같이 세 집단이 모두 '아마도' 외에 '아무래도'를 선택한 양상을 보인다. '아무래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의 뜻인데 문항 Q1의 상황에서 지영이가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시험인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금요일부터 방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가 문항 Q1의 상황에 적절한 선택지로 판단한다. 즉 문항 Q1의 적절한 선택지는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와 '아무래도'이다.

정답률은 '아마도'를 선택한 비율과 '아무래도'를 선택한 비율을 합친 수치로 세 집단의 정답률은 각각 100%, 83.7%와 81.3%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아마도'는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대답 양상에서 각각 71.5%, 62.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재한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외에 '아무래도'를 선택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며 학습자가 '아마도'와 '아무래도'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CK9>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选择'아무래도'呢？

69)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의 <수업대화_과외수업#2>를 변형하여 문항 Q1의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 상황에서 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CK9: 如果周四考试都考完了，周五当然就放假了。所以就选了'아무래도'。
(목요일에 시험을 다 봤으면 금요일부터 당연히 방학이죠. 그래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那你能说说你理解的'아무래도'的意思吗？
('아무래도'의 뜻을 좀 말해 줄 수 있어요?)
CK9: 怎么想都是那样。('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연구자: 那你知道'아마도'的意思吗？('아마도'의 뜻을 알고 있어요?)
CK9: '也许'的意思？('也许'의 뜻?)

<인터뷰 참여자 CC1>
연구자: 这道题为什么选择'아무래도'？(이 상황에서 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CC1: 既然지영都说了周四是最后一堂考试，周五开始放假就是非常确定的事情了。所以考虑到对方说的话，我也这么认为。
(지영이가 이미 목요일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했으니까 금요일부터 방학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고려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자: 那你能说说'아마도'的意思吗？('아마도'의 뜻을 좀 말해 줄 수 있어요?)
CC1: '可能'的意思吧。('可能'의 뜻이에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아무래도'를 선택한 학습자는 '아마도'와 '아무래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문항 Q1의 상황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과 다른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문항 Q1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아마도'가 적절한 추측 양태부사라고 판단하였다. '아무래도'를 선택한 학습자는 지영이가 아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일 방학이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Q4는 정환 어머니가 정환이에게 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상황이다.

[문항 Q4]
정환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정환이의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정환 어머니: 네 형 아직 안 들어왔어?
정환: 네, (　　④　　) 축구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축구팀에 가입했는데 오늘

부터 매주 수업 끝나고 연습 있대요. 정환 어머니: 아, 맞다. 깜빡했네. A.아무래도 B.어쩌면 C.아마 D.혹시

문항 Q4에서는 정환이는 형이 지난주에 축구팀에 가입했고 오늘부터 연습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형이 지금 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때는 화자인 정환이가 추측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개연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아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항 Q4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17>과 같다.

<표Ⅲ-17> 문항 Q4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아무래도	0	0.0%	2	4.1%	0	0.0%
B.어쩌면	0	0.0%	0	0.0%	0	0.0%
C.아마	**60**	**100%**	**47**	**95.9%**	**47**	**97.9%**
D.혹시	0	0.0%	0	0.0%	1	2.1%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17>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두 '아마'를 선택하였으며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는 '아마'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95.9%, 97.9%로 나타났는데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아주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아마'가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쓰이는 용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Q10은 서윤이와 직장 동료 상우가 회사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서윤이가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시간을 상우이에게 물어보자 상우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항 Q10] 서윤이는 ㅇㅇ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윤이와 직장 동료 상우의 대화입니다. 서윤: 상우 씨,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상우: 그거요? (⑩) 내일까지 끝내야 될 거예요. A.혹시 B.아마 C.설마 D.어쩌면

문항 Q10은 부드러운 태도로 제안이나 권유를 제시하는 상황으로 보면 '아

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확신의 정도의 측면으로 보면 상우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시간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추측의 근거가 문항에서 제시되지 않아서 확신의 정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 낮은 추측을 나타내는 ‘어쩌면’도 허용되는 선택지이다. 즉 문항 Q10의 적절한 선택지는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어쩌면’이다.

문항 Q10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18>과 같다.

<표Ⅲ-18> 문항 Q10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혹시	0	0.0%	0	0.0%	3	6.3%
B.아마	**60**	**100%**	**47**	**95.9%**	**40**	**83.3%**
C.설마	0	0.0%	0	0.0%	0	0.0%
D.어쩌면	**0**	**0.0%**	**2**	**4.1%**	**5**	**10.4%**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 모두가 ‘아마’를 선택하였다.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두 집단도 ‘아마’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95.9%, 83.3%이다. ‘아마’ 외에 재한 학습자 4.1%가 ‘어쩌면’을 선택하였으며 재중 학습자 10.4%가 ‘어쩌면’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재한 학습자의 정답률은 100%이고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은 93.7%이다. 재한 학습자는 재중 학습자보다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아마’의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 문항은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을 선택한 학습자가 ‘아마’와 ‘어쩌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C1>
연구자: 你在课堂上学过‘어쩌면’这个词吗？ (수업에서 ‘어쩌면’을 배웠어요?)
CC1: 学过，好像教材里面有。(네, 배웠어요. 교재에서 ‘어쩌면’이 있어요.)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选择‘어쩌면’呢？ (이 상황에서 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CC1: 感觉其他几个意思都不太对。(다른 단어의 의미가 이 상황과 안 맞아요.)
연구자: 那你说说其他几个词的意思？ (단어들의 뜻을 좀 말해 줄 수 있어요?)
CC1: ‘혹시’和‘설마’平常好像都是用在问句里面的，所以就排除了。‘아마’就是‘也许’的

意思嘛，‘어쩌면’好像也差不多是这个意思。就随便选了一个，感觉‘어쩌면’更加顺口一点,其实我也不太知道。
(‘혹시’와 ‘설마’는 의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라서 이 두 단어를 배제했어요. ‘아마’는 ‘也许’의 뜻이고 ‘어쩌면’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했어요. ‘어쩌면’이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인터뷰 참여자 CC7>

연구자: 你在教材里学过‘어쩌면’这个词吗？(교재에서 ‘어쩌면’을 배웠어요?)
CC7: 没学过，都没怎么用过这个词。
(배운 적이 없어요. 이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었어요.)
연구자: 那这道题你为什么选择了‘어쩌면’？(이 상황에 왜 ‘어쩌면’를 선택했어요?)
CC7: 题里说，应该明天就要交上去，前面空的部分要填跟它意思对得上的吧。就选了‘어쩌면’。
(문항에서 내일 끝내야 한다는 뜻이니까 빈칸에도 이와 호응하는 단어로 채워야 하죠. 그래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所以你觉得‘어쩌면’是‘应该’的意思?
(‘어쩌면’을 ‘应该’[70]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CC7: 我觉得应该是这个意思吧。不然你填‘아마’就是成了 ‘也许应该明天交’，跟这情景不符合。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를 선택하면 ‘아마 내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니까 이 상황과 안 맞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학습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아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어쩌면’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자 CC7은 ‘어쩌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내일까지 끝내야 될 거예요’라는 문장을 ‘내일까지 끝나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가 추측 표현 ‘-(으)ㄹ 것이다’와 호응하여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을 나타냄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양태부사 ‘아마(도)’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아마’가 초급에서 제시되는 추측

70)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应该’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미루어) 마땅히 할 것이다’와 ‘당연히 …할 것이다’의 뜻이다.

양태부사로 학습자가 '아마(도)'를 접한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아마'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아마(도)'에 관한 세 문항에서 두 학습자 집단이 비슷한 정답률을 보이지만 재한 학습자 집단이 재중 학습자 집단보다 조금 더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아마(도)'의 의미·화용적 층위의 적절성 판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혹시'의 선택 양상

다음은 '혹시'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다형 문항에서 '혹시'에 관한 문항은 Q5, Q7이다.

먼저 문항 Q7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 강좌의 선생님이 강좌를 마칠 때 학생에게 질문이 있냐고 물은 상황으로 선생님은 학생들이 질문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 확실히 모르고 있다.

[문항 Q7][71]
한국 문화 강좌를 마칠 때
선생님: 오늘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⑦) 질문 있습니까?
외국인 학생: 선생님, 한국의 제사에 대해 궁금한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혹시 B.어쩌면 C.아마 D.설마

문항 Q7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화자가 스스로 추측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에는 '혹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항 Q7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Ⅲ-19> 문항 Q7의 대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혹시	**60**	**100%**	**49**	**100%**	**47**	**97.9%**
B.어쩌면	0	0.0%	0	0.0%	0	0.0%

71)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의 <강의_언어병리학특강>을 변형하여 문항 Q7의 상황을 설정하였다.

C.아마	0	0.0%	0	0.0%	0	0.0%
D.설마	0	0.0%	0	0.0%	1	2.1%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19>에 따르면 세 집단이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재한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이 100%이고 재중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이 97.9%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혹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화자의 추측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때 쓰이는 것임을 잘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Q5는 서윤이와 지영이는 정환이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지영이는 정환이가 길을 못 찾는 것을 걱정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인다.

[문항 Q5]
서윤, 지영이과 정환이는 금요일 저녁 6시에 홍대 ㅇㅇ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분이나 지나도 정환이가 안 옵니다.
지영: 정환 선배 왜 아직도 안 와?
서윤: 그러게, 선배 약속에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영: (⑬) 길을 못 찾는 거 아니야?
이 레스토랑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A.어쩌면 B.혹시 C.아무래도 D.아마

문항 Q5처럼 화자가 추측할 때 우려의 심리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혹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문항에서 의문문에서 쓰이는 추측 양태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혹시'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이다.

문항 Q5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20>과 같다.

<표Ⅲ-20> 문항 Q5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어쩌면	0	0.0%	2	4.1%	1	2.1%
B.혹시	**58**	**96.7%**	**37**	**75.5%**	**37**	**77.1%**
C.아무래도	0	0.0%	3	6.1%	1	2.1%
D.아마	2	3.3%	7	14.3%	9	18.8%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20>과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은 96.7%로 나타났으며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은 각각 75.5%와 77.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한 학습자 14.3%가, 재중 학습자 18.8%가 '아마'를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혹시'와 '아마'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C5>

연구자: 这里你为什么选择了'아마'？ (이 상황에서 왜 '아마'를 선택했어요?)

CC5: 她说这个地方难找，可能就是因为没找到路吧。
(지영이가 이 레스토랑 찾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정환이가 길을 못 찾아서 늦은 거죠.)

연구자: 那你知道'아마'和'혹시'的差别吗？ ('아마'와 '혹시'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CC5: 我觉得他们两个完全不一样，没有什么可比性。'혹시'都是用在问句里面，比如说'혹시' 某某 아세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 '아마' 就是'可能'，'也许'的意思
(제 생각에는 이 두 단어가 완전 달라요,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요. '혹시'는 '혹시 ㅇㅇ아세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처럼 의문문에서 쓰이고, '아마'는 추측하는 뜻이에요.)

연구자: 那题里面是问句，你为什么不选'혹시'而选择了'아마'呢?
(문항에서 의문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왜 '혹시'를 선택하지 않고 '아마'를 선택했어요?)

CC5: 因为我觉得'아마'表达了说话人对于정환迟到原因的推测，但是'혹시'只是表达单纯的疑问。所以比起'혹시'，'아마'更加适合。
('아마'는 화자 정환이가 늦은 원인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혹시'는 단순히 의문만 나타내요. 그래서 '혹시'보다 '아마'가 더 적절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가 '혹시'를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혹시'의 추측의 의미를 습득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특히 '혹시'가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과 같은 다양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하지 못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아마'가 의문문에서 잘 쓰이지 않는 통사적 특성을 모르는 것도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장의 유형으로만 '아마'와 '혹시'를 구별하고 '혹시'가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혹시'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아주 비슷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다수의 학습자가 '혹시'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과 화자의 우려나 걱정을 나타내는 추측, 이 두 가지 용법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학습자가 '혹시'를 단순히 의문문에서 쓰인 부사로 인식하고 '혹시'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함께 드러나는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잘 습득하지 못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3) '아무래도'의 선택 양상

다음은 '아무래도'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 선다형 문항에서 '아무래도'에 관한 문항은 Q6, Q8, Q12이다.

문항 Q6은 서윤이와 지영이가 보고서 제출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문항 Q6]
서윤: 국어 문법론 수업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지영: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닌가?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윤: 이번 주 금요일?
지영: 응.
서윤: 어떡해, 난 다음 주 금요일인 줄 알고,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썼어.
(⑥)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 못할 것 같아.
A.어쩌면 B.설마 C.혹시 D.아무래도

문항 Q6에서는 서윤이가 보고서 제출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아무리 노력하여 준비해도 정한 시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하여도'의 의미를 가진 '아무래도'가 제시된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 또한 화자인 서윤이가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을 못할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본다면 확신의 정도가 낮은 추측을 나타내는 '어쩌면'도 적절하다.

문항 Q6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21>과 같다.

<표Ⅲ-21> 문항 Q6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어쩌면	**3**	**5.0%**	**8**	**16.4%**	**8**	**16.7%**

B.설마	0	0.0%	0	0.0%	0	0.0%
C.혹시	0	0.0%	1	2.0%	3	6.2%
D.아무래도	**57**	**95.0%**	**40**	**81.6%**	**37**	**77.1%**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21>에 따르면 95.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아무래도'를 선택하였다.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집단은 '아무래도'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81.6%와 77.1%로 나타났다. 두 학습자 집단에서 각각 8명이 '어쩌면'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재한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 언어 사용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아무래도'를 선택하고 일부 학습자가 '어쩌면'을 선택했는데 학습자가 '어쩌면'과 '아무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K5>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选择'어쩌면'呢？（이 문항에서 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CK5: 서윤觉得自己也许在周五前交不了报告，表达一种可能性。
('서윤이가 자기 금요일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구자: 那你能说说'어쩌면'和'아무래도'的区别吗？
('어쩌면'과 '아무래도'의 차이점을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K5: '어쩌면'表示推测，相当于汉语的'说不定，也许'。'아무래도'更侧重于说话人的想法吧，有点'不管怎么样都只能怎样做，都只会这样'的感觉。
('어쩌면'은 추측이고 중국어의 '说不定'[72], '也许'와 비슷한 의미예요. '아무래도'는 화자의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CC8>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选择'어쩌면'呢？（이 문항에서 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CC8: 虽然서윤说，到现在为止才写一半，星期五可能完不成报告。但是这也只是一种可能的情况，不是一定交不了。所以选择了'어쩌면'，表达说不定周五交不了报告的意思。
(서윤이가 지금까지 보고서를 반 정도만 써서 금요일까지 완성하지 못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지 가능성일 뿐이고 꼭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금요일까지 완성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뜻

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연구자: 那你能说说'어쩌면'和'아무래도'的区别吗？
('어쩌면'과 '아무래도'의 차이점을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C8: '어쩌면'就是表示说话人的推测，事情可能会是那样。'아무래도'感觉说得很绝对，事情一定会变成那样，也不是一定，就是基本就是那样了。但是这道题里面，周五还没有来，怎么能说不管怎样都交不了报告呢。所以我觉得表达推测的'어쩌면'更合适。
('어쩌면'은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뜻이에요. '아무래도'는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 꼭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문항에서 금요일이 아직 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쩌면'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어쩌면'을 추측의 의미로 정확하게 인식한 양상을 보이고 '아무래도'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의 뜻으로 이해한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가 '어쩌면'과 '아무래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습득하였고 상황에서 함축된 확신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Q9는 문항 Q8에 이어서 일어난 상황으로 서윤이와 지영이가 인턴 지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문항 Q9][73]
서윤: 토익도 봐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지영: 근데 이번에 OO회사는 인턴 10명을 더 뽑는다고 하던데.
넌 잘될 거야.
서윤: 그래? (⑨)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긴 하겠다.
A.혹시 B.아무래도 C.아마 D.어쩌면

문항 Q9에서 지영이가 서윤이에게 OO회사는 인턴 10명을 더 뽑는다는 정보를 주고 서윤이는 이를 가지고 경쟁률을 추측하는 상황이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회사가 인턴 10명을 더 뽑으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이 거

72) 『연세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에 따르면 '说不定'는 부사로 쓰일 때 '어쩌면, 아마, 대개'의 뜻이다.
73)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의 <주제대화_대학진학>을 변형하여 문항 Q9의 상황을 설정하였다.

의 확실한 것이므로 '아무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개연성이 높다는 '아마'도 이 상황에 허용되는 선택지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아무래도'와 '아마'가 모두 적절한 선택지이다.

문항 Q9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Ⅲ-22> 문항 Q9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혹시	0	0.0%	2	4.1%	4	8.3%
B.아무래도	**55**	**91.7%**	**25**	**51.0%**	**15**	**31.3%**
C.아마	**4**	**6.7%**	**15**	**30.6%**	**21**	**43.8%**
D.어쩌면	1	1.6%	7	14.3%	8	16.7%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22>에 따르면 '아무래도'를 선택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비율은 91.7%이고 '아마'를 선택한 비율은 6.7%이다.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가 '아무래도'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51.0%와 31.3%이다. 재한 학습자 집단에서 '아마'를 선택한 학습자는 30.6%를 차지하였으며 재중 학습자에서는 43.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재한 학습자의 정답률은 81.6%이고 재중 학습자의 정답률은 75.1%인데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비슷하게 높은 정답률이 보인다. '아마'를 선택한 비율을 고려해서 재한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 사용 양상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가 '아마'와 '아무래도'의 의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C6>

연구자: 这道题为什么选择'아마'呢？ (이 문항에서 왜 '아마'를 선택했어요?)

CC6: '아마'就是表示'可能'的意思，多招人的话竞争可能会相对要小些吧。
('아마'는 추측의 뜻이에요.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연구자: 那你能说说'아마'和'아무래도'的区别吗？
('아마'와 '아무래도'의 차이점을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C6: 我觉得这两个词的意思还是很好区分的，'아마'是'可能'的意思，表推测，'아무래도'是'不管怎么说'的意思。
(두 단어의 의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는 '可能'의 뜻이고 추측을 나타내요. '아무래도'는 '아무리 그래도'의 뜻이에요.)

<인터뷰 참여자 CC8>

연구자: 这道题为什么选择'아무래도'呢？ (이 문항에 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CC8: 就是结合各方面的情况来看，竞争率肯定会变小嘛。而且这句话给人的感觉，说话人是很肯定的态度。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경쟁률이 낮아질 거예요. 게다가 이 문장이 아주 확실한 의미를 나타내요. 화자가 아주 확실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는 '아마'를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로 인식하고 '아무래도'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아마'를 선택한 학습자는 이 상황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래도'를 선택한 학습자는 이 상황을 아주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항 Q12는 지영이가 서윤이의 볼이 일주일 정도 아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치과에 가 보라는 제안을 하는 상황이다.

[문항 Q12]

서윤: 난 요즘 볼이 너무 아파.

지영: 볼이 아파? 며칠 됐어?

서윤: 한 일주일 정도 됐어.

지영: 사랑니 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사랑니 아직 안 났다면서.

(　⑫　) 치과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A.혹시나　B.아무래도　C.설마　D.어쩌면

문항 Q12처럼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아무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항 Q12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23>과 같다.

<표Ⅲ-23> 문항 Q12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혹시나	1	1.7%	10	20.4%	3	6.3%
B.아무래도	**59**	**98.3%**	**38**	**77.6%**	**39**	**81.3%**
C.설마	0	0.0%	0	0.0%	0	0.0%
D.어쩌면	0	0.0%	1	2.0%	6	12.5%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 <표Ⅲ-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집단이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98.3%이며, 재한 학습자 집단 정답률은 77.6%이고 재중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은 81.3%이다. 두 학습자 집단은 재한 학습자 10명이 '혹시나'를 선택하고 재중 학습자 6명이 '어쩌면'을 선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학습자 인터뷰를 통하여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K7>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要选'혹시나'? (이 문항에서 왜 '혹시나'를 선택했어요?)

CK7: 虽然不知道是不是智齿，不过她还是去医院看看比较好。
('사랑니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치과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생각해서요.)

연구자: 那你能说说这里'혹시나'的具体意思吗？
(여기서 '혹시나'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K7: '虽然不知道是不是这样'。('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의 뜻이에요.)

<인터뷰 참여자 CC8>

연구자: 这道题你为什么要选'어쩌면'? (이 문항에서 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CC8: 这个词跟后面的内容可以表达可能还是去医院看看好些。
(이 단어를 선택하면 문장이 '아마도 치과에 가보는 게 좋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연구자: 这里'어쩌면'具体是什么意思呢?
(여기서 '어쩌면'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C8: '可能'的意思吧。('可能'의 뜻이에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의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가 모두 문항의 상황을 이해하였고 추측 양태부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의미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측 양태부사 '아무래도'가 화자의 제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용법임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 '아무래도' 와 '혹시나', '어쩌면'의 의미·화용적 구체적인 차이를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언어 사용에 차이를 보인다. 소수의 학습자가 '아무래도'를 기본 의미인 '아무리 생각하여도'로 알고 있으며

‘아무래도’가 다양한 화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에 쓰이는 것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4) ‘설마’의 선택 양상

다음은 ‘설마’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 선다형 문항에서 ‘설마’에 관한 문항은 Q3, Q11이다.

문항 Q3의 상황은 문항 Q2에 이어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문항 Q3]
정환 선배의 회계학 시험 성적이 발표된 후
지영: 정환 선배 이번에 회계학 시험에 불합격했대.
서윤: (　　③　　).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했다면서?
지영: 그러게 말이야.
A.혹시　　B.아마　　C.설마　　D.어쩌면

문항 Q3의 경우 지영이가 서윤이에게 정환 선배가 이번에 회계학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서윤이가 정환 선배가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했다는 정보와 같이 정환 선배가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나 의심을 표현하고 있기에 ‘설마’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는 양태부사 ‘설마’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용법이고 ‘설마 정환 선배가 시험에 불합격한 건 아니겠지’의 생략으로 봐도 된다. 또한 상황에 대한 놀람을 나타낼 수 있는 ‘어쩌면’도 수용 가능한 선택지이다. 『표준』에 따르면 ‘어쩌면’은 부사로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감탄사로서 놀라움이나 따짐을 나타낸다. 즉 이 상황에서 ‘설마’와 ‘어쩌면’이 모두 적절한 선택지이다. 다만 몇몇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설마’를 선택했기에 ‘설마’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항 Q3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24>와 같다.

<표Ⅲ-24> 문항 Q3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혹시	0	0.0%	0	0.0%	1	2.1%
B.아마	1	1.7%	2	4.1%	3	6.3%
C.설마	**57**	**95.0%**	**41**	**83.7%**	**40**	**83.3%**
D.어쩌면	**2**	**3.3%**	**6**	**12.2%**	**4**	**8.3%**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의 <표Ⅲ-24>에 따르면 95.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설마'를 선택하였다. 재한 학습자 집단과 재중 학습자 집단의 '설마'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83.7%와 83.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설마' 외에 재한 학습자 6명이 '어쩌면'을 선택하고 재중 학습자가 4명이 '어쩌면'을 선택하였다. '어쩌면'을 선택한 학습자가 '어쩌면'과 '설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K3>

연구자: 这道题为什么选了'어쩌면'？（이 문항에서 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CK3: '어쩌면'可以表达说话人的惊讶，就相当于'不会吧'，表示难以置信。
('어쩌면'이 화자의 놀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어의 '不会吧'와 비슷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연구자: 那'설마'呢？你觉得'설마'和'어쩌면'有什么区别？
('설마'는요? '설마'와 '어쩌면'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CK3: '설마'更多地是表示疑问，'어쩌면'可以表示推测，也可以表示惊讶。
('설마'는 의문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쩌면'은 추측과 놀람을 모두 나타낼 수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CC9>

연구자: 这道题为什么要选'어쩌면'？（이 문항에서 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CC9: '혹시'和'아마'，我都很确定不对。'설마'平常多用于疑问句当中，我觉得用在这里可能不太对。所以选择了'어쩌면'。
('혹시'와 '아마'는 확실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설마'는 보통 의문문에서 쓰여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那你能说说'어쩌면'在这里的具体意思吗？
(여기서 '어쩌면'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CC9: 它本来的意思我不是很清楚，但是我觉得根据上下文，应该是很惊讶的意思吧。
('어쩌면'의 기본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맥락을 봐서 여기 놀라움을 표현하는 뜻인 것 같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는 '설마'를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의심이나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화용적인 용법이 습득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쩌면'을 선택한 학습자 중에는 '어쩌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선지를 선택한 학습자가 있으며 '어쩌면'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은 학습자도 있었다.

문항 Q11은 아내와 남편의 대화로 아내가 친구 집에 갔다 오겠다고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하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이 엉망이 된 주방을 보고 나서 이것을 다 하라고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항 Q11]
아내: 여보, 나 친구 집에 갔다 올게. 저녁때쯤 들어올 거야.
　　설거지 좀 부탁할게.
엉망이 된 주방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남편: (　　⑪　　) 나보고 이걸 다 하라고?
A.혹시　　B.아마도　　C.설마　　D.어쩌면

문항 Q11에서 화자가 상황에 대한 의심이나 놀라움을 가졌을 때에는 '설마'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혹시'는 추측을 할 때 기대나 우려를 나타나는데 이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혹시'를 사용하려면 '혹시 나보고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겠지'와 같이 이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문항 Q11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25>와 같다.

<표Ⅲ-25> 문항 Q11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혹시	2	3.3%	1	2.0%	4	8.3%
B.아마도	0	0.0%	2	4.1%	0	0.0%
C.설마	**58**	**96.7%**	**45**	**91.8%**	**44**	**91.7%**
D.어쩌면	0	0.0%	1	2.0%	0	0.0%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의 <표Ⅲ-25>에 따르면, 96.7%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설마'를 선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이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한 학습자 집단과 재중 학습자 집단이 '설마'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91.8%와 91.7%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대부분 학습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며 '설마'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두 집단이 모두 '설마'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잘 습득한 양상을 보였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학습자가 '설마'가 의문문에서 쓰인 부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화자의 다양한 태도를 내타낼 수 있는 것을 습득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5) '어쩌면'의 선택 양상

다음으로 '어쩌면'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 선다형 문항에서 '설마'에 관한 문항은 Q2, Q8이다.

문항 Q2에서 지영이와 서윤이가 정환 선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영이는 정환 선배가 회계학 시험에 떨어질지 붙을지 추측을 하고 있다.

[문항 Q2]
정환이는 회계학과 4학년생입니다. 그리고 지영이와 서윤이의 기타동아리 선배입니다.
지영: 정환 선배 요즘 회계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던데.
서윤: 회계학? 진짜 어렵겠다.
지영: 응.
서윤: 정환 선배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영: (②) 이번 시험에 떨어질지도 몰라.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A.아무래도 B.어쩌면 C.혹시라도 D.설마

문항 Q2와 같이 화자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을 때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경우는 '어쩌면'이 가장 적절하다.

문항 Q2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 <표Ⅲ-26>과 같다.

<표Ⅲ-26> 문항 Q2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아무래도	1	1.6%	5	10.2%	7	14.6%
B.어쩌면	**58**	**96.8%**	**26**	**53.1%**	**18**	**37.5%**
C.혹시라도	1	1.6%	14	28.6%	21	43.8%
D.설마	0	0.0%	4	8.2%	2	4.2%
합계	60	100%	49	100%	48	100%

위에 <표Ⅲ-26>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96.8%가 정답으로 '어쩌면'을

선택하였으나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은 겨우 53.1%와 37.5%로 나타났다. '어쩌면' 외에 재한 학습자 집단 14명, 재중 학습자 집단 21명이 '혹시라도'를 많이 선택한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가 '어쩌면'을 선택한 이유를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K2>

연구자: 这道题为什么要选'혹시라도'？（이 문항에서 왜 '혹시라도'를 선택했어요?)

CK2: 지영应该是想说정환有可能不过不了吧。因为她后面一句是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지영이는 정환이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뒤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이라는 문장이 있으니까요.)

연구자: 那你觉得'혹시라도'在这是什么意思呢？

('혹시라도'는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해요?)

CK2: '也许'的意思吧，表示推测。('也许'의 뜻인 것 같아요. 추측을 나타내요.)

연구자: 那你觉得'어쩌면'是什么意思呢？('어쩌면'의 의미는요?)

CK2: 不太知道。(잘 몰라요.)

<인터뷰 참여자 CK4>

연구자: 这道题为什么要选'혹시라도'？（이 문항에서 왜 '혹시라도'를 선택했어요?)

CK4: '혹시라도'可以表示推测，说不定他会通不过这次考试。

('혹시라도'는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정환이가 이번 회계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인터뷰 참여자 CC3>

연구자: 这道题为什么要选'혹시라도'？（이 문항에서 왜 '혹시라도'를 선택했어요?)

CC3: 지영在对정환能不能通过考试进行推测，'혹시라도'就是表示推测的副词。

(지영이는 정환이가 회계학 시험에 붙을지에 대해 추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연구자: '어쩌면'呢？('어쩌면'은요?)

CC3: 没有学过，不知道是什么意思就没有选。

(안 배웠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습자는 문항 Q2의 상황을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추측을 나타나는 양태부사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학습자가 '혹시라도'를 중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说不定’, ‘也许’로 이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 상황에 적절한 선택지 ‘어쩌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문항 Q8은 서윤이가 OO회사에 인턴을 지원하고 나서 지영이와 인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문항 Q8] 서윤이가 ㅇㅇ회사에 인턴을 지원했습니다. 서윤: 인턴 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인턴 안 하면 취직도 못 하고. 요즘 애들은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다. 지영: 스펙 따지는 건 (⑧)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일지도 몰라. A.어쩌면 B.설마 C.혹시 D.아무래도

문항 Q8에서는 지영이가 서윤이의 말을 듣고 스펙을 따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스펙을 따지는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보면 ‘어쩌면’이 적절하다. 게다가 상황에서 제시된 통사적 구조 ‘-(으)ㄹ지도 모르다’가 확신의 정도가 낮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기 때문에 ‘어쩌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스펙을 따지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아무래도’가 수용 가능한 선택지이다.

문항 Q8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답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Ⅲ-27> 문항 Q8의 답변 양상

선택지	한국인 모어 화자		재한 학습자		재중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어쩌면	**56**	**93.3%**	**17**	**34.7%**	**20**	**41.7%**
B.설마	0	0.0%	8	16.3%	6	12.5%
C.혹시	0	0.0%	12	24.5%	10	20.8%
D.아무래도	**4**	**6.7%**	**12**	**24.5%**	**12**	**25.0%**
합계	60	100%	49	100%	48	100%

<표Ⅲ-27>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93.3%가 ‘어쩌면’을 선택하고 6.7%만 ‘아무래도’를 선택하였다.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 집단의 ‘어쩌면’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34.7%와 41.7%로 모두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두 학습자 집단에서 각각 12명(CK:24.5%, CC:25.0%)이 ‘아무래도’를 선택했는데 이를 통해 두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모어 화자 언어 사용과 큰 차

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은 모든 선택지가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의 인식 양상을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CK7: '혹시'를 선택한 학습자>

연구자: 你先说说这句话是什么意思?
('스펙 따지는 건 (⑧)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 문장의 뜻을 알고 있어요?)

CK7: 嗯...看스펙可能是因为社会文化。
(네... 스펙 따지는 것이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이라는 뜻이에요.)

연구자: 嗯，对的！那你看下面哪个词表达了这种'可能'的意思?
(맞아요. 그러면 다음 중 어느 부사가 이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요?)

CK7: '설마'感觉不对。('설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那其他的呢？你当时怎么想的？(다른 것은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CK7: 就选的'혹시'，它就是'也许'的意思吧。
('혹시'를 선택했어요, '혹시'는 중국어로 추측의 뜻이죠.)

<인터뷰 참여자 CK8: '아무래도'를 선택한 학습자>

연구자: 这道题为什么选了'아무래도'？(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CK8: 大家都知道的，不管怎么说，스펙 따지는 것都是这个社会环境造成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스펙 따지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이에요.)

연구자: 那你觉得'어쩌면'用在这合适吗？
(여기서 '어쩌면'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CK8: 我觉得不太合适。'어쩌면'是'如果'的意思吧。
(아니요. '어쩌면'은 가정의 뜻이죠.)

<인터뷰 참여자 CC3: '혹시'를 선택한 학습자>

연구자: 这道题为什么要选'혹시'？(이 문항에서 왜 '혹시'를 선택했어요?)

CC3: 重视学校，学历这样的现象可能是因为我们的社会文化，也可能不是，所以选择了'혹시'，表示说话人的推测。
(학교와 학위 등과 같은 것을 따지는 사회 현상이 우리 사회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를 선택해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냈어요.)

<인터뷰 참여자 CC10: '아무래도'를 선택한 학습자>

연구자: 这道题为什么要选'아무래도'？
(이 문항에서 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CC10: 我觉得一个人以他在这个社会生活的经验来判断，可以得出'拼背景是因为我们的社会环境'的结论，所以我选择了'아무래도'。
(사람이 살았던 삶으로 보면 '스펙을 따지는 것이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아무래도'를 선택했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내용에 의하여 학습자가 '혹시'를 선택한 이유는 '혹시'가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무래도'를 선택한 이유는 확실한 태도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문항 Q8의 상황은 확실한 판단으로 '아무래도'는 수용 가능하지만 '혹시'는 적절하지 못한다. '혹시'는 추측을 나타내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동시에 기대나 우려 등과 같은 태도를 함께 표현하는데 이 문항은 단순히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므로 '혹시'보다 '어쩌면'과 '아무래도'가 더욱 적절하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한 명도 '혹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들이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어쩌면'에 관한 문항Q2와 문항Q8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어쩌면'의 사용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고 두 학습자 집단 간에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선택 양상을 부사별로 분석하였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재한 학습자 집단과 재중 학습자 집단이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의 부사 선택 양상과 차이가 존재하며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부사 선택 양상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사별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마'와 '아무래도'는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문항에서 재한 학습자는 재중 학습자보다 답안 선택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훨씬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혹시'와 '설마'는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높은 정답률이 보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학습자 집단에서 소수의 학습자가 '혹시'와 '설마'를 단순히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문문에서 추측을 나타내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부차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화용적 특성을 습득하지 못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어쩌면'은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낮은 정답률이 보이

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집단의 학습자가 '어쩌면'의 의미를 모르거나 '应该', '如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학습자는 '어쩌면'과 '아마, 아무래도, 혹시'의 구체적인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던 가설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설1>과 관련하여 정확성의 측면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두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큰 차이가 있으며 재한 학습자 집단과 재중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는 상황에 따라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두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모두 특정한 표현을 선호하는 양상이 발견되었고 특히 재중 학습자가 재한 학습자보다 특정한 표현을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두 학습자 집단이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으며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조금 더 가깝고 더 적절하게 사용하였음을 검증되었다.

<가설2>와 관련하여 정확성의 측면에서 두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차이가 있으며 재한 학습자 집단과 재중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 추측 양태부사가 수용 가능한 문항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지의 비율이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재한 학습자가 재중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재한 학습자 집단이 재중 학습자 집단보다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이 1년 정도 짧았지만 재한 학습자 집단이 학습 기간이 더 긴 재중 학습자 집단보다 추측 양태부사 사용의 적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재한 학습자와 재중 학습자는 사용하는 교재나 학습 환경 등이 다르지만, 재한 학습자가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서 추측 양태부사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을 학습자에게 충분히 제시해 주는 것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이해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추측 양태부사의 입력이 추측 양태부사 학습에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가설들이 기각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1>: Q13, W1-W10 문항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통사적으로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학습 기간이 비교적 긴 재중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보다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더 가깝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론2>: Q1-Q12 문항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차이를 인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다. 또한 학습 기간이 비교적 긴 재중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보다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더 적절하게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더 가깝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3. 오류 원인 분석

오류 양상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생산한 오류의 원인을 알아내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Ⅳ장에서 제시할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 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브라운(Brown, 2003:260-264)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언어간 전이, 언어내 전이, 학습의 장, 의사소통 전략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정희(2003:84)는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오류 원인을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부정적 전이),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과잉 적용/불완전 적용),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앞 절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위의 오류 원인의 분류를 참

고하여 ①모국어의 간섭, ②목표어의 복잡성, ③교육 과정의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1. 모국어의 간섭

브라운(Brown, 2003:260)에서 제2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모국어로부터의 언어간 전이가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즉 모국어 간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제2 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언어는 모국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허용·김선정(2014:8)에서 모국어의 간섭은 언어간 범주의 차이와 구조, 규칙, 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모국어의 간섭은 배제적인 간섭(preclusive interference)과 침입적인 간섭(intrusive interference)으로 나누었다.

3.1.1. 배제적인 간섭

배제적인 간섭은 학습 대상 언어의 어떠한 규칙이 학습자의 모국어에는 없어서 일어나는 간섭을 가리킨다(허용·김선정,2014:8). 구본관 외(2014:200)에서 한국어는 어미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고 한국어 문법의 높임법, 시제, 양태, 문장의 유형, 문장의 확대 등 많은 부분이 주로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통사적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범한 시제 오류와 종결 어미의 누락 오류의 발생 원인은 바로 중국어에는 없으나 한국어에는 발달된 어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학습자가 '설마'를 사용하여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 오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았/었-'이나 관형사 어미 '-은'과 같은 과거 시제로 대답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ø'형태나 관형사 어미 '-는'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냈거나 '-겠-'이나 관형사 어미 '-(으)ㄹ'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시

제가 어미에 의하여 실현되지만 중국어에서 시제는 어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로만 표현한다는 차이점에서 발생한 오류라 볼 수 있다. 74)

또한 학습자가 '아마'와 호응하는 추측 표현 '-(으)ㄹ걸',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가 보다'를 사용할 때 각각 '-(으)ㄹ', '-(으)ㄴ/는/(으)ㄹ', '-(으)ㄴ' 부분을 생략해서 오류(36)과 같은 누락 오류를 범한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어미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한국어의 어미를 사용할 때 일부를 누락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문법 표현의 일부 어미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지만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어미가 발달되지 않아서 학습자가 문법 표현의 완전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제적인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교사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의 형태에 대해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3.1.2. 침입적인 간섭

침입적인 간섭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있는 어떠한 요소가 학습 대상 언어의 것과 서로 달라서 학습 대상 언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허용·김선정, 2014:8).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으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의미만 대응시켜 사용하고 통사적 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침입적인 간섭에 해당한다. 종결 어미의 대치 오류 중에 학습자가 추측 표현 대신 단순히 사실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표현 '-야', '-이다', '-아/어' 등을 사용하여 범한 오류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인다. 한국어 추측은 추측 표현으로 나타내거나 추측 양태부사와 추측 표현이 함께 쓰여 나타내는데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朱丽(2005)에서는 중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한데 추측을 나타내는 요소를 '추측 요소'(conjectural operator)라고 하였다. 중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추측 요소'는 어기사, 어기부사, 동사, 구 등이 있는데 추측을 나타낼 때 '추측 요소'가 단독

74) 허용·김선정(2014:291)은 중국어 시제 표현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과거시제: 昨天我在学校学习。나는 어제 학교에서 공부했다.
현재시제: 现在我在学校学习。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한다.
미래시제: 明天我在学校学习。나는 내일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다.
위 예문들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지만, 한국어와 달리 동사와 결합하는 시제 표현 문법표지 없이 오직 '어제, 지금,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를 사용해서 시제를 나타나고 있다.

으로 쓰일 수도 있으며 함께 쓰일 수도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가 통사적으로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중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어휘는 통사적으로 호응하는 표현이 필수적이지 않다.[75] 중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어휘 '可能', '大概' 등이 통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중국어 어휘 '可能', '大概' 등을 대응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만 고려하고 통사적 호응 양상을 고려하지 않게 되며, 이것이 오류의 원인이 된다. 특히 문항 W1과 문항 W4와 같이 숫자가 포함된 상황에서 '아마 2년인 것 같다', '어쩌면 30대일지도 모르다'와 같이 대답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아마 2년이다', '어쩌면 30대야'로 대답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수량과 시간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추측 양태부사 뒤에 바로 숫자가 올 수 있는 특징 때문이라 볼 수 있다(姚杰, 2005:15).[76] 이것은 앞서 제시한 재한 학습자 CK1와 재중 학습자 CC6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문장 내 추측의 의미가 추측 양태부사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문장을 완성할 때 중국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목표어의 복잡성

목표어의 복잡성은 학습자가 제2 언어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표어 자체의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에서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범한 오류를 통사적 호응

---

75) 누문연(2013:48)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중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호응 양상을 비교하였다.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는 양태 표현 없이 단독적으로 쓰이면 비문이 되므로 추측 표현들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들의 필수적인 호응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호응 양상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두 가지 차이점을 밝혔다. 첫째, 중국어 추측 양태부사와 조동사(会, 能, 可以, 可, 能够, 可能)와의 호응관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즉 중국어 추측 양태부사는 조동사 없이 단독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둘째, 중국어 추측 양태부사는 '吧(파)', '呢(너)' 등 어말 어기사와 호응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기사 '吧(파), '呢(너)' 등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76) 姚杰(2005:15)에서 제시된 예시를 보면 중국어 추측 양태부사 뒤에는 바로 숫자가 결합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필수적인 호응 표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a. 增加了大概百分之五。
b. 我们大概下个月期末考试。

표현의 복잡성과 의미·화용적 기능의 복잡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1. 통사적 호응 표현의 복잡성

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추측 양태부사는 통사적으로 다양한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오류는 아니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와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오류가 아닌 양상에서 제시하였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서 '-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있다', 해체 어미 '-아/어' 등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오류라고 할 수 없지만 고급 학습자가 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더 가깝고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해 교사가 수업 에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제시할 때 초급에서 배운 표현들 외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자주 호응하는 표현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치 오류 (37)에서 학습자가 형태가 유사한 표현 '-(으)ㄹ 것이다'와 '-(으)ㄴ/는 것이다'를 구별하지 못하여 대치 오류(38)에서 '-(으)ㄹ지도 모르다'와 '-(으)ㄴ/는지(도) 모르다'를 구별하지 못한 오류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복합 형태로 실현되는 문법 표현의 형태적인 차이로 인한 의미 변화에 대하여 교사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제시할 때 형태가 유사한 표현에 대한 구별을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3.2.2. 의미·화용적 기능의 복잡성

한국어의 추측 양태부사는 '추측'의 공통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 간의 미세한 의미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추측 양태부사는 추측이라는 주된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상황에 적절한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함에 있어 오류가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 CC5>

연구자: 你觉得‘혹시’和‘설마’的意思有什么差别？
(‘혹시’와 ‘설마’의 차이를 알아요?)
CC5: 说不上来，意思上感觉没什么差别，两个词都是用在问句里面的。
(잘 모르겠지만 의미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단어가 모두 의문문에서 쓰여요.)
연구자: 那你理解的‘혹시’和‘설마’跟哪个汉语词相近呢？
(‘혹시’와 ‘설마’는 각각 어떤 중국어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CC5: ‘혹시’一下子想不到合适的汉语词。‘설마’就是‘该不会吧’的这种意思。
(‘혹시’는 중국어에서 비슷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설마’는 ‘그럴 리가 없겠지’의 뜻이에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가 ‘혹시’와 ‘설마’를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하고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습득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항 Q11의 대답 양상과 같이 중국인 학습자는 ‘설마’로 화자의 의심이나 놀라움을 표현해야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혹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설마’와 ‘혹시’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하여 교사가 ‘설마’와 ‘혹시’가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써 추측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양태부사가 모두 의문문에서 쓰이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의미·화용적의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줘야 한다.

<인터뷰 참여자 CK5>
연구자: 你知道‘아마’和‘어쩌면’的意思有什么差别吗？
(‘아마’와 ‘어쩌면’의 차이점을 알아요?)
CK5: ‘아마’就是‘可能’, ‘大概’, ‘也许’的意思。‘어쩌면’是‘说不定’的意思吧。
(‘아마’는 ‘可能’, ‘大概’, ‘也许’의 뜻인데요. ‘어쩌면’은 ‘说不定’의 뜻이에요.)
연구자: 那你觉得它们在使用上有什么差别吗？
(두 단어 사용할 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CK5: 不知道有没有。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몰라요.)
연구자: ‘아무래도’呢？ (‘아무래도’는요?)
CK5: ‘不管怎样’的意思。其实平时没觉得他们之前有什么联系，做问卷的时候，才发现有的题不知道该选哪个。有的题好像有好几个答案，有的又好像一个都不对。
(‘아무리 그래도’의 뜻이에요. 사실은 평소 이 단어들이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설문지를 할 때 개별 문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문항에서 선택지가 다 맞은 것 같지만 어떤 문항에서 다 안 맞은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CC2>

연구자: 你觉得 '아마, 어쩌면, 아무래도'还有'혹시'有什么区别吗？
('아마, 어쩌면, 아무래도, 혹시'의 차이점이 알아요?)

CC2: '아마, 아무래도 혹시'感觉还挺不一样的, '아마'是可能的意思, '아무래도'是'无论怎样'的意思, '혹시'相当于'也许'吧, '어쩌면'的意思不知道。
('아마, 아무래도, 혹시'는 많이 달라요. '아마'는 '可能'의 뜻이고요. '아무래도'는 '아무리 생각하여도'의 뜻이고 '혹시'는 '也许'의 뜻이에요. '어쩌면'의 의미를 잘 몰라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아마, 아무래도'의 기본적인 의미와 '어쩌면'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습자가 있지만 전혀 모르는 학습자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문항 Q1의 대답 양상에서 '아마(도)'로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동의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상황에서 '혹시'와 '어쩌면'을 쓰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아마(도)'의 의미·화용적인 특성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아마'와 '아무래도'의 부드러운 태도로 자신의 의견이나 제언을 제시하는 화용적인 용법을 습득하지 못한 양상도 보였다. 이에 대하여 교사가 추측 양태부사 '아마, 아무래도, 어쩌면, 혹시'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내는 다양한 부차적인 의미·화용적의 특성을 분석하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구제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오류(42)와 같이 학습자가 '어쩌면 -(으)면 좋겠다'는 문형을 사용하는 양상도 발견되었는데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면'을 보고 '어쩌면'을 가정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통사적 호응 표현의 오류를 범하는 양상이지만 학습자가 전에 학습한 어미 '-면'을 근거로 '어쩌면'의 의미를 '가정'으로 과잉 적용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를 목표어 의미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교사가 '어쩌면'을 교수할 때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 '-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3.3. 교육 과정의 영향

앞서 살펴본 모국어의 간섭과 목표어의 복잡성 이외에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교사의 교수법 등이 학습자의 제2 언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장 교재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양태부사에 대한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 학습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많은 교재에서 개별 추측 양태부사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쩌면'이 제시되지 않은 교재가 많으므로 학습자가 '어쩌면'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학습하지 못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쩌면'의 학습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세 명의 학습자만이 교재에서 배웠다고 대답하였으며 다른 학습자들은 배운 적이 없다고 하거나 영상매체(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교재에서 다양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들의 뜻을 간단히 같은 중국어로 제시하는 방식은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다. 앞서 제시한 학습자와의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아마, 혹시, 어쩌면'을 모두 중국어 '可能'나 '也许'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서술어 양상 제시가 부족하고 교사가 수업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호응 양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통사적 호응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참여자 CK1>
연구자: 老师讲课的时候有教你们'아아'后面经常跟 '-(으)ㄹ 것이다'这一类的语尾吗？(선생님이 수업할 때 '아마'가 '-(으)ㄹ 것이다'와 호응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CK1: 嗯, 老师讲过。(네,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연구자: 那老师还讲过别的吗？(다른 거는요?)
CK1: 没有了。(없어요.)

<인터뷰 참여자 CC1>
연구자: 老师上课的时候有教你们'아아'后面经常跟'-(으)ㄹ 것이다'这一类的语尾吗？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아마가 '-(으)ㄹ 것이다'와 호응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CC1: 没有。(아니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호응 양상이 부족할 뿐더러 수업 내 추측 양태부사의 호응 양상에 대한 교수가 제한적이거나 언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교재에 단순한 문형 연습으로 이루어진 연습만 제시되어 있고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연습 활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학습자가 평소 수업에서 어떤 활동으로 연습했는지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뷰 참여자 CC4>
연구자: 你们学这些单词的时候，有做什么练习吗？
(이 단어들을 배울 때 어떤 연습 활동을 했어요?)
CC4： 一般老师会问问题，然后我们就用那个词来回答。
(선생님이 질문하고 우리가 그 단어로 만든 문장으로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인터뷰 참여자 CK3>
연구자: 你们学这些单词的时候，一般都怎么练习的？
(이 단어들을 배울 때 어떤 연습 활동을 했어요?)
CK3: 教材里面有的话，就用那个练习。没有的话，一般就不练习，有的时候老师会布置作业，用那个单词造五个句子。
(교재에서 연습 문항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보통 안 해요. 선생님이 과제를 주어요. 단어로 문장 5개를 만든 과제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교사는 주로 교재에서 제시된 연습 활동을 활용하거나 문장 만들기 과제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연습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추측 양태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고 말하기 활동과 쓰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Ⅳ.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방안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으로 대답하고 특정 표현을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 각각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 및 의미·화용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측 양태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과 Ⅲ장에서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방법을 근거로 하여 실제적인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목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민현식(2008:279)은 교육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고 있는데 목적은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이고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목표가 목적의 하위 개념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이룸으로써 추상적인 목적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목적을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추측 양태부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화자의 태도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가 ‘아마 2년이야’ 등과 같이 추측 양태부사와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오류에서 학습자가 '아마 2년일 것이다'라고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지 '2년이다'라고 확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같은 오류는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설마'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면서 화자의 의심이나 놀라움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 기대나 우려를 나타내는 '혹시'를 사용할 경우,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같은 오류는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의 복잡한 양상을 제한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의미·화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사적 측면에서도 오류를 자주 범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통사적 호응 양상을 익혀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징을 이해하고 추측 양태부사가 문장 내 다른 성분과 적절하게 호응하는 표현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의미적 특징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목표에 관한 내용을 다음 <표Ⅳ-1>과 같이 정리한다.

<표Ⅳ-1>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목표

목적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상황에 맞는 추측 양태부사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1.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징을 이해하고 추측 양태부사가 문장 내 다른 성분과 호응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알맞은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 선정은 Ⅱ장에서 제시하였던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양상과 분석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근거로 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을 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과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을 유의미하게 연결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 상황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사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추측 양태부사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도 제시한다.

2.1. 추측 양태부사 교육 내용의 선정 및 배열 기준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추측 양태부사는 서술어 호응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교재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하는 데 통사적 오류를 많이 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Ⅱ장에서 다룬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서 추측 양태부사와 자주 결합하지 않는 표현도 있으며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도 있기 때문에 호응 표현 모두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이 초·중급에서 주로 제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추측 양태부사 모두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배우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할 표현과 제시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학습에 필요하고 적합한 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위계화해야 한다.

김재욱(2009)은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항목의 위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와 난이도의 기준으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위계 설정 기준 두 가지 중 난이도를 결정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난이도와 사용 빈도 중 사용 빈도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 등을 활용하여 문법 항목의 사용 빈도에 따른 문법 항목의 위계화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김재욱(2009)의 위계화 기준에 따라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선정할 때 말뭉치에서의 호응 빈도를 우선시한다. 추측 양태부사와 Ⅱ장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 부분의 비율 측면에서 1.0% 이상의 표현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다.[77]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의 표현을 제외한 이유는 빈도가 낮은 표현은 추측 양태부사와 자주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빈도가 낮은 표현들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가치가 보다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빈도만으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여부를 결정하면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표현들이 제시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선정한 다섯 권의 교재에 최소 세 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현을 통사적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다. 대부분 교재에서 그 표현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한국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기준으로 선정한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은 교재의 제시 순서와 말뭉치의 호응 빈도에 근거하여 위계화 작업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추측 양태부사에 있으므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제시할 때, 이미 학습한 표현이나 그 추측 양태부사와 같은 단계에 속한 표현을 먼저 제시한다.[78] 추측 양태부사의 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호응하는 표현을 제시하면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남은 표현을 학습할 때 교사가 그 표현이 추측 양태부사와 자주 호응한다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살펴본 다음, 같은 단계에서 제시되는 표현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표현부터 빈도가 낮은 표현의 순서로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에 집중하게 하여 한국인

77) Ⅱ장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 부분에서 빈도가 10회 미만의 표현이 기타 추측 표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통사적 교육 내용을 설정할 때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10회 미만의 표현을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78) 추측 양태부사의 제시 단계 Ⅱ장 교재 분석에서 아마(초급), 혹시(초급), 설마(중급), 아무래도(중급), 어쩌면(고급)의 순서로 제시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보다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은 Ⅱ장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 부분에서 비율이 1.0% 이상이고, 선정된 교재 중 최소 세 권의 교재에서 제시된 표현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선정된 추측 양태부사의 배열은 교재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초·중·고급으로 나누어 같은 단계에서 제시되는 표현을 빈도 순서대로 제시한다. 이상의 기준은 전체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고 각 추측 양태부사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여 통사적 교육 내용을 선정할 것이다.

추측 양태부사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풍부한 부차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은 한꺼번에 모두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교재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를 중국어나 영어만으로 간단히 제시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미와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부차적인 의미를 모두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추측 양태부사 간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은 Ⅲ장에서의 사용 양상 분석과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학습자가 ‘아마’와 ‘혹시’, ‘혹시’와 ‘설마’, ‘어쩌면’과 ‘아마’, ‘혹시’ 등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추측 양태부사 모두를 제시하고 나서 추측 양태부사 간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추측 양태부사의 단계별로 제시하는 방식이 학습자의 이해를 강화하고 오류를 곧바로 교정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혹시’를 제시할 때 ‘혹시’와 ‘아마’를 함께 제시하여 두 추측 양태부사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중급 추측 양태부사 ‘설마’를 제시할 때 초급에서 배운 ‘혹시’와 비교함으로써 두 추측 양태부사의 차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의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고급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을 제시할 때, 추측 양태부사 전반에 대하여 비교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각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2. 개별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내용

(1). '아마(도)'의 교육 내용

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아마'는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통사적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추측 표현만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통사적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마'가 의문문에서 쓰이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주로 평서문에서 쓰이므로 평서문에서 쓰이는 표현을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아마'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 비율이 1.0% 이상이고, 최소 세 권의 교재에서 제시되며, 평서문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사적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각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Ⅳ-2>와 같다.

<표Ⅳ-2> '아마(도)'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79]

표현[80]	서울대	연세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韓國語
-(으)ㄹ 것이다	1B 10과	1권 8과 3권 10과	1권 7과	1권 17과 1권 18과	1권 19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3B 12과	-	2권 15과	3권 7과	3권 4과
-(으)ㄹ지(도) 모르다	2B 13과 4B 12과	2권 6과 3권 8과	-	3권 10과	3권 12과
-(으)ㄴ/는/(으)ㄹ 것 같다	2A 4과 2A 6과 2A 7과	1권 9과	1권 7과 3권 27과	2권 1과 3권 6과	1권 16과
-겠-	2A 8과	1권 9과	1권 3과 2권 11과 2권 9과	1권 19과 2권 6과	1권 14과 2권 5과
-(으)ㄴ가 보다	3A 4과	2권 8과	2권 16과	2권 18과	2권 8과
-나 보다	3A 4과	2권 8과 5권 3과	2권 16과	-	2권 14과 3권 1과
단독 사용	-	-	-	-	-
-(으)ㄹ걸(요)	3B 15과	3권 4과	2권 25과	-	4권 8과
-(으)ㄴ/는/(으)ㄹ 듯하다	4A 9과	-	5권 42과	3권 17과	3권 5과

79)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이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는 목적은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교육 내용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추측 양태부사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기준을 마련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으)ㄹ 테니까	2B 16과	2권 10과	2권 15과	-	3권 9과
-(으)ㄹ 테데	3A 3과	3권 2과 3권 5과	3권 21과	-	2권 6과

위 <표Ⅳ-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급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호응하는 표현은 주로 초·중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추측 양태부사 호응 표현의 배열 기준에 따라 먼저 초급에서 빈도 순서대로 표현을 제시한다. '아마'와 호응 비율이 가장 높은 표현 '-(으)ㄹ 것이다'가 초급 교재에서 제시되므로 통사적 교육 내용을 설정할 때 학습자에게 '아마 -(으)ㄹ 것이다' 문형을 먼저 제시한다. 다음으로 빈도 순서대로 '아마 -(으)ㄴ/는/(으)ㄹ 것 같다' 문형과 '아마 -겠다' 문형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아마'가 단독 사용되는 용법이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학습자가 '아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초습에서 제시해야 한다.

Ⅲ장에서 학습자의 오류가 아닌 통사적 사용 양상을 분석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중급에서 학습자에게 '아마'와 호응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제시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급에서 제시된 표현들을 '아마'와 호응하는 빈도 순서에 따라 제시 순서를 정한다. 따라서 주로 중급 교재에서 제시되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표현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중급 학습자에게 제시한 다음에 '-(으)ㄹ지(도) 모르다'를 제시한다. 대부분 교재에서 '-(으)ㄴ가 보다'[81]와 '-나 보다'를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으)ㄴ가 보다' 문형과 '아마 -나 보다' 문형을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아마'와 호응하는 비율이 보다 낮은 문형인 '아마 -(으)ㄹ걸(요)', '아아 -(으)ㄴ/는/(으)ㄹ 듯하다', '아마 -(으)ㄹ 테니까', '아마 -(으)ㄹ 텐데'는 마지막에서 제시한다.

Ⅱ장에서 논의한 '아마'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아마'의 의미·화용적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Ⅲ장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세 가

80) 이 절에서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의 표들에서 표현의 순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빈도 순서대로 나타난다.

81) Ⅱ장 추측 양태부사의 서술어 호응 양상 부분에서 '-(으)ㄴ가'류, '-(으)ㄹ까'류, '-싶다'류, '-(으)ㄹ 터이다'류 등을 대표형으로 제시하였지만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교재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형태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지 용법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마'가 수치나 수령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는 용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마'가 추측 표현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겠다' 등과 함께 쓰여 부드러운 태도로 제안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용법이다. 셋째, '아마'가 단독 사용될 때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용법이다. '아마도'는 '아마'를 강조하는 말로서 '아마'와 통사적과 의미·화용적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아마(도)'의 교육 내용과 제시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h colspan="2">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th><th>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th></tr>
<tr><td colspan="2">주로 평서문에서 쓰여 추측 표현과 호응한다.</td><td>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이 높을 때 추측을 나타내는 말</td></tr>
<tr><td>초급</td><td>①아마 -(으)ㄹ 것이다
②아마 -(으)ㄴ/는/(으)ㄹ 것 같다
③아마 -겠다
④아마/아마도 단독 사용</td><td rowspan="2">1.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
2. 부드러운 태도로 제안이나 권유를 표현하는 상황
3. 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상황</td></tr>
<tr><td>중급</td><td>⑤아마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⑥아마 -(으)ㄹ지(도) 모르다
⑦아마 -(으)ㄴ가 보다, -나 보다
⑧아마 -(으)ㄹ걸(요)
⑨아아 -(으)ㄴ/는/(으)ㄹ 듯하다
⑩아마 -(으)ㄹ 테니까,
-(으)ㄹ 텐데</td></tr>
<tr><td colspan="3">아마도: '아마'를 강조하는 말</td></tr>
</table>

(2). '혹시'와 '혹시나'의 교육 내용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혹시'는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두루 쓰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평서문에서 주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통사적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의문문에서 쓰인 표현과 평서문에서 쓰인 추측 표현을 위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통사적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혹시'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 비율이 1.0% 이상이며, 최소 세 권의 교재에서 제시되고, 의문문에서 쓰이는 표현과

평서문에서 쓰이는 추측 표현을 통사적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각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혹시'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표현		서울대	연세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韓國語
-(으)ㄹ까 보다		-	3권 7과 4권 10과	2권 26과	3권 2과	-
-(으)ㄹ지(도) 모르다		2B 13과 4B 12과	2권 6과 3권 8과	-	3권 10과	3권 12과
-(으)ㄹ까(요)?		2A 5과	1권 4과	1권 3과 2권 24과	1권 21과 2권 12과	1권 18과
-(으)ㄴ/는지-		4A 7과	-	5권 41과	-	1권 20과
일반의문문	아/어(요)?	1A 3과	1권 5과	1권 6과	1권 18과	1권 17과
	-냐?	2B 10과	-	2권 14과	-	1권 17과
	-(으)ㄴ/는가?	2A 9과 4B 12과	2권 5과	2권 16과	-	1권 20과
	-ㅂ/습니까?	1A 1과	1권 1과	1권 1과	1권 13과	1권 11과
	-니?	2B 10과	2권 4과	2권 14과	2권 7과	1권 17과
-나(요)?		2A 9과	2권 5과	2건 16과	-	-

<표Ⅳ-3>에 따르면 초급 추측 양태부사 '혹시'는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 일반 의문문 표현이 주로 초급에서 제시되므로 이들을 학습자에게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선정된 모든 교재에서 하십시오체의 의문문 표현 '-ㅂ/습니까?'가 가장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혹시-ㅂ/습니까?'를 제시한 다음에 해체(해요체)의 의문문 표현 '혹시 -아/어(요)?'를 제시해 주며 해라체의 의문문 표현 '혹시 -(으)냐?', '혹시 -(으)니?', 하게체의 의문문 표현 '혹시 -(으)ㄴ/는 가?' 문형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급에서 '혹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많이 나타나지만 일반 의문문 표현이 대부분 교재에서 '혹시' 보다 먼저 제시되므로 학습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요)?'와 '-(으)ㄹ까(요)?'가 주로 초급에서 제시되므로 이어서 '혹시 -나(요)?', '혹시-(으)ㄹ까(요)?' 문형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평서문에서 쓰인 표현 중에서 '-(으)ㄹ까 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재에서 주로 중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에게 '혹시 -(으)ㄹ까 봐-' 문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음에 빈도 순서대로 '혹시 -(으)ㄹ지(도) 모르다', '혹시 -(으)ㄹ지(도) 모르겠다' 문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연결 어

미 '-(으)ㄴ/는지-'가 말뭉치에서 '혹시 -(으)ㄴ/는지 아세요?'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단순한 '-(으)ㄴ/는지'의 형태보다는 '혹시 -(으)ㄴ/는지 아세요?' 문형으로 제시함을 통해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다.

Ⅱ장에서 제시한 '혹시'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혹시'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Ⅲ장에서 학습자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혹시'를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한 양상이 발견되었으므로 학습자에게 '혹시'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혹시'가 추측을 나타낼 때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또한 조사 '라도'와 결합하여 '혹시라도'로 쓰이는 형태를 교육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혹시나'[82]는 '혹시'를 강조하는 말로서 통사적으로 '하다'와 많이 호응한다. 이처럼 '혹시'와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말뭉치에서 '혹시'와 '하다'가 결합할 때 주로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하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혹시나 하는' 뒤에 주로 생각, 마음, 심정 등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를 문형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혹시나'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혹시'와 '아마'를 구별하지 못하여 의미·화용적 층위에서 오류를 범하는 양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혹시'와 '아마'의 차이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혹시'와 '아마'의 차이를 호응하는 문형, 확신의 정도, 화자의 태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혹시'는 의문문, 평서문과 두루 호응하지만 '아마'는 의문문과 자주 호응하지 않는다. 둘째, '혹시'와 '아마'는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측을 나타내지만 확신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아마'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개연성이 높을 때 쓰이는 추측 양태부사이고 '혹시'는 사실과 그 사실의 반대 경우 모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자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 양태부사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즉 '혹시'가 '아마'보다 확신의 정도가 낮다. 셋째, '혹시'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기대, 우려, 걱정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는 특별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

82) Ⅱ장 '혹시나'의 서술어 호응 양상에 따라 '혹시나'는 주로 '하다', '-(으)ㄹ까'류 와 호응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혹시’와 ‘혹시나’의 교육 내용과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colspan="2">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td><td>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td></tr>
<tr><td colspan="2">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두로 쓰이며 평서문에서 주로 추측 표현과 호응한다.</td><td>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말</td></tr>
<tr><td>초급</td><td>①일반 의문문: 혹시 -(으)ㅂ/습니까?, 혹시-아/어(요), 혹시-니?, 혹시-냐?, 혹시-(으)ㄴ/는 가?
②혹시 -나(요)?
③혹시 -(으)ㄹ까(요)?
④혹시나 해서-/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마음/심정에 -</td><td rowspan="2">1.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상황
2. 화자의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td></tr>
<tr><td>중급</td><td>⑤혹시(나) -(으)ㄹ까 봐-
⑥혹시 -(으)ㄹ지(도) 모르(겠)다
⑦혹시 -(으)ㄴ/는지 아세요?</td></tr>
<tr><td colspan="3">1. 조사 ‘라도’와 결합하여 ‘혹시라도’로 쓰일 수 있다.
2. ‘혹시나’는 ‘혹시’를 강조하는 말로써 ‘혹시’와 통사적 차이점은 ‘혹시나’는 ‘하다’와 자주 호응하지만 ‘혹시’는 ‘하다’와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td></tr>
<tr><td colspan="3">‘혹시’와 ‘아마’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
1. 문형: ‘혹시’→평서문&의문문, ‘아마’→평서문
2. 확신의 정도: 아마 > 혹시
3. 화자의 태도: ‘혹시’는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지만 ‘아마’는 특별한 태도를 나타나지 않는다.</td></tr>
</table>

(3). ‘아무래도’의 교육 내용

Ⅱ장에서 밝혔듯이 ‘아무래도’는 주로 평서문에서 쓰이며 추측 표현, 비추측 표현과 두루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에게 통사적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추측 표현을 위주로 제시한 다음에 비추측 표현도 ‘아무래도’와 호응한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 비율이 1.0% 이상이며, 최소 세 권의 교재에서 제시된 표현을 통사적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각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Ⅳ-4>와 같다.

<표Ⅳ-4>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표현	서울대	연세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韓國語
-(으)ㄴ/는/(으)ㄹ 것 같다	2A 4과 2A 6과 2A 7과	1권 9과	1권 7과 3권 27과	2권 1과 3권 6과	1권 16과
형용사	-	-	-	-	-
-(으)ㄹ 수 있다/없다	1B 16과	1권 9과	1권 7과 2권 29과	2권 2과	1권 13과
-겠-	2A 8과	1권 9과	1권 3과 2권 11과 2권 9과	1권 19과 2권 6과	1권 14과 2권 5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3B 12과	-	2권 15과	3권 7과	3권 4과
-(으)ㄴ/는/(으)ㄹ 듯하다	4A 9과	-	5권 42과	3권 17과	3권 5과
-(으)ㄹ 것이다	1B 10과	1권 8과 3권 10과	1권 7과	1권 17과 1권 18과	1권 19과
-나 보다	3A 4과	2권 8과 5권 3과	2권 16과	-	2권 14과 3권 1과
-(으)ㄹ 테니까	2B 16과	2권 10과	2권 15과	-	3권 9과
-(으)ㄹ 테데	3A 3과	3권 2과 3권 5과	3권 21과	-	2권 6과
비추측 표현	-	-	-	-	-

중급 추측 양태부사 ‘아무래도’와 호응하는 추측 표현이 주로 초·중급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빈도 순서대로 표현을 제시한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초급 교재에서 제시되며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으)ㄴ/는/(으)ㄹ 것 같다’ 문형을 먼저 제시한다. Ⅱ장에서 ‘아무래도’의 통사적 호응 양상에서 형용사와 비추측 표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아무래도’가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통사적 특성을 습득한 후, ‘아무래도’가 형용사와 추측을 나타나지 않는 표현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한다.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추측 표현은 빈도 순서로 ‘아무래도 -(으)ㄹ 수 있다/없다’, ‘아무래도 -겠다’, ‘아무래도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아무래도 -(으)ㄴ/는/(으)ㄹ 듯하다’, ‘아무래도 -(으)ㄹ 것이다’, ‘아무래도 -나 보다’, ‘아무래도-(으)ㄹ 테니까’, ‘아무래도-(으)ㄹ 테데’ 등을 제시한다. ‘아무래도’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많지만 대부분의 표현이 초급에서 제시되어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것이므로 중급에서 '아무래도'를 교수할 때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Ⅱ장에서 제시한 '아무래도'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아무래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Ⅲ장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 학습자가 '아무래도'의 기본 의미를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인식한 모습을 보이므로 '아무래도'가 추측을 나타낼 때 확신의 정도가 높다는 점과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하는 상황에 쓰인다는 점만 강조하면 학습자의 '아무래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아무래도'의 교육 내용과 제시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
주로 평서문에서 쓰여 추측 표현과 비추측 표현을 두루 호응한다.		'아무리 생각하거나 노력하여도 결국에는'의 뜻으로 거의 확실한 판단으로 추측하는 말
중급	①아무래도 -(으)ㄴ/는/(으)ㄹ 것 같다 ②아무래도 -형용사 ③아무래도-비추측 표현 ④아무래도 -(으)ㄹ 수 있다/없다 ⑤아무래도 -겠다 ⑥아무래도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⑦아무래도 -(으)ㄴ/는/(으)ㄹ 듯하다 ⑧아무래도 -(으)ㄹ 것이다 ⑨아무래도 -나 보다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하는 상황

(4). '설마'의 교육 내용

Ⅱ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설마'는 주로 추측 표현 '-겠-'과 결합하여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두루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통사적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겠-'과 관련된 문형을 위주로 제시하는 것이 Ⅲ장에서 발견된 학습자가 '설마'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서 해체 의문문 어미 '-아/어'를 사용하는 비율을 줄이고 학습자가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더욱 선명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설마'와 호응하는 표현 중에 비율이 1.0% 이상이고, 최소 세 권의 교재에서 제시된 표현을 통사적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각 표현이 교재

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Ⅳ-5>와 같다.

<표Ⅳ-5> '설마'와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표현	서울대	연세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韓國語
-겠-	2A 8과	1권 9과	1권 3과 2권 11과 2권 9과	1권 19과 2권 6과	1권 14과 2권 5과
+ 하다	-	-	5권 48과	-	-
단독 사용	-	-	-	-	-

말뭉치 분석에 의하여 중급 추측 양태부사 '설마'가 '-겠-'과 결합할 때 주로 '설마 -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지 않겠지?' 등의 형태로 나타내며 교재 분석에 의하여 주로 '설마 A/V-겠어요?', '설마 -(으)ㄴ/는 것은 아니겠지요?' 등의 문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미 '-겠-'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겠-'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에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즉, '설마'와 주로 호응하는 표현을 '설마 -겠어요?', '설마 -지 않겠지요?', '설마 -(으)ㄴ/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는 건 아니겠지요?' 등의 문형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외에 '설마'가 '하다'와 결합하는 용법과 단독 사용되는 용법이 많은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학습자가 '설마'를 전면적 인식시키기 위하여 제시해야 한다. '설마'가 '하다'와 결합하는 경우에 주로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며'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며-'의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더욱 쉽게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Ⅱ장에서 제시한 '설마'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마'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Ⅲ장에서 학습자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설마'를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한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학습자에게 '설마'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인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설마'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이 존재하므로 학습자에게 '설마'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추측을 나타낸다는 점을 제시하여 강조한다. 그리고 '설마'가 단독 사용할 때도 의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설마'와 '혹시'의 차이에 대하여 '설마'는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혹시'와 차이점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설마'는 화자의 놀람, 의심, 풍자, 조롱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하며 '혹시'는 화자의 기대, 우려, 걱정 등과

같은 태도 표현한다는 차이점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설마'의 교육 내용과 제시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두로 쓰이며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자주 호응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의 뜻이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말.
중급	①설마 -겠어요?, 설마 -지 않겠지요? ②'설마 -(으)ㄴ/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으)ㄴ/는 건 아니겠지요? ③설마 하면서-, '설마 하며-' ④설마 단독 사용	1. 화자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상황 2. 화자의 의심을 표현하는 상황 3. 화자의 풍자, 조롱, 비웃음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하는 상황 속담: 설마가 사람 죽인다/잡는다
비교	'설마'와 '혹시'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 '설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놀람이나 의심, 비웃음 등 태도를 표현하며 '혹시'는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 태도를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5). '어쩌면'의 교육 내용

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어쩌면'은 주로 평서문에서 추측 표현과 호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통사적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추측 표현을 위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통사적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은 '어쩌면'과 호응하는 표현 중에 비율이 1.0% 이상이고, 최소 세 권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추측 표현을 통사적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각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단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Ⅳ-6>과 같다.

<표Ⅳ-6> '어쩌면'과 호응하는 표현의 제시 양상

표현	서울대	연세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韓國語
-(으)ㄹ지도 모르다	2B 13과 4B 12과	2권 6과 3권 8과	-	3권 10과	3권 12과
-(으)ㄹ 수 있다/없다	1B 16과	1권 9과	1권 7과 2권 29과	2권 2과	1권 13과
-(으)ㄹ 것이다	1B 10과	1권 8과 3권 10과	1권 7과	1권 17과 1권 18과	1권 19과
-(으)ㄹ 것 같다	2A 4과 2A 6과	1권 9과	1권 7과 3권 27과	2권 1과 3권 6과	1권 16과

	2A 7과				
-겠-	2A 8과	1권 9과	1권 3과 2권 11과 2권 9과	1권 19과 2권 6과	1권 14과 2권 5과

고급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과 호응하는 추측 표현은 ‘-(으)ㄹ지(도) 모르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어쩌면 -(으)ㄹ지(도) 모르다/모르겠다’ 문형을 가장 먼저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다음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것이다’가 모두 초급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어쩌면 -(으)ㄹ 수 있다/없다’, ‘어쩌면 -(으)ㄹ 것이다’ 문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빈도가 비교적 낮은 문형 ‘어쩌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 ‘어쩌면 -(으)겠’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Ⅱ장에서 제시한 ‘어쩌면’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어쩌면’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어쩌면’이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는 경우는 ‘추측’에 속하지만 Ⅲ장에서 학습자가 이같은 상황에서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류를 생산하는 양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어쩌면’이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는 용법을 제시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추측 양태부사 간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앞서 제시한 ‘아마’와 ‘혹시’, ‘혹시’와 ‘설마’의 차이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 양태부사 전반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유사한 추측 양태부사의 차이를 문형, 확신의 정도와 화자의 태도 등의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어쩌면’의 교육 내용과 제시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
주로 평서문에서 쓰여 추측 표현과 자주 호응한다.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여 추측을 나타나는 말
고급	①어쩌면 -(으)ㄹ지(도) 모르(겠)다 ②어쩌면 -(으)ㄹ 수 있다/없다 ③어쩌면 -(으)ㄹ 것이다 ④어쩌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 ⑤어쩌면 -겠	1. 화자가 추측을 할 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 2.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
비교	추측 양태부사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 1. 문형: 아마/아무래도/어쩌면→평서문, 설마/혹시→평서문과 의문문	

	2. 확신의 정도: 아무래도 > 아마 > 어쩌면 > 혹시 3. 화자의 태도: '혹시'는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 태도를 표현하며, '설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의심이나 놀람, 비웃음 등 태도를 표현하고, '아무래도'는 '양보적' 의미를 나타낸다. '아마'와 '어쩌면'은 특별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3. 추측 양태부사 교육의 방법

3.1. 형태 초점 교수법을 통한 추측 양태부사의 이해 교육

앞서 논의하였듯이 추측 양태부사는 다양한 서술어 호응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다양한 호응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 표현을 선호하고 오류를 많이 범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추측 양태부사의 다양한 의미·화용적 차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의미·화용적 특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은 바로 학습자가 언어 형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문법 사용의 정확성도 추구하는 교수법이다(한국어교육학 사전, 2014:971).

롱(M.H. Long)이 '형태 초점'의 개념을 제안한 후 외국어 교육에서 형태 초점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형태 초점 교수법에 관한 연구 중에서 도티와 윌리엄스(C. Doughty& J. Williams, 1998)가 형태 초점 기법[83]을 총 11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크게 입력 중심과 출력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력 중심의 형태 초점 접근법의 구체적인 기법에는 입력 홍수(Input flood)와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83) 도티와 윌리엄스 (C. Doughty& J. Williams, 2002:258-259)에서 형태 초점의 기법을 ①입력 홍수(Input flood), ②필수적 언어 과제(Task-essential language), ③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④의미 형상(Negotiation), ⑤고쳐 말하기(Recast), ⑥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⑦상호 작용 (Interaction enhancement), ⑧받아쓰기(Dictogloss), ⑨의식 고양 과제 (Consciousness-raising tasks), ⑩입력 처리 (Input processing), ⑪오류 유도 (garden path)를 제시하였다. (용어는 우형식(2012)와 임학혜(2016)를 참조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등이 있다. 형태 초점 접근법의 출력 중심 기법으로 받아쓰기 (Dictogloss)와 고쳐 말하기(Recast), 의식 고양 과제(Consciousness-raising task), 오류 유도(Garden path) 등이 있다(우형식, 2012).

Ⅲ장에서 한국어 학습 시간이 적은 재한 학습자가 학습 시간이 더 많은 재중 학습자보다 추측 양태부사 사용에 적절성 측면에 더 우수하다는 양상을 검증하였다. 재한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어 추측 양태부사 학습에서 입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본고에서 형태 초점 교수법을 바탕으로 입력 기법의 입력 홍수(Input flood),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 홍수(Input flood)는 목표 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없이 입력 자료 속에서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목표 언어 형태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다(우형식, 2012). 입력 홍수 기법을 활용하여 교사가 다량의 간단한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추측 양태부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 예문은 추측 양태부사의 다양한 통사적 호응 양상이 나타나는 예문으로 선정한다. 학습자가 다량의 예문으로 스스로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과 기본 의미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는 읽기 자료나 의사소통적 과제 활동 등 담화 수준의 입력 자료 속에서 목표 언어 형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두드러지게 처리하여 학습자에게 목표 형태에 주목하게 하는 방법이다(우형식, 2012). 시각적 자료와 청각적 자료 입력하기에 있어 드라마의 음성과 영상으로 이루어진 매체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학습자에게 실생활 속 언어 사용과 더불어 한국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학습자가 한국인들의 말하기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즉 드라마를 교육용 텍스트로 삼을 경우 학습 동기는 물론이고 교수 내용을 입력하고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미향 외, 2013:160).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심혜원 외(2006)에서도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구어 텍스트를 접하게 하고 실제적인 언어활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살아 있는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실제 한국어 화자의 발화 속도나 억양을 접할 수 있으며 대화자의 성별, 나이, 직업, 감정에 따른 언어 사

용의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의미를 밝혔다. 따라서 드라마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면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인 특성의 이해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활동은 실제 대화 상황과 비슷하게 설계한다고 해도 실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이미향 외, 2013). 특히 재중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적어 드라마를 활용하면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실제성이 높은 언어 사용을 접하게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인 특성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84]

이미향 외(2013)에서 제시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원리와 드라마를 교육용 텍스로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드라마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드라마 선정은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드라마로 한다. 인기가 있는 드라마는 학습자가 이미 시청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드라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선정한 드라마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부분을 적절한 분량으로 편집하여 제시한다.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학습 동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1-2분 정도로 편집한다. 수업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은 총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드라마를 보여 준 다음에 드라마 대본에서 추측 양태부사가 담긴 부분을 추출하여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 부분의 아래에 밑줄을 치고 볼드

84) 이미향 외(2013:162)에서 드라마 활용한 한국어교육 원리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살제적인 언어 사용을 위하여 발화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음성과 영상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도 증가시키고 학습자의 이해도 높일 수 있다. 넷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입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드라마를 교육용 텍스트로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시할 드라마의 내용이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분량을 편집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학습 동기와 흥미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말하기나 쓰기 활동 등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하여 교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체로 표시하여 시각적 입력을 강화한다.

넷째, 학습자가 대본을 보면서 다시 드라마를 시청할 때 화자의 태도 등에 유의하도록 하여 추측 양태부사와 호응하는 표현과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추측 양태부사와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입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형태 초점 접근법에 근거하고 드라마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청각적 입력과 시각적 입력을 병행하는 이해 교육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3.2.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통한 추측 양태부사의 표현 교육

의사소통적 접근법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는 본고의 교육 목적과 같다. 브라운(2001; 권오량·김영숙, 2005:51)에서 '의사소통적 수업을 받은 학생은 궁극적으로는 연습을 하지 않은 교실 밖 상황에서, 배운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교실 수업의 과업은 교실 밖의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학습들에게 갖추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업에서 추측 양태부사의 다향한 통사적 호응 양상과 풍부한 의미·화용적 특성을 학습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데에 의사소통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의미소통적 접근법에는 교실 밖의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담은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추측 양태부사의 이해 교육에서 제시한 드라마 자료가 표현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향 외(2013)에서 학습자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말하기 전략을 배울 수 있으며 특정 표현이 발화되는 상황을 알게 됨으로써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드라마와 같은 실제성이 담긴 교육 자료를 활용하면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가 이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말하기와 쓰기

활동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김선정 외(2010)에서 말하기와 쓰기는 모두 이해 영역에 대비되는 표현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말하기는 구어적 특성이 강한 반면 쓰기는 문어적 특성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표현 교육에서 말하기와 쓰기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제시한다.

브라운(2001; 권오량·김영숙, 2005:338)에서 말하기 기법의 설계 원리에서 언어를 강조하여 정확성을 다루는 활동에서부터 메시지를 강조하여 상호작용, 의미, 유창성을 다루는 활동까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논술하였다. 이 원리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활동의 유형 및 순서와 관련된 것이다. 언어를 강조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상대적 적게 요구되는 쉬운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습자가 교사가 제시하는 예문과 드라마 대본을 소리 내어 읽는 구도 연습이나 교사가 대본의 상황에 근거하여 그와 관련된 학생의 생각에 대해 질의하면 학습자가 응답하는 방식의 반응형 활동[85]을 할 수 있다. 메시지를 강조하는 상호작용 활동은 소집단 활동을 들 수 있다. 브라운(2001; 권오량·김영숙, 2005:219)에서 소집단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소집단 활동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집단 활동은 상호작용적 언어를 생성한다.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교실에서 학습자의 발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상호작용적 언어의 다양성과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소집단 활동은 정의적 안정감을 준다. 개별 학습자가 전체 앞에서 발표할 때 비난이나 거부를 느끼는 경우가 있으나 소집단 활동은 그러한 학습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셋째,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전체 수업 활동은 학습자에게 은폐막을 제공하지만 소집단 활동은 행동과 진도에 대한 책임을 집단구성원에게 다소간 동등하게 부여한다. 넷째, 소집단 활동은 학습의 개별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각각의 학습자는 다른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집단 활동은 다양한 능력의 학습자들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한재영 외(2005:128)에서 이상의 장점 외에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직접 말하는 소집단 활동은 교실 밖 현실 세계의 언어 사용 방식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에 변화를 줄 수 있다

85) 브라운(2001; 권오량·김영숙, 2005:336)에서 반응형 말하기 활동은 교사나 다른 학습자의 질문 혹은 의견에 대한 짧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집단 활동은 교실에서 교사의 발화량을 줄이고 학습자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며 말하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말하기 활동 후에 이와 관련된 쓰기 활동을 마련할 수 있다. 브라운(2001; 권오량·김영숙, 2005:415)에서 '의사소통적 접근법의 글쓰기는 교사의 역할은 권위적인 지시사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작문의 사고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이해 교육에서 사용한 드라마 상황이나 말하기 활동에서 제시한 상황을 이용하여 쓰기 준비 활동을 마련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록 브레인스토밍이나 목록에 기록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86] 그리고 학습자가 쓴 작문에 대한 충분히 피드백을 제공하여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말하기 활동과 쓰기 활동을 병행하는 표현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표현 연습을 할 수 있다.

4. 추측 양태부사의 실제 교육 방안

4.1.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층위와 의미·화용적 층위 모두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선 3절에서 소개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제시(Presentation)-연습

86) 브라운(2001; 권오량·김영숙, 2005:425)은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록 격려하는 데 9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제시한 방법 이 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광범위하게) 글을 읽기 ②글을 대충 훑어 읽기와/또는 꼼꼼히 읽기 ③약간의 외부 조사 실시 ④무리 짓기(주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다른 단어들을 추가하며, 자유연상을 사용한다) ⑤화제나 문제를 토론하기 ⑥교사가주도한 문제와 조사하기 ⑦자유 작문

(Practice)-발화(Production) 세 단계로 구성되는 PPP모형, 과제1(Task1)-교육(Teach)-과제2(Task2) 세 단계로 구성되는 TTT모형, 관찰(Observation)-가설(Hypothesis)-실험(Experiment) 세 단계로 구성되는 OHE모형 등이 있다. 그중에 학습자의 탐구·발견 능력을 중요시하는 OHE모형이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여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종은(2005)에서 OHE모형의 수업 절차를 다음 <표Ⅳ-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Ⅳ-7> 이종은(2005)에서 OHE모형의 수업 절차

관찰 단계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통해 언어항목-어휘항목을 인지·인식할 수 있다. 학습 자료는 구어와 문어 텍스트(사전, 말뭉치 자료포함), 그림, 미디어 장면, 오디오 클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의 실제 자료 (authentic materials)를 사용한다.
가설 단계	학습자들은 관찰단계에서 발견한 어휘항목의 의미기능과 적절한 사용방법을 분석하고 내재된 규칙을 도출해 본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언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어휘항목에 대한 연습도 과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학습자들을 짝(pairs)이나 소집단(small groups)으로 나누어 (서로 같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한 후 모두 함께 나누고 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어휘항목을 학습한다.
실험 단계	학습자들은 어휘항목을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단계를 통해 어휘항목에 대한 자신감을 신장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형태 초점 교수법과 의사소통 교수법을 기반으로 위의 OHE모형을 결합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관찰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교육 자료를 통해 추측 양태부사를 인식할 수 있다. 관찰 단계는 추측 양태부사의 주제를 도입하는 단계와 추측 양태부사의 예시를 제시하는 단계로 나눈다. 예시 단계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의 입력 홍수와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전이나 말뭉치 예문과 실제 의사소통 상황 정보를 담긴 교육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관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가설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관찰단계에서 발견한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내재된 가설을 세워 본다. 이때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는 추측 양태부사에 관한 질문을 하고,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사고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설명

을 듣고 나서 세운 가설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즉 가설 단계는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와 교사가 명시적으로 설명을 제시하는 단계로 나눈다.

실험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적 과제를 통해 학습한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한다. 이때 실제성 있는 말하기와 쓰기 의사소통 활동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말하기 활동은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말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으로 연습한 후 교사가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표Ⅳ-8>과 같다.

<표Ⅳ-8>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 모형

관찰	①도입 단계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주제 도입
	②예시 단계	예문과 상황 정보를 담긴 대화문을 제시를 통하여 목표 어휘에 대해 관찰하도록 함
가설	③발견 단계	목표 어휘의 특성을 발견도록 유도
	④제시 단계	명시적 설명으로 목표 어휘의 특성을 제시
실험	⑤연습 단계	말하기와 쓰기 연습 활동을 통하여 목표 어휘의 사용 능력 신장
	⑥마무리 단계	·연습 단계에서 범하는 오류에 대해 피드백 제공 ·목표 어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4.2.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실제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따르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급 단계의 추측 양태부사 '아마'의 통사적 사용에 오류를 보였으며, 중급 추측 양태부사 '설마'의 사용에 화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고, 고급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의 사용에 있어 통사적과 의미·화용적 사용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본 절에서 초급에 속하는 '아마', 중급에 속하는 '설마', 고급에 속하는 '어쩌면'의 추측 양태부사 세 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마'를 교육할 때 초급에서 배운 '혹시'와 비교를 통해 두 추측 양태부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

한 고급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을 교수할 때, 추측 양태부사 전반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각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초급 추측 양태부사 '아마'에 대한 수업

초급 추측 양태부사 '아마'의 수업 구성은 아래의 <표Ⅳ-9>와 같다.

<표Ⅳ-9> '아마'의 수업 구성

학습자	초급 학습자
학습 목표	추측 양태부사 '아마'의 의미를 이해하며 통사적 호응 제약을 익혀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개연성이 높을 때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 · '아마'의 통사적 호응 표현 (초급 부분)
학습 시간	45분

①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 학습 목표 어휘를 도입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와 대화하면서 추측 양태부사 '아마'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도입 예시

교사: 가을 날씨가 좋죠. 여러분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습자1: 친구랑 영화를 볼 거예요.

학습자2: 가족이랑 등산을 갈 거예요.

교사: ㅇㅇ,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학습자3: 약속이 없어요. 기숙사에서 빨래를 할 거예요. 선생님, 주말에 뭐하세요?

교사: 집에서 쉬고 싶은데, 친구가 박물관에 가자고 해서 **아마** 그 친구랑 박물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②예시 단계

예시 단계에서 교사가 사전이나 말뭉치 예문과 실제 의사소통 정보를 담긴 대화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아마'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스스로 '아마'의 통사, 의미, 화용 등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급 학습자에

게 예문을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짧은 문장으로 제시하고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한다. 드라마 대본과 같은 상황 정보를 담은 대화문을 제시하기 이전에 편집한 짧은 동영상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측 양태부사가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한다. 학습자가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본을 보며 소리 내어 읽는 구도 연습을 통하여 '아마'의 사용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문 예시

·아마 그녀는 서울에 없을 거야.
·아마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마 우리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거야.
·우리 화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아마 수천 억대가 넘을 것입니다.
·이 공사는 아마 가을까지 계속될 것 같다.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상황 예시

[상황1] 현석 어떻게 된 건가? 함께 있을 때 사라졌다며? 강철 네. 현석 그날 나한테 했던 말들, 그대로야? 강대표 말대로라면 탈출 한 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갔다는 건데 강철 **아마** 그**럴 겁니다.**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5회)
[상황2] 소희 가족들이 계실 거 아네요? 연주 네.. 소희 기다리시지 않겠어요? 강대표는 자기 생각만 하고 여기 붙들어놓고.. 연주 아직 모르**실거예요**. **아마.**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4회)
[상황3] 성무 니가 왜 자꾸 그리 끌려 들어갔는지 아냐..? 연주 아니요.. 성무 난 이제 알았다. 마지막에 너한테 유서를 남긴 거 보고 깨달았지.

	만화 주요인물이 된 거야 니가. **아마**.. 여주인공쯤 **되겠지.**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7회)
[상황4]	
헨리	너무 걱정 마. 종합검진 받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심각한 건 아닐거야.
진헌	... 내 생각엔 신경성 거식증인 거 같애. 며칠동안 밥은 안먹고 우유로 버티더라
진헌	!... **아마** 너랑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거 같애**
진헌	... (드라마-내 이름이 김삼순 7회)
[상황5]	
강철	그건.. 대답을 들으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뜻인가요?
연주	**아마도요**. 그래서 대답 못해요.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4회)

③발견 단계

발견 단계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아마'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추측 양태부사나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에 관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가 질문을 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시청한 후 소집단으로 활동을 통해 질문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질문 예시

질문1: '아마'의 뜻이 무엇이에요?

질문2: '아마'와 호응하는 표현은 주로 무엇이에요?

질문3: '아마'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요?

④제시 단계

제시 단계는 교사가 '아마'의 특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대답을 근거로 하여 학습자가 발견하지 못한 특성을 설명하고 잘못 추론한 특성을 정정하여 강조한다. 학습자가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을 듣

고 나서 세운 가설을 스스로 수정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아마'의 통사적 표현을 사용할 때 '-이다', '-야', '-아/어' 등과 같은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오류에 대하여 교사는 '아마'의 통사적 호응 표현을 강조하여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의미·화용적 정보	통사적 정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이 높을 때 추측을 나타내는 말 1.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 2. 부드러운 태도로 제안이나 권유를 표현하는 상황 3. 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대답을 간단히 하는 상황	주로 평서문에서 쓰여 추측 표현과 호응한다. ①아마 -(으)ㄹ 것이다 ②아마 -(으)ㄴ/는/(으)ㄹ 것 같다 ③아마 -겠다 ④아마/아마도 단독 사용
아마도: '아마'를 강조하는 말	

⑤연습 단계

연습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아마'의 사용을 충분히 연습하는 단계이다. 연습 활동은 쉽고 단순한 것에서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구성하여 연습하게 한다.

◆ 연습(말하기 활동)

김선정 외(2010)은 말하기 교육에는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급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초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문장 만들어 이야기하기, 문답이나 대화 완성하기, 질문에 답하기, 답을 듣고 질문 만들기 등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초급 추측 양태부사의 연습 활동으로 대화 완성하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짝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한다.

[상황1]
서윤, 지영이와 선우가 오늘 저녁 6시에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나 지나도 선우가 안 옵니다. 서윤이와 지영이가 되어 선우가 왜 늦는지에 대해 말해 봅시다.

서윤: 선우가 왜 아직도 안 와요/오죠/올까요?
지영: 아마 _____.

[상황2] 밥 먹는 중에 서윤이가 주말에 설악산 등산 계획을 말합니다.

서윤: 이번 주 주말에 가족이랑 설악산에 등산 갈 거예요.
지영: 좋겠네요. 단풍이 아름다울 거예요.
설악산까지 몇 시간 걸려요/설악산에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서윤: 버스를 타면 아마 _____.

[상황3] 서윤이가 지영이에게 카메라를 빌리고 싶어 합니다.

서윤: 카메라 있으면 주말에 좀 빌려 줄 수 있어요?
지영: 없어요. 아마 선우가 _____.

◆ 연습(글쓰기 활동)

학습자가 말하기 활동에서 맡은 역할로 일기 쓰기 활동을 제시한다.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수업에서 쓰기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학습자에게 과제로 남긴다.

●질문 예시
질문1: 오늘 어디에 갔어요?
질문2: 누구와 함께 갔어요?
질문3: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⑥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연습 단계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2). 중급 추측 양태부사 '설마'에 대한 수업

중급 추측 양태부사 '설마'의 수업 구성은 아래의 <표Ⅳ-10>과 같다.

<표Ⅳ-10> '설마'의 수업 구성

학습자	중급 학습자
학습 목표	· 추측 양태부사 '설마'의 의미를 이해하며 통사적 호응 제약을 익혀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추측 양태부사 '혹시'와 비교함으로써 '설마'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두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인식한다.
학습 내용	·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 · '설마'의 통사적 호응 표현 · '혹시'와 '설마'의 차이
학습 시간	45분

①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 학습 목표 어휘를 도입하기 위해, 교사가 그림을 학습자에게 보여 주고 학습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측 양태부사 '설마'를 이끌어 낸다.

◆도입 예시

<그림 Ⅳ-1> 노인

교사: 이 사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학습자1: 노인이 넘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교사: 맞아요. 요즘 이런 일이 많죠. 넘어진 노인을 도와줬는데 그 노인이 도와준 사람을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이라고 모함하는 사례 때문에 노인이 넘어져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도와 줄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학습자2: 저는 도와줄 거예요.

학습자3: 안 도와줄 거예요. 선생님는요?

교사: 사실은 선생님이 주말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학습자: 진짜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셨어요?

교사: 도와줬어요. 근데 모함당할 봐 **설마하면서** 도와줬어요. 다행히 그런 일이

아녔어요.

②예시 단계

예시 단계에서 교사가 사전이나 말뭉치 예문과 실제 의사소통 정보가 담긴 대화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설마'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스스로 '설마'의 통사, 의미, 화용 등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학습자에게 예문을 제시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한다. 드라마 대본과 같은 상황 정보가 담긴 대화문을 제시하기 전에 편집한 짧은 동영상을 학습자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며 추측 양태부사가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한다. 학습자가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본에서 '설마'의 사용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문 예시

·그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설마 도둑질이야 하겠습니까?
·설마 이 밤중에 나한테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그가 자기 부인을 죽었다는구먼.
·설마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겠지?

◆상황 예시

[상황1] 박교수: 니가 만화가 오성무 딸이라던데. 나 오늘 처음 들었다? 연주: 아... 박교수: 그럴 리가 있냐 **설마**? 아니지? 연주: 제 아버지 맞으신데요. 박교수: 진짜? 근데 넌 왜 그래?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1회)
[상황2] 박팀장: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으신 건 **설마 아니겠죠**...? 내용이 좀.. 연주: 그게 언제 올라왔다고요..? 박팀장: 새벽에요. 저희는 좀 전에 봤습니다.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6회)
[상황3]

강철: 그 놈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캐릭턴데. 연주: 몰라요 나도.. **설마** 아빠가 **그렸겠어요**..? 강철: 그럼 누가...? 연주: 모르지만.. 아빠일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왜요. 그리고 아빠는 다시는 그림 안 그리신다고..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9회)
[상황4] 연주: **설마**..! 내가 진짜 만화 캐릭터가 된 거야? 주인공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피도 나고 진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드라마-더블유 두 개의 세계 9회)

③발견 단계

발견 단계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설마'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설마'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는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가 질문을 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시청한 후 소집단 활동을 통해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질문 예시

질문1: '설마'의 뜻이 무엇이에요?

질문2: '설마'와 호응하는 표현은 주로 무엇이에요?

질문3: '설마'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여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여요?

질문4: '설마'가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감정이나 태도를 보여요?

질문5: 전에 배운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 '혹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④제시 단계

제시 단계는 교사가 '설마'의 특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대답을 근거로 하여 학습자가 발견하지 못한 특성을 설명하고 잘못 추론한 특성을 정정하여 강조한다. 특히 Ⅲ장에서 학습자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설마'를 의문문에서 쓰이는 부사로 인식한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설마'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인 점을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교사의 명시

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세운 가설을 스스로 수정한다.

의미·화용적 정보	통사적 정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의 뜻이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말. 1. 화자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상황 2. 화자의 의심을 표현하는 상황 3. 화자의 풍자, 조롱, 비웃음 등과 같은 태도를 표현하는 상황 속담: 설마가 사람 죽인다/잡는다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두로 쓰이며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자주 호응한다 ①설마 -겠어요? 설마 -지 않겠지요? ②‘설마 -(으)ㄴ/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으)ㄴ/는 건 아니겠지요? ③설마 하면서-, ‘설마 하며-’ ④설마 단독 사용
비교	‘설마’와 ‘혹시’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 ‘설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의심이나 놀람, 비웃음 등의 태도를 표현하며 ‘혹시’는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 태도를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⑤연습 단계

연습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설마’의 사용을 충분히 연습하는 단계이다. 연습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을 맞추어 다양하게 마련한다.

◆ 연습(말하기 활동)

김선정 외(2010)는 말하기 교육에서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단어 게임하기, 상황에 따른 역할하기, 비교해서 말하기, 이야기 재구성하기, 설명하기 등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중급 추측 양태부사 ‘설마’의 연습 활동으로 상황에 따른 역할하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설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공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해 상황에 따른 대화를 하도록 한다.

[상황1]
지영이는 친구와 미국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호텔도 예약했는데 출발 3일 전에 친구에게 갑자기 못 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이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영이는 어떻게 말할까요?

[상황2]
지영이는 요즘 밤새워 회계학 시험을 준비중인데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서윤이는 지영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지영이가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이가 지영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상황3]
서윤이가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도 못해서 살이 쪘을까 봐 걱정합니다. 이럴 때 친구로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연습(글쓰기 활동)

이미향 외(2013)에서 중급에서 드라마를 활용한 쓰기 활동으로 '제시된 장면 앞이나 뒷이야기 쓰기'를 제시하였다.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상상하여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시청한 동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부분의 앞이나 뒷이야기를 쓰도록 과제를 남긴다.

⑥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연습 단계에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3). 고급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에 대한 수업

고급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의 수업 구성은 아래의 <표Ⅳ-11>과 같다.

<표Ⅳ-11> '어쩌면'의 수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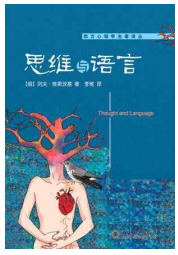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학습 목표	· 추측 양태부사 '어쩌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통사적 호응 제약 을 익혀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추측 양태부사 '아마, 혹시, 아무래도, 설마'와 비교함으로써 '어쩌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각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 용적 차이를 인식한다.
학습 내용	·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부사 · '어쩌면'의 통사적 호응 표현 · 추측 양태부사 전체에 대한 비교와 정리
학습 시간	45분

①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 학습 목표 어휘를 도입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쩌면'을 이끌어 낸다.

◆도입 예시

<그림 Ⅳ-2> 책



교사: 어제 <사고와 언어>라는 책을 샀어요. 서론까지만 읽었지만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고와 언어의 관련에 대해 궁금한가요?

학습자1: 네, 궁금해요.

학습자2: 책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고와 언어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교사: 아직 다 못 읽어서 대답하기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언어가 없다면 사람은 **어쩌면** 생각을 못 할지도 몰라요.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에서 대답을 직접 찾아보세요.

②예시 단계

예시 단계에서 교사가 사전이나 말뭉치 예문과 실제 의사소통 정보가 담긴 대화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쩌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스스로 '어쩌면'의 통사, 의미, 화용 등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드라마 대본과 같은 상황 정보가 담긴 대화문을 제시하기 전에 편집한 짧은 동영상을 학습자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며 추측 양태부사가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한다. 학습자가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본에서 '어쩌면'의 사용을 주의시킨다.

◆예문 예시

·어쩌면 내가 합격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 일이 끝날지 모르겠다.

·그건 어쩌면 강렬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상황 예시

[상황 1] 삼순 독백 그땐 몰랐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많은 약속들이 얼마나 허약한것인지 그 맹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좀 덜 힘들 수 있을까? 허튼 말인 줄 알면서도 속고 싶어지는 내가 싫다. 의미없는 눈짓에 아직도 설레이는 내가 싫다. 이렇게 자책하는것도 싫다. 사랑을 잃는다는 건 **어쩌면**, 자신감을 잃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드라마-내 이름은 김삼순 4회)
[상황 2] 삼순: 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던 영원한 사랑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막혀서요... 진헌: 그걸 이제 알았어요? (드라마-내 이름은 김삼순 7회)
[상황 3] 이영: 너 명숙이 보고도 몰라? 재벌가에 시집 갔다고 다들 부러워했지? 걔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어? 삼순: 어떻게 사는데. 이영: 자질구레한 얘기는 관두고, 걔가 그러더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성이 있다구.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성 밖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아. **어쩌면** 그게 현명한 **일일지도 모르고.** 문제는 신데렐라나 온달이 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인데, 난 내 동생이 그런 짓 안했으면 좋겠다. (드라마-내 이름은 김삼순 11회)
[상황 4] 삼순 독백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한다. **어쩌면** 우리도 **헤어질 수 있겠**구나... 연애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하지만 미리 두려워하지는 않겠다. (드라마-내 이름은 김삼순 16회)

③발견 단계

발견 단계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어쩌면'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쩌면'의 특성에 관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가 질문을 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시청한 후 소집단 활동을 통해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질문 예시

질문1: '어쩌면'의 뜻이 무엇이에요?

질문2: '어쩌면'과 호응하는 표현은 주로 무엇이에요?

질문3: '어쩌면'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요?

④제시 단계

제시 단계는 교사가 '어쩌면'의 특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대답을 근거로 하여 학습자가 발견하지 못한 특성을 설명하고 잘못 추론한 특성을 정정하여 강조한다. 교사는 '어쩌면'이 가정의 어미 '-면'과 관련이 없고 '어쩌면 -면 좋겠다'가 비문법적인 표현임것을 학습자에게 강조함으로써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자는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세운 가설을 스스로 수정한다.

<table>
<tr><th colspan="2">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내용</th><th>통사적 특성 교육 내용</th></tr>
<tr><td colspan="2">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여 추측을 나타나는 말
1. 화자가 추측을 할 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
2. 수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는 상황</td><td>주로 평서문에서 쓰여 추측 표현과 자주 호응한다.
①어쩌면 -(으)ㄹ지(도) 모르(겠)다
②어쩌면 -(으)ㄹ 수 있다/없다
③어쩌면 -(으)ㄹ 것이다
④어쩌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
⑤어쩌면 -겠</td></tr>
<tr><td>비교</td><td colspan="2">추측 양태부사의 차이에 대한 교육 내용
1. 문형: 아마/아무래도/어쩌면→평서문, 설마/혹시→평서문과 의문문
2. 확신의 정도: 아무래도 > 아마 > 어쩌면 > 혹시
3. 화자의 태도: '혹시'는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 태도를 표현하며, '설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의심이나 놀람, 비웃음 등 태도를 표현하고, '아무래도'는 '양보적' 의미를 나타나며, '아마'와 '어쩌면'은 특별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td></tr>
</table>

⑤연습 단계

연습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어쩌면'의 사용을 충분히 연습하는 단계이다.

◆ 연습(말하기 활동)

김선정 외(2010)에서 말하기 교육으로 고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좌담회하기, 발표하기, 촌극이나 연극하기, 인터뷰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어쩌면'의 수업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한 다음,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활용하기로 한다. 학습자가 예시 단계에 시청한 동영상에서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듣고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소집단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랑으로 범위를 넓혀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나 들은 이야기를 짝과 함께 나눈 뒤, 원하는 학습자가 발표하게 한다.

◆ 연습(글쓰기 활동)

말하기 활동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랑을 주제로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

⑥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연습 단계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추출하여 교육 방법을 고찰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숙달도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하는 데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정확성과 적절성을 모두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에 Ⅱ장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추측 양태부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빈도수 조사를 통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추측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추측 양태부사와 결합하는 서술어와 문장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해당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호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측 양태부사는 대체로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호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아무래도, 어쩌면’은 주로 평서문과 호응하는데 그 중 ‘아마’는 간혹 의문문과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아무래도’와 ‘어쩌면’은 의문문과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혹시’와 ‘설마’의 경우는 평서문과 의문문에 두루 호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추측 양태부사에 대한 사전에서의 정의와 예문, 그리고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해당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추측 양태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교재 분석을 통해 추측 양태부사가 교재에서 그저 새로운 단어 목록 안에서 그 기본적인 뜻만 중국어 혹은 영어로 간단히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고 통사적인 제약이나 호응 양상은 물론, 충분한 예문과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추측 양태부사를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선다형과 괄호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 60명, 재한 중국인 학습자 49명과 재중 중국인 학습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한 뒤에,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하여 두 중국인 학습자 집단에서 추출한

각 10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그것을 통사적 층위와 의미·화용적 층위로 나누어 해석함으로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추측 양태부사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재한 중국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우세를 보인다. 이에 대해 재한 중국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부사가 사용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기회가 보다 많아서 추측 양태부사를 인식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추측 양태부사의 교수·학습 내용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교육 내용과 의미·화용적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하여 학습 목표에 따라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즉 형태 초점 교수법의 입력 홍수와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하여 드라마를 교육용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추측 양태부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의사소통적 교수법에 근거하여 말하기 활동과 쓰기 활동을 병행하는 표현 교육을 통하여 추측 양태부사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OHE 모형을 이용하여 추측 양태부사 실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방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논의를 일반화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인정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자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2015), 『연세 中中韓辭典』, 中中韓辭典編纂委員會.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백문식(2010), 『우리말 부사사전』, 박이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누리집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찾기
(http://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국립국어원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국립국어원 현대구어 형태분석 말뭉치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하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2014), 한국어능력시험 초·중급 어휘 목록.
김중섭(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Ⅱ.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한국어 1A, 1B, 2A, 2B』,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한국어 3A, 3B, 4A, 4B, 5A, 5B, 6A, 6B』,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7), 『연세한국어 1, 2,』, 연세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8), 『연세한국어 3, 4』, 연세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9), 『연세한국어 5, 6』, 연세대학교출판부.
標準韓國語(1996), 1-3권, 北京大學出版社.
韓國語教程(2007), 1-6권, 世界圖書出版社公司.

韓國語1(修订本)(2008), 民族出版社.
韓國語2(修订本)(2010), 民族出版社.
韓國語3(2003), 民族出版社.
韓國語4(2004), 民族出版社.

Ⅲ. 국내 논문 및 단행본

가위경(2014), 한국어 추측성 양태부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사실, 분명히, 아마, 어쩌면, 혹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경화(2012), 코퍼스와 한국어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27-253쪽.
강보유(2002),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 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쪽.
강승혜 외(2006),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7-1, 이중언어학회, 57-75쪽.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태(2009), 『미디어 교육의 이해와 활용』,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동옥(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171-197쪽.
김련옥(2013), 한·중 양태부사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옥(2003),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2쪽.
김미현(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27-63쪽.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김석우·박상욱(2015),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김선정 외(2010), 『한국어 표현교육론』, 형설.

김영만(2006), 다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 -고급 수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23-36쪽.
김유정(20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분석의 기준 연구, 한국어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5-75쪽.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 제시,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65-91쪽.
김지혜(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부사 '아마'와 '혹시'의 어휘 정보 연구,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163-190쪽.
김충실(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의 실제와 교수방법, 중국조선어문 11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34-37쪽.
김현미(2003), 한국어 부사의 형태구조적 분류 및 공기(co-occurrence)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누문연(2013), 韓·中 推測 樣態副詞 對照 硏究: '아마', '어쩌면', '혹시'를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두르순(2014), 터기 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태부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리해영(2011), 양태부사 '혹시' 사용에 관한 오류분석 및 중국어 대응관계, 중국조선어문 17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8-33쪽.
문금현(2010),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16-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9-135쪽.
면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면현식(2008a),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위계화 양상에 대하여, 문법 교육 9, 한국문법교육학회, 105-157쪽.
면현식(2008b),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334쪽.
문혜정(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부사 '아마'와 '혹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연이(2016), 유의 관계 양태 부사 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은(2010) 한국어 양태 표현 부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숙(2002), 국어 의문형 서법 부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석주연·안경화(2003), 한국어 학습자 표현 오류분석의 몇 가지 문제: 정의, 확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9-215쪽.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송경숙(2003),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송현정(1998), 한국어의 호응 관계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89-118쪽.
신혜원 외(2006),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ENJOY 한국어(韓國語)」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86쪽.
심예솔(2013),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대조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주호(2004), '-ㄹ 수 있-'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7-232쪽.
엄녀(2010),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우한용 외(2006),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99-128쪽.
유민애(2012),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나(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가정·추측 양태부사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향 외(2013), 『한국어교육과 매체언어』, 역락.
이소아(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태부사 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양태 표현의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209쪽.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희(2003a),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이정희(2003b),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3쪽.
이종은(2004),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행(1992), 『현대국어 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주행(2000), 『한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임유종(2005), 『수식어의 문법』, 경진출판사.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왕주위(2014), 한국어 양태부사와 중국어 어기부사의 대조 연구-'결코, 과연, 만약, 물론, 아마'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영희(1994), 현대 국어 화식부사의 의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명희(2016), 『계량분석을 통한 한국어 양태부사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夏雨.
정성훈(2014), 현대 한국어 부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확률 통계 모형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영교(2012)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태부사 유의어 의미분석과 제시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승은(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부사의 교육 방안 연구; '아마, 어쩌면, 혹시, 아무래도, 설마'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철현 외 (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조효설(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태부사에 대한 연구: 호응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현실(1986), 양상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따른 의미분석: '아마' '글세' '혹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1-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39~167쪽.
최영란(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우성(201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영 '추측' 양태부사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죽산(2015), 한중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대조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0,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64-289쪽.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허용·김선정(2014), 『대조언어학』, 소통.
황병순(1984), 국어 부사에 대하여, 배달말 9-1, 배달말학회, 73-99쪽.
황혜숙(2003), 문맥을 이용한 어휘 지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Ⅳ. 국외 논문 및 단행본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이홍수 외 역(2003), 외국어 교수·학습의 원리, 피어슨에 듀케이션코리아].
Brown H. D.(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권오량·김영숙 역(2005), 원리에 의한 교수 :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Doughty C. & Williams J.(2002),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rwitz E. K.(2007), Becoming a language teacher: A practical guide to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Education [전병만 외 역(2010), 유능한 언어 교사 되기, 시그마프레스].
Herbert W. S. & Elena S.(1989), Second language research method [김지영 역(2002), 제2언어 연구방법론, 민지사].

Nunan D.(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 learning [임형빈 외 역(2003), 제2 언어 교수 학습, 한국문화사].

Richards, J. C.(1999), The language teaching matr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berts, R. M. & Kreuz, R. J.(1994), Why do people use figurative language, Psychological science Vol.5 No.3,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pp.159-163.

Rod E.(199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박경자·장미경·오은진 역(2001), 제2언어 습득, 박이정].

Thornbury, S. (1999) ,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이관규 외 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黄伯荣, 廖旭东(2007),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马丹(2010), ‘大约’类或然语气副词的多角度分析,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齐春红(2006), 现代汉语语气副词研究,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齐沪扬(2002), 语气词和语气系统, 安徽教育出版社.

王露(2009), 现代汉语确定性推测语气副词研究, 上海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吴善子(2010), 汉韩反诘语气副词对比研究, 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徐余龙(2001), 对比语言学概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姚杰(2005), 或然类语气副词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姚俊(2003), 论反语理解的认知机制及其语用效力, 四川外国语学院学报 19-5, 95-98页.

朱丽(2005), 揣测语气与揣测语气副词,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张营(2011), 现代汉语语气副词研究, 北京大学硕士学位论文.

[부록]

[부록1] 설문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용)

您好!

我是首尔大学师范学院韩国语教育专业硕士生蒲一平，本次问卷的目的在于了解韩语学习者对于‘韩国语推测副词’的理解和使用。

本次问卷所收集的资料将只在论文中使用，不会用作任何其他用途。

填写问卷大约需要10分钟，非常感谢您百忙之中参与问卷调查。

2016年7月

蒲一平

1. **性别:** □ 男 □ 女
2. **目前所处机构:** □ 语学院 ( )**级班** □ 大学本科
   □ 研究生院 □ 其他( )
3. **韩语学习时间:** ( )年 ( )个月
4. **韩国居住时间:** ( )年 ( )个月
5. **TOPIK考试证书:** □ 有 ( )**级** □ 没有
6. **联系方式(选填):** (微信ID等)

一. 请选择最合适的选项，共13题。

[문항 Q1]
지영和서윤是XX大学国语国文系的同班同学，关系非常亲近。
지영: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시험이니까 금요일부터 방학이네?
서윤: (①).
지영: 오, 좋아.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에버랜드에 놀러 갈까?

A.어쩌면 B.혹시 C.아마도 D.아무래도

[문항 Q2, Q3]
정환是지영和서윤吉他社的前辈，现在是会计学系4年级学生。
지영: 정환 선배 요즘 회계학(会计学)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던데.
서윤: 회계학? 진짜 어렵겠다.

지영: 응.
서윤: 정환 선배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영: (　　②　　) 이번 시험에 떨어질지도 몰라.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A.아무래도　　B.어쩌면　　C.혹시라도　　D.설마

考试成绩公布之后
지영: 정환 선배 이번에 회계학 시험에 불합격했대.
서윤: (　　③　　).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했다면서?
지영: 그러게 말이야.

A.혹시　　B.아마　　C.설마　　D.어쩌면

[문항 Q4]
정환正在客厅里看电视，这时他妈妈回来了。
정환 어머니: 네 형 아직 안 들어왔어?
정환: 네, (　　④　　) 축구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축구팀에 가입했는데 오늘부터 매주 수업 끝나고 연습 있대요.
정환 어머니: 아, 맞다. 깜빡했네.

A.아무래도　　B.어쩌면　　C.아마　　D.혹시

[문항 Q5]
서윤, 지영和정환三人约好周五六点在弘大某餐厅聚餐，可是6:20了，정환还没有来。
지영: 정환 선배 왜 아직도 안 와?
서윤: 그러게, 선배 약속에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영: (　　⑤　　) 길을 못 찾는 거 아니야? 이 레스토랑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A.어쩌면　　B.혹시　　C.아무래도　　D.아마

[문항 Q6]
서윤: 국어 문법론 수업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지영: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닌가?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윤: 이번 주 금요일?
지영: 응.
서윤: 어떡해, 난 다음 주 금요일인 줄 알고,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썼어.
　　(　　⑥　　)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 못할 것 같아.

A.어쩌면　　B.설마　　C.혹시　　D.아무래도

[문항 Q7]
韩国文化讲座快结束时
선생님: 오늘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⑦) 질문 있습니까?
외국인 학생: 선생님, 한국의 제사에 대해 궁금한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혹시 B.어쩌면 C.아마 D.설마

[문항 Q8, Q9]
서윤申请了某某公司的实习。
서윤: 인턴 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인턴 안 하면 취직도 못 하고. 요즘 애들은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다. 注：스펙指求职人的学校，学历，成绩，经历，证书等
지영: 스펙 따지는 건 (⑧)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일지도 몰라.

A.어쩌면 B.설마 C.혹시 D.아무래도

서윤: 토익도 봐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지영: 근데 이번에 OO회사는 인턴 10명을 더 뽑는다고 하던데.
넌 잘될 거야.
서윤: 그래? (⑨)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긴 하겠다.

A.혹시 B.아무래도 C.아마 D.어쩌면

[문항 Q10]
서윤在某某公司做实习，下面是跟她公司同事상우的对话内容。
서윤: 상우 씨,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상우: 그거요? (⑩) 내일까지 끝내야 될 거예요.

A.혹시 B.아마 C.설마 D.어쩌면

[문항 Q11]
아내: 여보, 나 친구 집에 갔다 올게. 저녁때쯤 들어올 거야.
설거지 좀 부탁할게.
丈夫看着满厨房的碗说
남편: (⑪) 나보고 이걸 다 하라고?

A.혹시 B.아마도 C.설마 D.어쩌면

[문항 Q12]
서윤: 난 요즘 볼(腮帮子)이 너무 아파.
지영: 볼이 아파? 며칠 됐어?
서윤: 한 일주일 정도 됐어.
지영: 사랑니(智齿) 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사랑니 아직 안 났다면서.
(⑫) 치과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A.혹시나 B.아무래도 C.설마 D.어쩌면

[문항 Q13]
지영和서윤一起去图书馆借书了。
지영: 중국어 책을 왜 그렇게 많이 빌렸어?
서윤: 중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
지영: 왜 중국어 시험을 봐?
서윤: (⑬) 해서. 내년에 졸업할 건데 취직 준비를 미리 해야지.

A.어쩌면 B.설마 C.혹시라도 D.혹시나

二. 请用括号内的内容完成对话，共10题。

[문항 W1, W2]
지영: 난 미국의 대학원에 지원할 생각이야. 졸업하면 유학 가려고...
서윤: 아? 결정됐어? 너 가고 나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지영: 아니야, 일단 지원해 보려고.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어.
서윤: 미국의 대학원은 2년인가 3년인가?
지영: **아마** ① _____. (2년)
서윤: 2년 후는? 대학원 졸업한 후에 미국에 계속 있을 거야?
지영: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쩌면 미국에서 ② _____.(취직하다)

[문항 W3]
지영: 하하! 난 이번학기에 수업을 하나만 들으면 학점을 다 채울 수 있어.
서윤: 좋겠다. 난 9학점이나 더 따야 돼.
난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 3과목을 더 들어야 ③ _____.(졸업하다)

[문항 W4]
지영和서윤约好在学校食堂前面见面，지영到食堂的时候看到서윤在跟一个人打招呼。
지영: 아까 그분은 누구셔?
서윤: 어, 우리 문화론 수업 교수님이셔.

지영: 되게 젊어 보이신다.
서윤: 하하, **어쩌면** ④ _____.(30대)

[문항 W5]
지영看到某明星有施暴嫌疑的新闻后，跟서윤的对话。
지영: ㅇㅇ가 어제 또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대.
서윤: 진짜? **설마** 걔 진짜 그런 ⑤ _____?(짓을 하다)
지영: 모르겠어. 곧 밝혀지겠지.

[문항 W6]
지영: 중국인 친구가 본명년(本命年)에는 빨간 옷을 입어야 운이 좋다고 하더라.
서윤: 그래? 근데 본명년이 뭐야?
지영: 태어난 해랑 12간지가 같은 해라고 들었어.
서윤: 아...그렇구나. **아마** 그건 ⑥ _____.(중국 문화)

[문항 W7, W8, W9]
지영, 서윤, 소라三人约好周六11点在咖啡店见面，这是소라从美国回国后她们的一次聚会。
周五下课后지영和서윤在聊明天的聚餐。
지영: 내일 점심 뭐 먹을까?
서윤: 지난번에 갔던 그 파스타 집에 갈까?
지영: 아, 거기...근데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던데. 간판도 없어졌어.
서윤: **설마** ⑦ _____? (망하다)
지영: 그럴 수도 있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서윤: 난 아무거나 괜찮아, 소라 만나고 나서 결정해도 돼.

周六11点，咖啡店内
지영: 왜 우산을 들고 왔어?
서윤: 아침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비가 온대.
혹시 ⑧ _____ (비가 오다) 우산 가져왔어.
너 안 가져 왔으면 이따 같이 쓰자.

周六11点20分，一个长得有点像소라的女生朝着지영和서윤走来了。
지영: 저기 흰 원피스를 입은 애,
혹시 ⑨ _____? (소라)

서윤: 응, 소라인가 봐. 많이 예뻐졌네. 지영: 어, 못 알아볼 뻔했어. 소라: 지영아, 서윤아, 오랜만이야.
[문항 W10] 지영和서윤在走去图书馆的路上，서윤悄悄在看从对面走过来的一个男生。 지영: 왜 그래? 서윤: 아니. 내가 도서관에서 이상한 사람 봤다고 했지. 지영: 어, 그래서? 서윤: **아무래도** 아까 ⑩ _____. (그 사람) 지영: 잘못 본 거 아니야? 서윤: 아니야, 키도 비슷한데...

[부록2] 인터뷰 참여자 대상 정보

집단	학습자 번호	성별	연령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 기간
제한 학습자	CK1	여	20대	1년 5개월	TOPIK6급	1년 6개월
	CK2	여	10대	1년 3개월	TOPIK5급	1년 3개월
	CK3	여	20대	1년 3개월	5급반	1년 3개월
	CK4	남	20대	1년 5개월	TOPIK6급	1년 5개월
	CK5	여	20대	1년 3개월	TOPIK5급	1년 5개월
	CK6	여	20대	1년 3개월	TOPIK6급	1년 7개월
	CK7	여	20대	1년 5개월	TOPIK6급	1년 5개월
	CK8	여	10대	1년 3개월	TOPIK5급	1년 4개월
	CK9	여	20대	1년 3개월	TOPIK5급	1년 3개월
	CK10	여	20대	1년 3개월	TOPIK5급	1년 4개월
재중 학습자	CC1	여	20대	2년	TOPIK5급	해당 안 됨
	CC2	여	20대	2년	TOPIK6급	해당 안 됨
	CC3	여	20대	3년	TOPIK6급	해당 안 됨
	CC4	여	20대	2년	TOPIK6급	해당 안 됨
	CC5	여	20대	3년	TOPIK6급	해당 안 됨
	CC6	여	20대	3년	TOPIK5급	해당 안 됨
	CC6	남	20대	3년	TOPIK6급	해당 안 됨
	CC7	여	20대	2년	TOPIK5급	해당 안 됨
	CC8	여	20대	3년	TOPIK5급	해당 안 됨
	CC9	여	20대	3년	TOPIK6급	해당 안 됨
	CC10	여	20대	3년	TOPIK6급	해당 안 됨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Conjecture Modality Adverbs for Chinese Learners

PU YIP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jecture modality adverbs, which can express various feelings and attitudes of the speaker,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conjecture modality adverb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overall modality adverbs by calculating frequency of them in <21 century sejong project > corpus. Although it is importan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conjecture modality adverbs in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es on them mainly focused on '아마' and '혹시', showing less interest on the overall conjecture modality adverbs. Moreover, most of the researches only focu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but did not discuss the pragmatic features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Also, Chinese learners find it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ces among the conjecture modality adverbs and they could not always use it properly with other parts of the sentence. Therefor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is problem, then clarified the differences in semantic·pragmatic and syntax features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and finally analyzed the use of learners to establish learning contents. In addition, a teaching model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which

is aimed for helping learners' to use those adverbs more appropriately in communication.

Chapter Ⅱ described the theoretical concept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and selected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 as objects among the variety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by investigating frequency of modality adverbs in <21 century sejong project > corpus. Next the analysis of <21 century sejong project > corpus described the syntactic features and sentence types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Additionally, it proposed semantic·pragmatic features through dictionary and previous research and clarified the difference in semantic·pragmatic features. Finally, it discussed the present order, present methods of textbooks published in China and Korean to check whether semantic·pragmatic and syntax features are fully reflected.

In Chapter Ⅲ, a survey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features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actual usage between native Koreans and Chinese learners. The Chinese learn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Chinese students in China'. And the result of the survey was explained in semantic·pragmatic aspect and syntax aspect. After the survey there were follow-up interviews with some of the participants to analysis the cause of error, which was made by Chinese learners in the survey.

Chapter Ⅳ presented an efficient teaching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for conjecture modality adverbs based on the results of chapter Ⅲ. The teaching contexts were presented in semantic·pragmatic and syntax ways. Teaching method was purposed to help Chinese learners to understand and use Korean conjecture modality adverbs correctly and more accurately. Focus on form teaching method would help learners to understand the conjecture modality adverbs more accurately an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method would help learners to express themselves more properly in communication. At last

the OHE model was used to establish a practical teaching model for conjecture modality adverbs.

In last chapter, it summarized the earlier discussions and described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has significance in presenting the teaching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f conjecture modality adverbs. However, limitations is that the study was based on Chinese learners. Therefore, complementary research is required afterward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lexical education, conjecture modal adverbs, focus on form,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OHE model

Student Number: 2014-25220